

'97문화유산의 해

향토사 수집 보존자료

내고장이 낳은 인물

春菴 朴寅浩 研究

예 산 문 화 원

春菴 朴寅浩 研究



예 산 문 화 원



발 간 사

내고장의 역사는 시간적으로 아주 오랜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며 그 사실(史實)도 방대(尙大)하리라는 관심속에 그것이 근대에 와서지만 향토사(鄕土史)로 지칭(指稱)되어 각계에 의해서 계획, 조사, 기록, 보존되어 가고 있음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향토사의 구성요소를 자연적인 요소, 사회적인요소 그리고 인문학적인 요소로 대별(大別)한다면 그중에 자연적인 요소가 여타(餘他) 요소에 비하면 가장 적게 발굴되면서 향토사가 조명되었습어도 발견된다.

이러한때에 문화체육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향토사조사 수집 보존의 일을 지방문화원이 맡고 그 5개년 시행계획 기간중 금년이 제 2차년도가 된다. 여기에 예산문화원에서는 전술(前述)한 인문학적인 요소에 전체 향토사조사 사업량의 일부를 배분(配分)하되 금년엔 내고장이 낳은 인물 춘암(春菴) 박인호(朴寅浩)선생과 그분이 창도(唱道)하신 천도교(天道敎)를 본서(本書)에 조명(照明)하기로 한다.

본서를 펴냄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 전부를 내어주신 李尙載교장님께 본면(本面)을 빌어 감사를 드린다.

1997년 10월 일

예 산 문 화 원 장 이 지 호

34

목 차

| | |
|---------------------------------|----|
| 1. 동학의 창도 | 5 |
| 2. 민족 종교로서의 동학 | 8 |
| 3. 박인호와 동학 입도 | 11 |
| 4. 내포 동학의 조직 | 15 |
| 5. 신원(伸冤)과 포덕(布德) | 18 |
| 6. 복합상소 | 20 |
| 7. 보은 취회 | 22 |
| 8. 교부 농민 소요 | 24 |
| 9. 내포 동학의 기포 | 26 |
| 10. 승전곡 전투 | 29 |
| 11. 신례원 전투 | 30 |
| 12. 홍주성 공방전 | 32 |
| 13. 역리(1) | 34 |
| 14. 역리(2) | 35 |
| 15. 동학의 복원 | 36 |
| 16. 천도교의 현도 | 40 |
| 17. 천도교 대도주 춘암 박인호를 쓰는 입장 | 42 |
| 18. 춘암 대도주의 종단 체계화 업적 | 43 |
| (1) 교회 제도의 수립 (2) 천도교 월보 | |
| 19. 개벽 운동과 춘암가 | 46 |
| 20. 포덕 활동의 강화 | 48 |
| 21. 춘암의 성미 및 그 용처 | 50 |
| 22. 기미 독립 만세 운동과 춘암 | 54 |

1. 동학(東學)의 창도(唱道)

영남(嶺南) 경주(慶州)에 몰락유생(沒落幼生) 근암(近菴) 최옥(崔鑿)의 만득자(晩得子) 복술(福述)은 떠돌아 다니는 한씨소생(韓氏所生)으로 태어났다. 최옥(崔鑿)도 양반(兩班)의 후예(後裔)로 5, 6차례 과거(科擧)에 실패(失敗)하고 어렵게 사는 처지(處地)였다.

복술(福述)은 적서차별(嫡庶差別)이 심(甚)하던 근세조선말기(近世朝鮮末期)에 소외(疎外)된 존재(存在)로 살았다. 그는 역적(逆賊)의 눈을 가졌다고할 정도로 반역아(反逆兒)로 성장(成長)하였다. 그는 만권시서(萬卷詩書)를 통달할만큼 학문(學問)이 깊었기에 내면적(內面的) 갈등을 심(甚)하게 겪었던 듯하다.

부친(父親)이 세상을 떠나자 16세때 명산대찰(名山大刹)을 찾아 방황하는 주유천하(周遊天下)의 길을 떠났다. 그의 10여년간(餘年間)의 방랑은 출가소년(出家少年)의 경험(經驗)치고는 펍 길었다. 그는 1854년 10월, 10여년의 방랑 끝에 경주(慶州)에 돌아와 고향(故鄕) 향토의 자연(自然)이 예찬의 대상임을 발견한다. 1855년에 천서(天書)라는 이종(異種)의 문건(文件)을 얻어 그의 독공(篤工)은 한층 깊이 들어갔다. 1860년 4월 5일 드디어 천사문답(天師問答)이란 형식(形式)을 통(通)하여 각도(覺道)하니 이는 그의 말대로 금불문고불문(今不聞古不聞)의 대문자(大文字)이다.

- ① 지기금지(至氣今至) 원위대강(願爲大降)이라는 영신(迎神)의 축문(祝文)을 얻고
- ② 이어 시천주(侍天主) 조화정영세불망만사지(造化定永世不忘萬事知)라는 주문(呪文)을 또한 얻었다.

이를 다른 말로 설명(說明)하기를 '수심정기(修心正氣)하면 인간은 내유신령(內有神靈)하고 외유기화(外有氣化)하여 각지불이(各知不移 : 모든 사람이 알고 변심함이 없고)하여 무위이화(無爲而化)하며 모든 신자(信者)는 지상신선(地上神仙)이 되어 군자(君子)로 처세(處世)하여 후천개벽(後天開闢)이 되어 지상천국(地上天國)을 구현(具現)하게 된다'고 설파(說破)하였다.

복술(福述)은 어리석은 사람을 진진다하여 이름을 제우(濟愚)라하고 도호(道號)를 수운(水雲)이라 이름하고 개접(開接)하여 포덕(布德)에 나섰다. 수운(水雲)은 유교(儒敎)나 도교(道敎)나 불교(佛敎)가 시운(時運)을 못얻어 서양 기독교(西洋基督教) 세력(勢力)의 전필승공필취(戰必勝攻必取)의 힘이 없다하여 새로운 지도원리(指道

| | |
|--|-----|
| 23. 개벽 | 56 |
| 24. 천도교의 분열 | 58 |
| 25. 육영사업과 성미 | 61 |
| 26. 6·10만세 운동 | 63 |
| 27. 신간회와 춘암가 | 64 |
| 28. 현파 박래홍 | 69 |
| (1) 박래홍과 그의 피살 (2) 현파에 대한 주도문 | |
| (3) 박래홍 피살의 저간 사회논조 (4) 박래홍 활동과 사사의 편린 | |
| 29. 무인멸애 운동 | 102 |
| 30. 춘암 상사주의 이모저모 | 107 |

간행(刊行)하고 시세(時勢)에 대처(對處)하는 교리(教理) 즉(卽) 사인여천(事人如天), 제폭구민(除暴球民), 척양척왜(斥洋斥倭)를 제정(制定)해냈고 육임제(六任制)도 마련하였다. 1894년 기포령(起包令)을 내렸으나 공주(公州) 우금치(牛禁峙)에서 패(敗)하여 영동(嶺東)에 숨어다니다 1890년 6월 2일 순도(殉道)하니 의암(義菴)이 승통(承統)하였다. 의암(義菴)은 인내천(人乃天)의 교리(教理)를 제정(制定)하고 민회(民會)를 창립(創立)하여 일본군(日本軍)에 협력(協力)하다가 이용구(李容九)의 실수(失手)로 교주(教主) 자리를 내놓으니 우여곡절(迂餘曲折) 끝에 박인호(朴寅浩)가 마침내 승통(承統)하게 됐다. 때는 1908년 1월 18일이었다.

原理)를 창안(創案)하였다고 이르고 있으니 인의예지(仁義禮智)는 선성(先聖)의 소정(所定)이요, 수심정기(修心正氣)는 자기(自己)가 경정(更正)한 새 시대(時代)의 원리(原理)라 이르고 경전(經典) 또는 문(文)이나 가(歌)를 지어 포덕(布德)의 내용(內容)으로 삼았다.

지은 글은

- ① 참회문
- ② 축문
- ③ 용담가
- ④ 교훈가
- ⑤ 안심가
- ⑥ 처사가 등이다.

수운(水雲)은 위글에서 동학(東學)의 버리를 제시하였으니

- ① 윤회지운(輪迴之雲)
- ② 보국안민(補國安民), 포덕천하(布德天下), 광제창생(廣濟蒼生)
- ③ 시천주(侍天主)
- ④ 수심정기(守心正氣), 성야경야(誠也敬也)
- ⑤ 경외지심(敬畏之心)
- ⑥ 도성덕립(道成德立)
- ⑦ 내유신령(內有神靈), 외유기화(外有氣化), 무위이화(無爲而化), 지상천국(地上天國)을 제시하고 있다.

수운(水雲)은 포덕(布德)하는 중(中) 무엇인가 느낀 것이 있었는지 후계자(後繼者) 육성(育成)에 눈을 돌렸다. 많은 추종자(追從者)들이 시운(時運)에 따른다는 뜻에서 시자(時字)를 이용(利用)하여 개명(改名)을 하였다. 최경상(崔慶翔)도 그중의 하나였다. 이름을 최시형(崔時亨)이라 바꾸었다. 그것은 수운(水雲)의 지론(持論)인 용시용활(用時用活)의 의미(意味)에 부응(副應)한다는 뜻이다. 수운(水雲)은 시형(時亨)에게 뜻을 두고 독공(篤工)을 시켰다.

1863년 포덕(布德)은 4년 7월 23일 해월당(海月堂)이라는 도호(道號)를 내리고 이어 8월 14일에는 도통(道統)을 이어 주었다.

1864년 3월 10일 수운(水雲)이 문구(文邱)장대에서 순도(殉道)하니 도(道)의 모든 책임(責任)은 해월(海月)에게로 돌아갔다. 해월(海月)은 교리연성(教理煉誠)을 하면서 1879년 10월에 동경대전(東經大典)을, 1880년에는 용담유사(龍潭遺詞)를

歐植民主義) 앞에 전율하고 있었다. 민란(民亂)은 거듭 일어나고 이양선(異樣船)이 국경(國境)을 자주 침범(侵犯)하였다. 민족적 모순과 국제적 모순이 혼재하는 위급한 상황이었다. 사회(社會)가 불안(不安)하면 언제나 참언(讖言)이 난무하고 유언비어가 횡행하게 된다. 우리 조선(朝鮮)에서도 십승지지(十勝之地)이니 가활만인지지(可活萬人之地)이니 하면서 진사(辰巳)에 성인출(聖人出)하여 북실천리(北失千里)하고 남득만리(南得萬里)하고 36국(國)이 조공(朝貢)을 바친다고 수근수근 대었다. 이 복사(復事)의 주복(主復)인 정도령인가 무엇이란 것도 또한 환전(喧傳)되었다. 이 판에 유생(儒生)인 경남경주(慶南慶州)의 최복술(崔福述)이 평생(平生)을 천하(天下)를 주유(周遊)하면서 경세(經世)의 술(術)을 다듬었다.

그가 관찰한 것은 성공(成功)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들, 전필승(戰必勝)하고 공필취(功必取)하는 서양(西洋)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의 차(差)는 항심(恒心)이 있고 없고의 차이요, 그것은 하나님과 같은 절대자(絕對者)에게 의지(義持)하는 신심(信心)의 유무(有無)에 달린 것이다. 그리하여 민족(民族)이 궁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변심(變心)을 하는데 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동신(洞神)과 산신령(山神靈)을 삶의 절대자(絕對者)로 모셨다. 우리도 절대신(絕對神)인 한울님을 모시면 조대(造代)가 어찌 서양(西洋)사람들의 전유물(專有物)이겠는가. 그리하여 시천주조화정(侍天主造化定)을 성형(成型)해 내었다. 하나님을 지극히 모시면 조대(造代)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영속적 발전(永續的 發展), 그것은 무엇인가? 항심(恒心)의 영속적(永續的) 유지(維持)이다. 1000年 가는 왕조(王朝) 없고 삼대(三代)를 유지(維持)하는 세(勢)가 없다. 그러기에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라 노래부르지 않는가.

영세불망만사지(永世不忘萬事知)라는 뜻을 얻었다. 창업(創業)의 정신(精神)을 영구(永久)히 지키면 만사여의형통(萬事如意亨通)한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각도(覺道)의 대통(大統)을 세웠다. 이 일을 널리 영원히 하는 데에 하나님의 보살핌을 얻어야 하고, 그것을 얻는 노력(努力)에 의(依)해 만민(萬民)은 화평(和平)을 얻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사인여천(事人如天), 즉(卽) 인간(人間)을 하나님 모시듯 위하고 제폭구민(除暴救民)과 모든 폭력(暴力)을 제거(除去)하여 백성(百姓)으로 하여금 무애(無碍)의 삶을 가져주는 사회(社會)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리하여 도(道)의 대강(大綱)을 세워 이는 곧 민중종교(民衆宗教)인 것이다.

동학(東學)은 민족종교(民族宗教)이다. 인간(人間)은 장소(場所)에 따라 또는 시간(時間)에 따라 달라진다. 추운 곳의 사람은 따뜻한 곳을 바라고, 더운 곳의 사람은

2. 민족종교(民族宗教)로서의 동학(東學)

동학(東學)은 민족종교(民族宗教)이다.

우리 민족(民族)은 우랄 알타이 어계(語系)에서 큰 줄기를 이어오다가 통구스족(通古斯族)으로 갈려 다시 몽고족(蒙古族)으로 분류(分類)하는 것이 인류학자(人類學者)들의 대체적(大體的)인 경향(傾向)이다.

그들은 몽고(蒙古) 만주(滿洲) 시베리아 등지(等地)에 사는 인종(人種)들과 근친 관계(近親關係)를 이루며 기마민족(騎馬民族)으로 일컬어진다. 그들은 오랜 세월(歲月) 자연(自然)에 순치(馴致)되면서 만물(萬物)에는 초능력자(超能力者)가 있어 인간사(人間事)를 주재(主宰)한다고 여겨 "샤만"을 매개(媒介)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다. 그들은 한반도(韓半島)에 정주(定住)하면서 봄에 콩을 볶아 재앙을 쫓고 복(福)을 받아 들이며, 10월 상달에는 햇곡으로 제신(諸神)에게 천신(薦新)을 하여 안택(安宅)을 기원하였다.

농경(農耕)을 하면서 정주(定住)하게 되고 동구(洞口)에 성황당을 짓고 솟대를 세우며 장승을 세우고 마을 공동신(共同神)인 서낭신을 산신당(山神堂)에 모시고 마을의 화평(和平)을 빌었다. 그리고 서낭신을 하나님으로 모셨다.

또한 각 가정에서는 상달에 안택(安宅)을 하는 데 자연(自然)의 섭리자(攝理者)가 있다고 믿는 집안 곳곳에 떡을 바쳐 화평(和平)을 기원(祈願)하였다. 이런 생활상상(生活樣相)은 큰 변혁(變革)을 가져오지 않았다. 그것은 우리 강산(江山)이 산자수명(山紫水明)하고 풍광(風光)이 명미(明眉)하여 현세(現世)에 자족(自足)하고 내세(來世)에 관(關)하여 크게 문제시(問題視)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고급(高級)한 외래종교(外來宗教)가 유입(流入)하면서 전통(傳統)과의 사이에 분란이 일어났으니 신라(新羅)시대의 이차돈(異次頓)의 죽음은 이를 잘 설명(說明)해 주고 있는 것이다.

사람의 심성(心性)은 종교적 성질(宗教的性質)을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외국(外國)에서 형성된 고급종교(高級宗教)가 유입(流入)되어 불교(佛敎), 도교(道敎), 유교(儒敎), 기독교(基督敎)가 들어와 보급(普及)되니, 인의예지(仁義禮知), 천국, 지옥(天國, 地獄) 등(等)이 논의(論議)되어 재래(在來)의 신앙(信仰)은 하류층(下流層)의 전유물이 되면서 명맥(命脈)을 유지(維持)해 갔다.

19세기(世紀)의 한국(韓國)은 왕조말적 혼돈(王朝末的 混沌)과 서구식민주의(西

3. 박인호(朴寅浩)와 동학입도(東學入道)

박인호(朴寅浩)는 충청도(忠淸道) 덕산군(德山郡) 장촌면(場村面) 막동(幕洞)에서 태어났으니 지금은 충청남도(忠淸南道) 예산군(禮山郡) 삽교읍(插橋邑) 하포리(下浦里)이다. 이곳은 삽교천(插橋川)이 홍성땅에서 발원하여 북류(北流)하다가, 청양(靑陽)에서 발원하여 북류하는 무한천(無限川)과 합류하는 선장 들에서 거슬러 올라오기 3km쯤 되는 곳으로 내 건너편에 구만포가 있고 이곳에 하포(下浦)가 있는 것이다.

홍주에서 내려오는 삽교천은 이곳 조금 위에서 덕산(德山)에서 내려오는 물과 응봉(鷹峰)에서 내려오는 물이 합수하여 세내거리가 되니, 퇴적토가 쌓이어 형성된 들로 이 마을을 지나면 또 오가면(吾可面) 내량리에서 내려오는 삼리골의 물을 합수하다. 오랜 세월을 두고 매워진 곳으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다 생선을 실은 배가 이쪽은 하포에 강 건너에 있는 구만포까지 들어와 어물전이 섰던 곳으로 농사도 짓고 바다도 이용하여 고기도 잡던 기름지고 교통이 뜸린 곳이다. 그러기에 독일인 옴펠트가 상륙하여 남언군 산소를 굴충하다 미수에 끝내고 퇴각하여 배를 타고 도망가던 구만포가 강 건너에 있었던 것이다. 하포리에는 토성이 둘 가운데 있었는데 이것은 아마도 당나라 군사에 대적하던 백제 부흥군의 축조물이 아닌가 여겨진다. 이 토성에서 5마장쯤 올라가면 들판 한 가운데 토성이 또 하나 있는데 여기가 성리(城里)로 향명으로는 목시라 불리는 곳으로 옛날에 치소(治所)가 있던 교통이 발달한 곳이다.

목시는 들판치고는 이상한 곳으로 토성이 둘러있고 당(堂) 집이 있고 지석묘(支石墓)가 있는 고향이 그대로 남아있는 곳으로 이제는 경지 정리가 되어 옛모습이 모두 살아져 가는 곳이다. 막동은 이러한 천연적인 조건이 이루어진 곳으로 농어촌으로는 펍 살기 좋은 곳이다.

삽교천(插橋川)을 막은 뚝 건너편은 아산군(牙山郡) 땅으로 공세리(貢稅里)라 한다. 옛날에는 예산창(禮山倉) 홍주창(洪州倉)등으로 각 군이 창고(倉庫)를 지어 놓고 세곡(稅穀)을 저장하였다가 한양(漢陽)으로 실어가던 곳이다.

구내포(九內浦)나 그 지방(地方)의 세곡(稅穀)을 공세리(貢稅里)로 실어 보내던 곳이니 이곳 들은 해륙(海陸)의 교통운송(交通運送)의 요지(要地)였다. 어찌 됐던 하포리(下浦里)는 막동(幕洞)이 있던 포리(浦里)로서 먼 옛날부터 국방의 요충 또는 운수요충(運輸要衝)이었던 것이다. 이런 들속에 있는 농가에서 출생한 것이다.

시원한 곳을 바란다. 사람이 처(處)한 상황(狀況)에 따라 바라는 것이 차이가 난다.

세계적(世界的)인 기성종교가 그 내용(內容)과 질(質)의 상이함은 여기서 기인한다. 유대교의 경우에서 한자리에 사는 사람도 생각하는 방식에 따라 틀림을 우리는 본다. 나를 중심(中心)으로 한 율법중심(律法中心)의 종교가 있는 가 하면 우리 모두를 위한 인간(人間)의 본질(本質)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종교가 있는 것이다.

오늘날도 이런 문제(問題) 때문에 전쟁(戰爭)까지 불사(不辭)함을 우리는 본다. 중동지역(中東地域)의 분쟁(紛爭)은 대개 여기에 속한다. 여기에 민족(民族)종교(宗教)의 문제(問題)가 제기(提起)된다. 19세기(世紀)는 식민지(植民地) 경쟁(競爭)의 시대(時代)이다. 화란(和蘭), 영국(英國), 불란서(佛蘭西)에서 시작한 것이 미국(美國), 일본(日本)으로 이어져 1840년 중국(中國)에서 아편전쟁(阿片戰爭)이 일어나고, 의화단(義和團) 사건(事件)이 일어났다. 이어 이양선(異樣船)이 조선반도(朝鮮半島)에 출몰(出沒)하니 우리나라에도 위기의식과 민족자존의 기풍이 일어났다. 1860년에 창도(唱導)한 동학(東學)이라는 신교(新敎)가 파죽지세(破竹之勢)로 전국(全國)을 휘몰아쳤다. 옥신각신하던 중 1894년에는 관장(管掌)의 수탈(收奪)에 맞서서 혁명(革命)이 일어나고 외군(外軍)이 개입(介入)하게 되어 동학(東學)은 척양척왜(斥洋斥倭)의 기치(旗幟)를 높이 들어 민족자존(民族自尊)을 외쳤다. 동학(東學)은 민족자존의 중심세력이 되었고, 1919년 기미독립만세시(己未獨立萬歲時)에는 홀로 쫓기(蹶起)하여 민족운동(民族運動)을 주도(主導)하였다.

⑧ 동네일이 일어나면 해결사 구실하기

이 시절 책상 물림 농군은 동네일 어느 것 하나 건섭하지 않은 것이 없는 문제 해결사였고 요사이 말로 마당발 노릇을 하는 것이 예사였다. 그러기에 춘암은 예산, 덕산, 삼교 등지에서는 특출하게 이름이 알려진 존재였다.

이 때는 근세(近世) 조선 말기여서 제대로 되어가는 것이 없고 사람들은 희망없는 나날을 보내곤 하였다. 이곳 저곳에 도적이 들끓고 되는 일이 거의 없고 희망을 잃은 그날 그날을 보내면서 유언비에 귀를 기울이고 정감록이니 도선비록이니 북창비결, 남사고비결을 읽고 진사년간에 성인이 나오는 데 새로운 세상이 오면 북으로 천리를 잃고 남으로 만리를 얻는 데 36국이 조공을 바치는데 도움은 이씨는 한양의 지기가 다하여 정씨 800년의 계룡산 시대가 온다는 희망아닌 희망에 요행수를 걸고 살아가는 형편이었다.

예산 읍내 오리정에 가면 월화가 경영하는 주막이 있는데 춘암은 이주막의 단골손님이었다. 체구가 커 6척(尺) 장사요, 힘이 세어 한 고을의 장사이니 그의 인정이 많은 마음씨 누구하나 범접하기 어렵고 용모는 근엄하여 이 주막 주모 월화가 좋아하는 손님중의 하나였다.

하루는 월화가 긴한 이야기라며 껌속말을 해주는 것이었다. 하나님을 믿는 동학이라는 것이 영남에서 생겼는데 기름에 불을 붙인 것 같이 영남, 호남에 크게 번지는 데 그들의 주장은 사람을 하늘 같이 섬기고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 이 세상은 평화로운 새 세상이 된다는 내용이었다.

수심정기(修心精氣), 보국안민(輔國安民), 사인여천(事人如天), 포덕천하(布德天下), 이제까지 그가 걸어왔던 생각과 크게 벗어나는 것이 없었다. 더욱이 마음이 든 것은 인의예지(仁義禮智)는 선성(先聖)의 소정(所定)이요 수심정기(修心精氣)는 유아갱정(唯我更正)이라 한 대목이다. 시천주조화정(侍天主造化定), 영세불망만사지(永世不忘萬事知)는 전연(全然) 새로운 철학(哲學)이다.

진정 새로운 세상(世上)은 오는가?

해월(海月)이라는 사람을 한 번 만나 보고 따져 보아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해월(海月)을 찾아 나섰다.

1883년 3월 18일 해월(海月)을 만날 수가 있었다. 이 자리에는 손병희(孫秉熙)도 해월(海月)을 찾아와 같이 해월(海月)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해월(海月)이 반가와 했다. 기골이 장대하고 재치가 발랄한 청년들이 불원천리하고 찾아온 것이다.

동학입도(東學入道)!

박인호는 1855년 2월 1일 밀양인(密陽人) 박명구(朴命九)와 온양방씨(溫陽方氏) 사이에 큰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아명(兒名)을 용호(龍浩)라 하였고 자(字)는 도일(道一)이고 나중의 도호(道號)는 춘암(春菴)이다. 아버지 명구공(命九公)은 그저 살 만한 가계(家計)였지만 근엄(謹嚴)하고 행동(行動)거지가 분명(分明)하였고 경우가 엄격하였으니 아들의 훈육(訓育)에도 남다른 데가 있었다.

하루는 춘암(春菴)이 아이들과 놀러다니다가 개똥참외라고 참외를 하나 따가지고 집에 돌아왔다. 그것을 본 명구공은 그 참외를 얻은 곳에 가져다 놓고 참외막에 가서 참외 하나를 사서 먹게 해 주고 불로소득의 옳지 않음을 깨우쳐 춘암(春菴)의 삶의 지표(指標)로 삼게 하였다.

춘암은 몽학(蒙學)을 마치고 경서를 읽으며 의서(醫書)를 읽고 방문(方文)을 익히고 풍수지리에도 취미를 가졌다. 춘암(春菴)은 체격이 장대(壯大)하였고 힘이 세었으며 남의 일 봐주기를 좋아하였다.

이 무렵의 세태는 마치 정글의 법칙에 의(依)해 지배되는 사회같았다. 형세만 보더라도 서산의 한다리 김씨의 세도정치 그리고 갈매 안동 김씨의 세도정치로 이어오는 동안 잘난 사람은 한양에 올라 세도를 부렸고 좀 처지는 인물은 고향에서 세를 부려 사회 질서를 어지럽혀서 이를 세도라 하여 서민의 생활은 말도 아니었다. 권력가의 행역이 짓누르고 유적(流賊)이 양산(量産)하여 서민의 생활은 편안한 날이 없었다. 이럴 때 춘암같이 힘이 센 사람은 한수가 더 있었다.

하루는 덕산읍내 장에서 씨름판이 벌어졌다. 힘깨나 쓰는 춘암(春菴)이 모르는 체 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씨름판에 끼어 들어 한 판 격돌을 하여 쇠까리에서 이겼다. 이때는 낫선 사람이 쇠까리를 하면 쇠값을 다 내어주어 읍(邑)의 건달들의 향연에 이바지 하는 것이 관행(慣行)이었다. 그러나 춘암(春菴)은 송아지를 어깨 밑에 안고 박어놓은 장대를 뿔아 휘두르면서 유유히 나오니 시비하는 사람하나 없었다고 전한다.

춘암(春菴)의 일상 생활은 바빴다.

- ① 생업이 농사일이니 농사일을 하였고,
- ② 한문을 배웠으니 동네의 기계사에 지방, 축문을 지어 주기
- ③ 이웃 사람들의 문안 편지 써주기, 읽어주기
- ④ 병들지 말라고 방여해 주기
- ⑤ 병든 사람이 나타나면 방문(方文)을 외워 악귀를 몰아내기(동튀잡이)
- ⑥ 큰일 나면 택일 봐주기
- ⑦ 병든 사람 시술해 주기

4. 내포동학(內浦東學)의 조직(組織)

춘암(春菴)이 동학(東學)에 입도(入道)한 1883년은 임오군란(壬午軍亂)으로 넘어가는 고갯길이다. 중국(中國)에서 발생(發生)한 성리학(性理學)이나 인도(印度)에서 발생(發生)하고 중국(中國)을 거쳐 우리 나라에 들어온 불교(佛敎)가 조선(朝鮮)의 고유사상(固有思想)이 하나의 원리(原理)로 형성(形成)되기 전이기 때문에 원산지(原產地)에서는 이론(異論)이 크게 제기(提起)되었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크게 번성(繁盛)하여 그때 그때마다 우리 민족구원(民族救援)의 종교(宗敎) 또는 학문(學問)으로 숭앙(崇仰)되어 많은 말패(末弊)를 노정(露呈)하고 있던 때이다.

고려시대(高麗時代)에 풍미(馮靡)하던 불교(佛敎)가 근세조선(近世朝鮮)에 들어와서는 민심(民心)의 기층부(基層部)에서는 여전히 신앙(信仰)의 뿌리 구실(口實)을 다하였지만 공식적(公式的)으로 서울에는 출입(出入)이 금지(禁止)되는 상황(狀況)이었고 러말(麗末)에 수입(輸入)한 성리학(性理學)도 완고한 유교인(儒敎人)에 의해 명맥(命脈)만 지탱할 뿐 학(學)은 벌써 이용후생(利用厚生)이라든지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영역(領域)으로 변질(變質)되어가는 형세(形勢)였던 것이다.

그 뿐 아니라 성리학(性理學)을 위주로 하는 사람들이 동서남북(東西南北)으로 분파(分派)되어 정쟁(政爭)을 일삼아 었치락 뒤치락하는 사이에 민생(民生)은 도탄(塗炭)에 빠지고 국력(國力)은 쇠잔(衰殘)해져 외세(外勢)의 위협(威脅)앞에 전전긍긍하던 참이었다. 1811년 순조조(純祖朝)에 서북인(西北人)들이 일으킨 소위 홍경래난(洪景來亂)은 근대조선(近代朝鮮)의 국기(國基)를 뒤흔들어 놓았으니 민란(民亂)이 거꾸되어 국가(國家)에 영일(寧日)이 없었던 것이다.

지배세력(支配勢力)의 난조(亂調)는 그것이 그대로 피지배계층(彼支配階層)에 걸곡(桎梏)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1862년 경상도(慶尙道)의 진주(晉州)에서 민란(民亂)이 일어났다. 일파만파(一波萬波)라 각지(各地)에서 민란(民亂)이 일어나니 서울 한 북판에도 대낮에 도적(盜賊)이 들끓는 형편(形便)에 이른 것이다.

세상(世上)이 혼돈(渾頓)해지고 무질서(無秩序) 해지면 자연히 번성(繁盛)하는 것이 무질서(無秩序)이고 카오스다. 이 무질서(無秩序)와 카오스는 동학(東學)이 먹고 자라는 영양분(營養分)이다. 시천주(侍天主)와 포덕(布德)으로 광제창생(廣濟蒼生)이 그 목적이기 때문이다. 결론(結論)이나 성과(成果)야 어찌됐던 귀에 솔깃한 주장(主張)이니 말이다. 춘암(春菴)의 포덕(布德)은 가속(加速)이 붙었다. 그리하여 내

의암(義菴)과 춘암(春菴)이 동학(東學)에 입도(入道)하니 해월(海月)은 대단히 기뻐했다. 오도(吾道)에 새 운(運)이 트는구나 하고 그는 외쳤다.

이리하여 의암(義菴)과 춘암(春菴)은 해월의 측근(側近)이 되어 동학의 새 길을 여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해월법소(海月法所)의 일을 돕는 일과 내포지구(內浦地區)에 포덕(布德)하는 것이 그가 당면(當面)한 과제(課題)다.

① 해월(海月)은 수운(水雲)으로부터 형식적(形式的) 법통(法統)을 이어 받았으나 내유신령(內有神靈)하고 외유기화(外有氣化)하는 정신(精神)상의 도력(道力)은 이어 받지 못했다. 그것은 수운(水雲)이 의외로 빨리 순도(殉道)하였기에 겨를이 없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해월당시(海月棠時) 이것이 마음에 걸려 각별(格別)한 독공을 하였다. 이제 형식(形式)의 계시(啓示)를 받아야 하겠기에 1884년에 공주(公州) 가엽사(迦葉寺)에서 49일의 독공 끝에 육임제(六任制)의 계시(啓示)를 얻어 교회(教會)의 틀을 잡음이 또 하나이다.

② 육임제(六任制)의 접 조직 내포지방(內浦地方)의 포덕(布德)은 그의 정력(精力)을 가장 많이 들인 것이다. 그는 10년을 낮자루를 베고 잠을 자는 외경을 다하였고 눈을 갈 때에도 의관(衣冠)을 정제(整除)하고 작업(作業)을 하였을 정도로 성(誠)과 경(敬)을 다하였다.

그러기에 덕포(德包)는 전국(全國)에서 가장 큰 교단(教團)이 되었으며 내포(內浦)는 물론(勿論) 진위(振威), 죽산(竹山), 연천(連川)까지 이어졌던 것이다.

1893 계사년(癸巳年)의 복합상통(伏閣上統)에는 종제(從弟)인 광호(光浩)는 소수(疏首)로, 춘암(春菴)은 봉소(奉疏)로 목숨을 건 투쟁(鬭爭)을 하였던 것이다.

교조신원운동(教祖伸冤運動)에 본격(本格)나선 것이다.

| | 동학사 | 천도교창건사 | 주한일본공사 관기록 | 박인호연원 | 조석현역사 | 동학혁명사 |
|----|------------|-----------------------|---------------|-------------------------------|---|---|
| 예산 | | | 박덕철 | 박희인 | 장석준, 윤성공, 김춘근, 박종운, 배인귀, 이계화, 조석훈, 김기태, 강연, 서봉녀, 오여삼 | 이판용, 이계춘, 김용산, 김정기, 장봉산, 원학도 |
| 당진 | 박용태 김현구 | 박용태, 김현구 | | 이용태, 김현구 | 박덕화 | |
| 면천 | 박희인 | 이창구, 한명순 | 이화삼 | 이창구, 한명순 | | |
| 아산 | | | 안교선 | | | |
| 신창 | 김경삼 | 김경삼, 한규복, 김의형, 최준모 | | 김경삼, 박왕원, 정태영, 이신교 | | 임경화, 이문옥, 차기정, 차도연, 차득윤, 이승실, 김보일, 유진국, 김기형, 김호득, 이성오, 정군칠, 이우하, 권태진, 엄홍복 |
| 은양 | | | 방화용 | | | |
| 홍주 | 김두열 한규하 | | 김영필 | 김주열, 한규하, 황운서, 김양화, 최준모 | 김영필, 이재순, 신화교, 전양진, 김용세, 김철수, 김석희, 조의숙, 김동수 | |
| 결성 | | 천대철 | | | | |
| 서천 | | | 추용성 | | | |
| 남포 | 추용성 | | 김우경 | 추용성, 김기창 | | |
| 해미 | | | | 박성장, 김의향, 이용희, 이종보 | 이억기, 꺾기동 | 김지희, 이금봉, 이학봉, 김성운, 강성칠 |
| 대흥 | | | | | | 장일관, 강도석, 강수홍, 강천복, 김진길, 안은중, 김수경, 박덕윤, 김성용, 신복록, 강유길, 강이현, 최용삼, 김백용, 박준악, 강선화, 김순중, 성자은, 김대석 |

포지방(內浦地方)의 동학(東學)은 하나의 큰 세력(勢力)으로 등장(登場)하게 된다.

내포지방(內浦地方)의 주요(主要) 동학인사(東學人士)는 다음과 같이 짜여졌다.

내포지방의 동학교인

| | 동학사 | 천도교창건사 | 주한일 본공사 관기록 | 박인호연원 | 조석헌역사 | 동학혁명사 |
|---------|-----|--|-------------------|---|---|---|
| 서산 | 박인호 | 최궁순, 장세화, 최동빈, 안재봉, 안재덕, 박치수, 홍철봉, 최영식, 김성덕, 홍종식, 박동현 | 이창구 | 장세헌, 장세원, 최경순, 장세건, 최동빈, 안재형, 안재덕, 박인화, 홍세봉, 최영식, 홍종식, 김성덕, 박동현, 장희 | 이성율, 전양진, 이득춘, 김영근, 김병두, 안용조, 최종희, 조순일, 서정삼, 조관승 | 매 현, 박치용, 진삼달, 유정숙, 노용준, 유종월, 김순희, 김상길, 이희순, 김선철, 문정봉, 이종국, 신철희, 안인수, 김한성, 신현명, 김만희, 최덕수, 장재현, 안성범, 임창재, 김순필, 이영식, 김학봉, 송만복, 이정운, 심인수, 방태봉, 김금옥, 신동희 |
| 태안 | 김동두 | 김병두 | | 김병두 | 이오능, 박건여, 박광우, 김병두, 문장희, 문장준, 지성숙, 최윤보, 조성순, 박광욱, 이원영, 조석훈, 문장로, 김용세, 조의숙, 김광빈 | |
| 안면 도 | 주병도 | 주병도, 김성근, 김상집, 고영로 | | 주병도, 김성근, 김상집, 가영로 | | |
| 덕산 | 김□배 | 김명배, 이종고, 최병현, 최동신, 이진해, 고운학, 고수인 | 박용겸 | 김명배, 이종물, 최병현, 최동신, 이진해, 고운학, 고사인 | 김원필 | |

사 만류에도 불구하고 충청감사 조병식(趙秉式)과 전라감사 이경식(李耕植)에게 신원의 글을 올리려고 전라도 삼례역에 모이라 하고 신원의 청원을 하였다. 수천명의 동학교도가 모였으니 역사적인 일로 민초가 공개적 집단적 신원운동의 문을 연 것이다. 그러나 충정을 담은 청원에 조정에서는 금하는 것이니 그만 두고 생업에 전념하라는 회시뿐이었다.

이에 실망한 동학교도인들은 다시 소장을 냈다. 그것은 우리 도가 도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데 왜 금하느냐 하는 것과 도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에 답은 역시 국가에서 금하는 바니 믿지 말라는 것과 관리의 침학을 엄금한다는 조금 진보된 내용이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조금도 개선된 것이 나타나지 않았다.

5. 신원(伸冤)과 포덕(布德)

수운(水雲)은 1863년 8월 14일에 도통(道統)을 최경상(崔慶翔) 해월(海月)에게 넘겨주고 1864년 3월 10일 대구장대(大邱將台)에서 순도(殉道)하였다.

수운이 입은 죄목은, 「인의예지(仁義禮智)는 선성(先聖)이 정(定)하신 바요, 수심정기(修心正氣)는 내가 바꾸어 정한 것인데 이는 수심정기하면 마음속에 신령이 있고(內有神靈) 밖으로 기운이 일어(外有氣化) 각자가 깨달아 변치 않으면(各知不移) 가만히 있어도 스스로 되어가(無爲而化) 지상에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한것이 죄가 되어 국사범(國事犯)으로 처형된 것이다.

처음에는 경황중에 숨어 다니기에 편한 날이 없었다. 그러나 국정의 취세는 조정에서 주는 벌이야 어찌되었던 수운이 제창한 개벽사상은 시의를 얻어 많은 백성들이 회원하는 바와 일치하였다.

새로운 세상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민초의 바람은 새 세상이 온다는 각종비기, 유행비어, 동학사상과 버무러져 개벽상이 뚜렷하게 정비 정돈되어 갔다.

수운의 뒤를 이은 해월은 무위이화(無爲而化)에 절대적인 신념을 가져 마음을 닦으며 때를 기다렸다.

세상 사람은 다 똑같은 것이 아니었다. 성급한 사람, 외진사람, 각양각색인 것이 인심이었다.

이필제(李弼濟)만 해도 억지로 신원운동을 하자고 제의하였으나 해월은 때가 아니다 하여 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필제는 군중을 동원하여 1871년에 영해읍을 침공하여 분탕질을 하다가 패하였으니, 이는 동학교도의 외육이 약해서 병자년에 합포사격에 눌러 강제로 개항을 하였다.

양국간의 이해관계가 힘의 논리에 의해 항상 부당한 모욕을 당했다. 대원군의 수구세력과 민씨 일족의 개화 세력이 격고를다가 갑신정변이란 일찍이 없던 국가적 치욕을 당했다. 이러한 사이 민초의 생활은 차마 볼 수 없는 유기상태였다.

이러는 사이 동학은 삼남은 물론 전국으로 퍼지고 농민 위주에서 지식층이 상당수 동참하게 되었다. 숨어 다니며 신원이나 원하던 자세가 능동적 신원운동으로 되었다. 군계일학이란 말이 있다. 많은 군중속에는 뛰어난 인물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포덕 33년 즉 1892년에 호남에 사는 서인주(徐仁周) 서병학(徐丙鶴)이 해월의 고

금 다르다는 것은 이상한 별것이 아니라 성경신 삼단(三端)으로 공경스럽게 천지를 받들고 일마다 반드시 심고하며 한울님을 육신부모같이 섬기는 일 일단의 도리이니 실로 선성의 발명치 못한 일을 신(臣)들의 선사께서 처음 창명한 종지(宗旨)입니다.

대저 그 종지는 한울님 섬기기를 부모같이 하고 유·불·선 삼고 통일의 이치를 겸한 고로 조금 다르다고 한 것인데 그 겸하여 있다는 원인을 상고하면 머리꼭고 검은 옷 입고 걸아가며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임금과 부모를 등진다고 것이 아닙니다. 다만 불(佛), 선(仙) 두교종의 자비와 수련을 서로 합한 이치이며 실로 공부자의 광명정대한 도체를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또, 동학이라 이르는 것은 그 학의 이름이 본래 동학이 아니오 그것이 한울에서 나고 동에서 창명되었으나 당시 세상 사람들은 그릇 서학으로 배척하여 업수이 여길 즈음에 고 선사 신 제우께서 제자에게 이르기를 [도는 비록 천도이나 학인즉 동학이라 하물며 땅이 동서에 나누었으니 서가 어찌 동이 되며 동을 어찌 서라 이르겠느냐 공자는 노에서 나시어 추에서 교화를 뿔음으로 추로의 바람이 이 세상에 전유한 것이요 우리 도는 이에서 받아 이에서 뿔었으니 어찌 서라고 이르겠느냐……] 하였은 즉 서학으로 배척하는 것도 마땅치 아니하며 또 동학으로 물리치는 것도 마땅치 아니한데 감영과 고을에서는 묶어 얽매고 배이고 정배보내고 하여 어찌 할 바를 모르겠사오니 어찌 아프고 원통치 아니 하리이까?

대저 마음을 지키고 기운을 바르게 하는 것과 한울을 공경하고 사람에게 순히 하는 것은 각각 그 바탕에 따를 것이라 성자는 성인이 되고 현자는 현인이 되는 것인즉 부자의 도도 또한 이에 벗어나지 않을 뿐이니 어찌 조금 다르다 하였다는 것으로 이단(異端)으로 지목(指目)하리이까? 신(臣)의 선사께서 전성(前聖)이 발명치 못한 큰도를 창명하여 어리석은 지아비와 지아미로 하여금 다 천리의 보원을 알게 하였으니 어찌 다만 편벽된 도학이라 이름하리이까? 실로 천하의 무극대도입니다. 臣의 무리가 어찌 감히 아침하오며 사곡한 말로 거짓 임금님께 아뢰이어 위로 임금님을 속이는 죄를 짓고 아래로 더럽다고 배임을 당하는 죽음을 재촉하리이까?

업디어 원하오니 전하께옵서는 이 와육중의 적자를 불쌍히 여기사 쾌히 신선사(臣先師)의 억울하고 원통함을 펴게 하시고 종전에 배소에 내치신 교도들을 용서하사 크게 덕음을 펴시고 높이 화기를 맞이하옵소서. 신의 무리는 진실로 황공하여 피눈물을 흘리오며 비는 정성을 지극히 하옵니다.

여기서 소수 박광호의 봉소 박인호는 중형제지간으로 이들이 동학신원 운동의 핵심적 위치에 올랐다.

6. 복합상소

동학도들은 생각하였다. 감사정도에게 신원을 요청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으니 직접 한양에 올라가 국왕에게 직소하여야겠다. 그리하여 여러 편의를 이용하여 수천 명의 동학교도들이 광화문 앞에 엮드려 3일을 통곡하면서 상소문을 올렸다.

상소문은

총지휘 : 손병희, 김명국

계 소 : 손천민

소 수 : 박광호

봉 서 : 손병희, 박인호, 박덕철

상소문

각도의 유학 신 박광호 등은 (中略) 주상전하에게 백배상언하나이다.

업디어 아뢰옵나니 궁하고 군색하면 부모를 찾게 되고 병들어 아프면 하늘 땅을 부르는 것은 人之常情이오, 이치의 自然이옵니다. 지금 전하께옵서는 곧 臣等の 天地父母요 臣等은 또한 전하의 황유증자들입니다. (中略) 임금님이 계신 지척에서 울부짖는 것이 망녕되고 두려울 줄 모르는 것은 아니오나 이 같이 원통한 정상을 천지부모님께 아뢰지 아니 하오면 하늘과 땅 사이에서 다시 어디로 돌아가오리까? 예로부터 성스럽고 밝으신 임금은 어진 재상들이 잘 도와 사망의 문을 열어 음양을 다스리고 사시를 순히하여 천하를 들어 태산같이 편안케 하는 것은 천명을 공경하고 천리를 순히하여 인륜을 밝히고 기강을 세울 따름이언마는 이 즘음에는 실천도행하는 참된 선비가 얼마 되지 아니하여 겉으로 빈 글만 짓고 한갓 밖으로 꾸며대기만 숭상하며 성경현전의 글뜻이나 도덕절하여 부박한 이름이나 뉘으려 하는 선비가 10에 8·9라 선비들의 심성을 말할진대 덕성을 보존하고 학문을 이루는 사람은 없다고 이를 것입니다. 이 일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관계되는 것이라 실로 적은 일이 아닐 것입니다.

다행히 한울님의 法度는 돌아가고 돌아오지 않음이 없이 지난 경신년 여름 사월에 한울이 잠잠히 도우시고 귀신이 그윽히 도와 경상도 경주에 苦學生 臣 최제우 비로소 천명을 받아 사람을 가르쳐 덕을 펴니 최제우는 곧 병자년 공신 정무공 최진립의 7대손입니다. (中略) 선사 최제우의 말이 이르기를 [인의 예지는 선성이 가르친 것이요 수심정기는 오직 내가 다시 정한 것 이니라] 하였으며 또 이르기를 [부자의 도를 깨달으면 한 이치의 정한 것이요 오직 내 의도로 말하면 대체로는 같으나 조금 다르니라] 하였으니 조

4월 2일에 어윤중이 보은 군수 이규백과 같이 왕명을 받들어 도중 속에 나가 이르되 「관리의 탐학살락은 응당 엄히 징계하리니 각 도인은 집에 돌아가 그 업에 편안하라」하였다.

이에 도인이 복항하여 상은에 감사하고 삼일만에 스승의 명에 의하여 집으로 돌아갔다. 이와 같이 동학도인의 신원운동은 거듭할수록 그 정도가 강화되어 갔다. 그러나 10월 들어 벼슬아치들이 도인의 재산과 생명을 침해하고 뺏음이 더 한층 심해갔다.

7. 보은취회

복합상소는 국왕의 유시는 간단하였다.

「너희들은 집에 돌아가 각자의 생업에 편안히 하면 원하는 바에 따라 조처하리라」였다.

이 유시를 듣고 도중은 다 집으로 돌아갔다.

말운(末運)에 접어든 왕조(王朝)의 기강이 왕의 유시 하나로 시정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벼슬아치들의 늑탈이 여전히 번져나가고 양반의 침탈이 그치지 않았으니 위로부터 부패한 작태는 거의 일반화하여 도인들의 생활은 편한 날이 없었다.

도인의 두목들이 해월에게 아뢰되

「선사의 지원을 펴고 각지에 있는 도인들이 도탄에 빠졌으니 선생님께 원하옵기는 우리가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책을 지시하소서」한데 해월이 이르되 팔도의 도인을 보은 장내(帳內)로 모이게 하라 하였다.

포덕 34년(癸巳) 3월 11일에 보은(報恩) 장내에 모인 도인은 수만명이었다. 이때는 기왕에 있던 접(接)을 포(包)로 개칭하고 전무체제화 하였으니

충의대접주(忠義大接主) 손병희(孫秉熙)

충경대접주(忠慶大接主) 임규호(任奎鎬)

청의대접주(淸義大接主) 손천민(孫天民)

문청대접주(文淸大接主) 임정준(任貞準)

옥의대접주(沃義大接主) 박석규(朴錫圭)

관동대접주(關東大接主) 이원팔(李元八)

호남대접주(湖南大接主) 남계천(南啓天)

상공대접주(尙公大接主) 이관영(李觀永)

덕의대접주(德義大接主) 박인호(朴寅浩)

등으로 짜이니 기세가 하늘을 찌르더라.

시국이 수상하니 조정에서는 충청병사 홍계훈(洪啓薰), 선유사(宣諭使), 어윤중(魚允中)을 보내어 수습도록 하였다.

이때 도인들의 수중에 촌철(寸鐵)의 무기가 없고 오직 한마음 스승의 신원을 위함이 알려져 이 정황을 장계하였더니 조정에서 어윤중에게 지시하여 이르데 타일러 물리가 그들의 생업에 편안케 하라 하였다.

쳐 동학군 토벌에 나섰다.

그러나 동학군은 일본군의 적수가 아니었다. 남접(南接)군이 공주를 향해 진격이 시작되었다. 세상 바람이 자고 이는 것이 따로 없다.

8. 고부농민소요

다음해 즉 1894年 갑오 1월에 전창혁(全彰赫)이 군수 조병갑(趙秉甲)에게 등장갔다가 잡혀 민요장두(民擾狀頭)로 지목되어 장살(杖殺)되었다.

이에 화가 치밀은 전봉준은 김도삼(金道三), 정익서(鄭益西)와 더불어 1894년 1월 10일 고부관야를 습격점령하고 새로 막은 보(深)를 허물고 예동(禮洞) 두전(斗田)에 쌓아 놓은 보세미를 농민들에게 돌려주었다. 이를 제1차 농민봉기라 한다.

조정에서는 이 일이 일시적 작폐에 의한 것이 아니라 누적한 민막에 의한 것이라 판단하고 장흥부사(長興府使) 이용태(李容泰)를 고부군 안핵사(按察使)로 삼아 수창자(首唱者) 이외는 일일이 타일러 생업에 종사토록 하라 지령하였다.

그러나 이용태의 수탈은 더 심해 경포(京捕), 영포(營捕)들이 벌떼같이 일어나 동학군 침략하는 일에 그악스러우니 동학군도 목숨을 걸고 반격하였다. 이용태는 1894년 4월 15일 파면 압송되었다.

이쯤되면 민초는 가만히 있지를 않을 것이다. 소위 3월 봉기가 일어났다. 태인(泰仁)의 김개남(金開南), 최경선(崔景善), 무장(茂長)의 손화중(孫華仲) 등이 1894년 3월 21일 백산(白山)에 집결하니 평화적 시위를 벗어났다.

총대장에 전봉준

총영관에 손화중, 김개남

영술장에 오시영, 최경선

비서에 송희옥, 정백현이 되고

동도대장(東徒大將)기에는 보국안민(輔國安民)이란 기치에 격문(檄文)도 사방에 보내어 혁명전쟁의 모습을 갖추었다.

4월 7일에 향토현에서 전라감영군을 격파하니 동학농민군의 기세는 높았다. 연전 연승 4월 27일 전주감영이 함락되었다. 이리되니 조정에서는 청에 원병을 청하여 5월 5일 아산에 상륙하고 일본군이 그 이튿날 인천항에 상륙하였다. 기세가 불길하여 5월 7일에 동학군은 관군과 화약하고 전주성을 내주고 호남일원에 집강소(執綱所)를 설치하고 민정을 시행하였다.

인천에 상륙한 일본군이 서울로 진격했다. 평화가 되었으니 철군해 달라는 우리 조정의 요청을 묵살하고 6월 21일 궁궐을 점령하고 국왕을 인질로 삼았다. 일본군은 청국군과 싸워 몰아내고 조선국정을 장악한 후 서정개혁을 한다하고 정부를 다시 다그

팔로간(八路間)의 우리 교도가 무죄간(無罪間) 차세(此世)에서는 생활(生活)이 난보(難保)라 약차불이(若此不已)면 각처 두령을 일일이 개살지경(皆殺之境)을 당할 테오니 도문(到文) 즉시에 속속(速速)기포하와 처처(處處) 자기 대수포(大首包)에 회립(會立) 자생(自生)하라. 신 훈시문(訓示文)이 래도(來到)한 고(故)로 장석문(丈席文)을 봉승(奉承)하여 수모두목(誰某頭目)으로 상의후 관내의 약속을 단정(團定)하고 동해자(同亥子)시로 위시하와 예산본포(禮山本包)에서 먼저 쇠소리를 쳐 일반 관하(管下)를 일일이 소집할새, 각처에서 쇠소리를 들고 포포에서 응성(應聲)하며 각처가 일시에 기포가 되며 삼시간에 공주(公州) 온양군(溫陽郡)으로부터 태안 안흥군까지 그 백여리가 일시전의 전기와 같이 예포(禮包)는 일일이 다 기포가 되어 한 마음으로 서로 응하더라.

이튿날 즉 10월 1일 평명에 소위 안핵사와 서산군수가 잡아 가둔 동학 두목 30여인을 모두 장대에 꿰어 앉히고 좌우로 군사와 역졸을 나열하고 바야흐로 처죽일 즈음이라. 이 정상을 듣고 일반 교도가 구름과 같이 모여드니 그 수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다. 관청에 돌입하여 한편으로는 안무사와 태안군수를 때리고 쳐 죽이고 한편으로 동학두목을 살려냈다. 이일 이후로 교세가 더욱 굳어져 일체가 되니 8도에 동학교도가 다 기포하여 거대한 운동이 되었더라.

이때 예포대도소는 목소리(木巢里)에 사무소를 차린 터라 이밤에 교도를 다 파송하여 10여읍의 군기를 몰수 탈취하여 가 도소에 회집유치케 하였더라. 대도소의 회 비용은 각 처 관내의 부호가의 연금으로 스스로 출연하여 혹 1,2천금도 되고 혹 1,2만 금도 되며 쌀과 소금은 기천섬을 기부하여 수 10, 수만과 쌀과 소금을 많이 쌓았음으로 군속이 없으나 관내에 거포(巨包)가, 12포 기타의 포(包)가 불가성수러라. 각포에서 도회소(都會所)를 설정하였으나 목소대도소에서는 10여일 사무에 오도의 운수가 이미 열린 때임으로 이 세상운수가 세상과 더불어 같이 감이라. 물외인지(物外之人)과 모산지배(謀產之輩)가 수천수만인이 오도(吾道)에 새로 들어와 수도지심(修道之心)은 만에 하나도 없고 단지 생각하기를 불법행위로 사체를 강제로 빼앗기와 강제로 무덤을 파내며 말을 뺐고 곡물을 뺐기로만 주로하니 이들이 가위 양민이겠는가? 말을 바꾸어 말하면 오합지졸(烏合之卒)이 이와 같이 다수하게 모집되었으면 특별한 법이 있어야 군중을 통솔하는 근본이거늘 이는 고사하고 호추리 하나 때릴 권리가 없으니 이를 장차 어찌하리오.

이러함으로 서기를 10여인 두고 주야로 신입자에게 불법행위를 금지하기를 10여일 밤새워 지도하되 효과는 하나도 없더라. 동 11일 미명에 홍주군수 이승우(李承宇)

9. 내포동학의 기포(起泡)

내포에서도 전란이 일어났다. 내포기포의 특징은 관군의 침공으로 비롯된다. 조선 중의 역사록을 적어본다.

첫째, 태안에서의 기포이다.

태안은 서해안의 군이다. 여러 섬이 있고 어업 또는 해운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았다. 자연 그들은 호남의 소식이 빨랐고 갯사람들의 성질이 농촌 사람들보다 드셨다.

태안지방의 동학도들에게도 비상이 걸렸다. 태안군수 신백희(申伯禧)와 본시 태안 사람으로 서울에 올라가 조정에 붙은 김경태(金景泰)란 위인이 안무사(按撫使)란 직책을 맡아 가지고 와서 태안군수와 협력하여 해미, 서산, 태안(海美, 瑞山, 泰安)의 세 군의 동학도들을 귀화(歸化)시킬 작정이더라. 만약 그러하지 않으면 두목(頭目)들을 다수 참살(斬殺)하면 일이 별 것 아닐 것이라 생각하여 두목 30여명을 이 지방의 피수라하여 잡아다가 가두었다.

해미, 서산, 태안이 이와 같이 흉흉하므로 교도 6, 7인이 주야로 예산군 본포(本包)에 이르러 그쪽 지방의 형편을 보고하였다.

이 때 이곳도 홍주군수 이승우(李勝宇)도 방금 토포사로 유희군을 백방(百方)으로 모집하여 병정(兵丁)과 관군(官軍)이 다수 합세가 되어 동학교도를 금명간 공격지책으로 일심단결을 하와 그 세가 거대하기가 구름과 같았다. 우리 동학교도의 사기(士氣)가 시각으로 위급지사러라. 본포 수접주(首接主) 김기태(金基泰)씨도 여차지세를 당하여 좌우간 처사(處事)가 어려운 중에 겹하여 각포가 이와 같이 일시(一時)를 생사위난(生死危難)을 미분(未分)한 고(故)로 수모(誰慕) 두목(頭目)으로 난만상의 하되 일반두령의 생활(生活)이 위급한 경우에 대하여는 불가불 기포를 아니치 못할 터로되 방금 대접주(大接主)가 법소(法所)에 입(入)하온지 7, 8일이라 금명간 도착의(到着矣)러니 수일을 기다려도 이와 같이 지목(指目)이 조금도 간정이 안되고 점점 여시(如是) 분란하거던 본포(本包)에서 우선 통기(通奇)로 대 일이 급하지라. 정을 울릴테오니 그 소리를 듣고 일편(一便)으로는 음성(音聲)하며 일제히 오포(吾包)관내는 일시에 전화(電火)와 같이 각포(各包)가 회집하며 일편(一便)으로는 각처에 세수자차시(自此時)로 관리배(官史輩)의 행패(行悖)와 지목(指目)이 갈수로 거일익심 일러라. 때는 9월 회일(晦日)이라 하오 삼사시(三四時)량(量)에 법소(法所)에서 훈시문(訓示文)이 하래(下來)하옵신다.

10. 승전곡 전투

해미에 집결한 동학농민군은 운산을 지나 승전곡으로 머리를 돌렸다. 승전곡은 교통의 요지다. 서산(瑞山) 또 홍성, 해미에서 운산을 거쳐 승전곡에 이른다. 길은 여기서 다시 나뉘어 지는데 한길은 당진을 거쳐 삼교천 제방 건너편에 있는 공세리(貢稅里)에 이르고 한길은 면천(沔川)을 거쳐 다시 나뉘는 데 한 길은 합덕(合德)에 이르고 또 한 길은 고덕을 거쳐 구민포를 거쳐 예산에 이른다. 동학농민군이 승전곡에 이르렀을 때 이미 이곳에 매복하고 있던 관군과 맞부딪힌다. 물론 이에는 일본병도 끼어 있었다. 조준석의 일기를 보자

차처(此處)에서 일병(日兵) 400명과 병정 500명 유회군(儒會軍) 수천명이 증로에 복병하였다가 일시에 돌출하여 상위접전(相爲接戰)하니 일한병(日韓兵) 10여명이 하움에 그들이 불감당 함을 느끼어 대패 도주할 때 군기(軍器)와 군복(軍服)을 다수 습득(拾得)하였다. 면천군(沔川郡)에 유진(留陳)하고 25일에 행군하여 덕산군(德山郡) 구만리평(九万里坪)에서 유진하고 25일에 예산군(禮山郡) 금평면(今坪面) 신원리(新元里) 후평(後坪)에 유진숙소하였다.

가 일병 300명과 병정 수백명이며 유회군(儒會郡) 수천명을 쫓고 목소(木巢) 대도소 대전(大陳)을 공격하니 피차 접전하기를 두 세시간 끝 교도가 우선 대패하여 산지사방(散之四方)하니 그들은 승승장추(勝勝長追)하여 대도소 사무실까지 쳐 들어와 닥치는 대로 불을 붙였으나 교도의 후세를 몰라 곧 퇴각하였다.

병서에 이르되 큰 힘으로 작은 힘을 싸워 이기는 자연의 이치라 하였다. 교도가 수만이로되 군들이 미성하고 용병이 미달하였으나 대전 2, 3시간에 교인은 일인도 상한 사람이 없고 그들은 2명이 죽고 중상이 셋이라 하더라.

자금이후로 동도의 대세가 점멸하여 철거일편이 되어 사방으로 도망가 충남(忠南)의 유회가 크게 번져 동도 신자며 신입신자까지도 유회에 입회하니 이세상 사람들은 다 유회인이 되어 외국인과 합세하여 멸유패상(滅儒悖常)으로만 위주하니 천도를 전수(全修)한 군자 어찌 생명의 안전을 얻을 것인가.

각처 관내의 교중대소 두령을 자의로 유회군 진영에 잡아 갔다가 임의로 참살(斬殺)하기를 비밀비재하므로 교도의 수백수만호 권구(眷口)까지라도 일체 어육(魚肉)이 되어 일시(一時)가 난편(難便)이 온 고(故)로 일반 교도의 소원이 이 때를 만나 충남동도를 한 곳에 회집(會集) 경립(更立)하여 후회(後悔)가 없게 하자 하오나 천사만념(千思萬念)하여도 좌우가 난편(難便)이로데 부득이 욕과부능(欲罷不能)이라 '동(同) 15일에 포군 30명과 두령 3, 4원(員)을 데리고 즉시 해미 서산, 태안에 도진(到陳)하여 전후의 사안(事案)을 설유하고 대회 일진(一陣)을 모아 합세하니 50여 만 중이 이루었다. 23일에 해미군(海美郡) 구밀리(舊蜜里)에서 유진(留陳) 숙소(宿所)하다.

이상이 내포 동학군이 기포하여 해미에 집결할 즈음의 형편이다. 과장한 곳이 있는 듯하나 그 때의 실정을 알만하다.

첫째, 태안과 목소에서 관군이 선제 공격하였고, 둘째, 홍성의 관군과 유회군이 목소에 쳐들어와 행패를 부렸고, 셋째, 동학도 및 민초들이 좌왕우왕 갈피를 못잡고 넷째, 관군에 밀려 동도들이 위급한 중에 해미에 모인 것이다.

하리오. 양진이 대전 반일에 그들은 장두 6, 7인과 병사 7, 8백명이 다 죽어 없어지니
기타 후웅군 5, 6천명은 싸우지 않고 스스로 패하여 각자 흩어져 도주하더라. 오후에
발진하여 동군 역촌 후평에서 유진하다.

11. 신례원 전투

신례원은 교통의 요지다. 충청우도의 중요한 원(院)이 있는 곳이다. 충남선의 주요 역으로 천안방면 장항방면 서산방면으로 가는 길이 분기되는 곳이고, 공세리 세곡창고 가는 세곡이 여기서 조작되어 실려나간 것이다. 그러기에 홍주목사 이승우가 내포 지역의 군력을 배치하여 그 세를 지지하려 한 곳이고 동학농민군도 해미에 집결한 대부대가 지나오면서 몸이 부풀어 신례원에 와서는 누만의 대군이 된 것이다.

이승우는 홍주목 대홍군 덕산군 예산군의 군력과 유회군 민보군을 총동원하여 홍주로 쳐들어가는 군세를 지지하려 한 것이다.

이 부분의 조석진 역사의 상황을 적어본다.

예산군(禮山郡) 금평면(今坪面) 신례원 후坪(後坪)에서 유진(留陳) 유숙할 시(時) 피차(彼此) 포(包)를 물론하고 충청남도 동도는 다 하나로 뭉쳐 모여드니 총합수는 가령 백여만(百餘萬)명의 거대한 대중이 되었다. 이와 같은 대진(大陳)이 소모가 되었으나 군율(軍律)이 무하고 법령에 따르지 않는 오합지중(烏合之衆)으로 불위성공(不爲成功)이리니 상암장계서 속속히 빠져 나갈 주위를 암정(暗定)한 후 즉시 진중에 하령하되 오동도 교진은 저들 군졸들과는 같지 않은지라 충남 제점포중이 다 여기에 모였으니 내일 법소(法所)에 가서 장석(丈席) 분부를 봉송하여 선위조처(善爲措處) 하리라고 군령을 대진(大陳)에 내리고 유진하였다. 이날 저녁 잠을 이루지 못하므로 심복한 교인 2, 3명을 데리고 심야토록 일진(一陣)을 순진(巡陳)할 때 한곳에서 지나다 듣건데 어느 집에서 서로 이야기하기를 아까 예포(禮包)대접주가 하령하기를 명월에 대중을 데리고 법소에 들어가기로 작정하니 우리 진(陳)이 약 10일만 충남 등지에 무한 경응에는 충남도가 노악을 한 사람의 생활도 없을 터이니 내일 아침 일찍 우리가 먼저 주장하고 진중에 호령하되 부모처자를 생각하는 교인은 길 아래로 모이고 불고 처자하는 자는 부동하라 하자고 약속을 접함을 들은 즉 등에 땀이 배더라.

밤새 잠을 못자고 아침의 규모 경정할 것을 생각한다.

날이 새기 전에 홍주군수 이승우가 유회장두(儒會長頭) 김덕영(金德景) 등 10여인으로 수십군 토병(土兵)과 유회군(儒會軍) 4, 5천명을 파송하여 예산군(禮山軍) 신례원전(新禮院前) 빙현상봉(氷峴上峯)에다가 대진(大陳)을 설치하고 교진을 향하여 사격할 때 대포 수십수(數十首) 일시에 발포하되 아무리 군율이 없으나 교진이 100여만 대진이고 또한 10여 군의 군기를 얻어왔으니 어찌 가히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적대

④ 이승우(李勝宇)가 홍건(洪楗)의 헌책에 의하여 처음에는 공포를 쏘았다. 그러나 동학농민군은 궁을장(弓乙章)만 차고 다니면 대포도 소용없다하고 밀려드는데 결정적 시기에 실탄을 쏘니 일정거리에서 넘어가지도 못하고 서서 죽으니 정보다 시체 더미가 셋이나 되었다.

⑤ 기진맥진한 동학농민군은 10월 29일 포위망을 풀고 퇴진하였다.

⑥ 11월 10일조 양호 선봉진 일기(兩湖 先鋒陳 日記)에 홍주를 떠나 동문밖에 나서니 좌우 민가가 다 타버렸다. 보기에 참혹하였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까닭을 물으니 지난 28일 동학농민군이 성을 포위하고 싸울 때 그들이 불을 질러 이리되었다 하더라 100여보를 더가니 동학농민군의 시체가 수풀속에 산처럼 쌓여 있었다.

⑦ 동학농민군의 퇴군시에 비가 와서 그 참상을 한껏 더 하였다. 이리되니 대접주 박인호는 군의 해산을 명하고 후일을 기하였다. 박인호 일행은 예산쪽으로 숨어들고 서산, 태안, 해미 고을 등의 출신인 동학농민군은 해미성에 이어 매현에 가서 해산하였다.

12. 홍주성 공방전

신례원 전투에서 동학농민군은 관군을 이겼다. 그래서 관군은 홍주성으로 퇴진하였고 동학농민군은 덕산 근처 삼교천변에서 자고 오후 1시에 출발하여 오후 4시경에 성 외곽에 당도하였고 이어 포진에 돌입하였다. 홍주는 목으로 충남에서는 공주와 더불어 큰 읍이고 성이 또한 수축되어 있었다. 관군쪽으로 보면 홍주를 잃으면 경기 화성에 가야 성다운 성이 있으니 홍주성은 요충지대이다. 중무장한 일본군이 상당히 배치되어 있었고 관군·유회군도 다른 고을과는 달리 그 태세가 좀 달랐다.

홍주성 전투 기록은 기록한 서책마다 통합적인 기록은 없고 그저 목격한 바에 의한 경험만 기록하고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엮어야 그 전모를 추측할 수 있다. 그 중 상대적으로 상당히 정확한 일본군의 전투보고(1894. 11. 25)를 보자.

덕산에서 홍주성까지는 약 10km정도라 오후 1시에 출발한 동학군은 오후 4시경에 성 외곽에 당도 포진에 돌입하였다. 산과 들을 매우고 밀려오는 동학농민군에 질린 일본군과 관군은 이를 맞아 처음에 성밖에서 도전을 해보았으나 기세에 미려 성안으로 들어가 방어에 주력하였다. 이 때의 두드러진 전투상황을 발췌하여 그 전모를 유추하기로 한다.

(빙고치 전투)

① 빙고치는 홍주성 후면의 고지로 능선과 골짜기가 홍북쪽으로 흘렀다. 덕산을 더듬고 홍주에 진출한 동학 농민군이 첫번째 맞는 홍주성의 측근이다.

여기에는 일본병이 관군과 같이 수비하고 있었는데 동학농민군이 밀려 들어왔다. 처음에 일본군이 총격을 하여 몇 명이 상했으나 워낙 많은 군중이라 일본병이 철수하고 사정거리에 들어왔을 때 총격과 포격을 하였는데 몇 명이 상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얼마전까지만 해도 수백기의 무연분묘가 있었는데 최근 무연분묘를 다 정리하고 낙농하는 초지를 조성했다.

② 10월 28일의 홍주성 공격에는 천여명의 희생자를 내고 끝났다. 동학농민군의 희생자는 결사대에 참가했던 주동 인물들이었다. 더욱이 야전 사령관격인 이창구(李昌九)와 이군자(李君子)가 희생됐고 쟁쟁한 접주와 날랜 동학군이 거의 몰살했다.

③ 동학농민군은 부득이 수만의 결사대를 조직하여 박덕칠은 동문을 파괴하고 일반 결사대는 수만 속(東)의 짚단을 성외에 적치하고 성을 넘으려 하였으나 일본군과 관군이 벼짚에 붙을 질러 불빛이 환하여 역으로 화공을 받게 되어 완전히 실패하였다.

14. 역리(逆理) (2)

1894년 3월의 동학농민군(東學農民軍)의 선전(善戰)에 의해 전주 감영이 위태롭자 조정은 청국에 원병을 요청하여 청군이 아산에 상륙하였다. 그러자 일본국은 청일간의 조약에 입각하여 거류민을 보호한다 하여 그 이튿날 인천에 상륙하였다.

이에 관군과 동학농민군은 불길한 예감에 화약(和約)을 하고 일본군의 철수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일본군은 서울로 들어가 13일만에 궁성을 점령하여 국왕을 인질로 삼았다. 그리하여 청군을 몰아내고 동학농민군의 토벌에 나선 것이다. 일본군의 위상에 변화가 온 것이다.

우리 조정의 원군을 치고 관군과 힘으로 합동하여 동학농민군을 친 것이다. 관군으로 보면 자기를 원조하려 왔던 청군을 적으로 몰아 쳐부순 것이다. 그리고 관군은 민족 세력을 자임하는 동학군을 치니 민보군 유희군이 살길이 났다고 일본군과 합동하여 동학군을 친 것이다. 그대로 친 것이 아니라 10호작통 민보군의 거리 지키기로 동학농민군은 물론 그 집안의 가족까지 죽인 것이다. 일본군에 협력하던 관군은 일본에 충성하여 근세 조선을 멸망하는데 한 몫을 한 것이다.

홍주 목사 이승우(李勝宇)의 경우만 보더라도 그는 일본국의 정일품(正一品)에 서훈되어 대한제국의 멸망에 큰 공을 다한 것이다. 이리되면 조선 사람에게는 적과 우군의 한계가 없는 것이다. 친일파·친소파의 구분도 명분이 없는 것이다.

이것이 광해조 때 강홍립이 명의 원군으로 나가 청국을 칠 때 광해군의 요령껏 싸우라는 하명에 명을 도와 청을 치고, 청을 따라 명을 쳤다는 고사의 되풀이인가 짓대가 없는 것이다.

월남전에서 겪는 부조리는 현대사의 모순을 들어낸 것이다.

우리에게는 주체사상이 없다. 이리 빠지고 저리 비껴 우선 위기만 모면하면 된다는 잔피가 생리화하며 민족 정기가 되다시피 된 것이다. 천만인이 가리 해도 오비는 비라는 선비 정신이 다시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민족의 역사는 그 빛이 가실 것이다.

13. 역리(逆理) (1)

모악산(母岳山) 금산사(金山寺)가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현재 인식되기를 미륵사상의 근원지의 구실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를 백제인의 1,500년 한(恨)에서 유래한다고 믿고 있다.

사실 따지고 올라가면 백제인도 외래의 정복국가이다. 백제 지방에 원거하던 한족(韓族)은 영산강 유역에 웅관문화를 남겨둔 채 이후 내내 피지배 세력으로 삶의 한을 가슴깊이 남겨두고 산 것이다.

삼한(三韓)의 몰락이 그랬고 백제의 웅건(雄健)한 국력이 이민족인 당의 세력에 의해 와해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일본땅으로 도래하여 대화족(大和族 - 일본인들은 야마도족이라 자칭함)을 형성하여 일본국을 이루어 잘 살고 있다. 그러나 호남(湖南)땅에는 나당에게 망한 한족(韓族)이 끝내 성공을 못하고 오늘에 이른 것이다.

한족 국가를 이루지 못한 한이 전환의 실패와 고려 태조의 훈요 10조, 다시 근세 조선에 들어와서 정여립의 대동계의 실패, 호남 사람 안쓰기로 이어져 모악산은 한풀이의 신앙 즉 미륵사상의 근원지가 되었고 이어 민족 종교가 나오는 현상을 보이더니 지금은 호남인 정권 수립 2,000년의 한을 이으는 작업이 진행되는 것이다.

여기에 미궁이 하나 있다. 한을 풀기 위해 일어선 대표적 인물 전봉준, 김개남, 손황중 등 동학농민군의 기수들은 왜 호남사람들은 보호하지 못하고 죽었느냐 하는 것이다. 호서 지방의 동학농민군의 간부는 홍주 전투에서 패했어도 거의 다 살아 남아서 동학을 재건하였는데 호남의 동학농민군의 간부는 호남사람들에 의하여 주륙을 당한 것이다.

여기에 호남인들의 풀지 못하는 삶의 역리가 있는 것이다. 홍주전투에서 완패한 동학농민군의 간부들이 다 살아남아 동학을 재건하고 천도교를 다듬어 기미년 독립만세 운동으로부터 일제 36년간 끊이지 않는 한족의 독립운동을 이룬 것이다.

내가 거인 춘암 박인호를 쓰면서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가 바로 이 호남인의 삶의 역리였기에 여기에 몇 자 적어보는 것이다.

“전라도 금산사를 싸고도는 미륵사상은 언제 그 열매를 얻어 우리 한족(韓族)의 한(恨)을 풀고 그 열매가 결정(結晶)할 것인가 아니면 아직도 또 천년(千年)의 한(恨)으로 굳어질 것인가?”

우리 동학의 운명도 이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한편 내포 동학농민군은 홍주성에서 대패하니 대접주 박인호는 흩어돌아가라 명하고 예산 오리정 월화의 집을 찾았으며 당진, 서산, 태안 출신 동학농민군은 해미성에 웅거했다가 또 관군과 싸워 패하고 서산 매현에 가서 흩어졌다. 박인호를 맞은 월화는 위급한 속에서도 치밀하고 정성스러운 보호를 해주었다. 그것은 원래 단골손님이었고 박인호는 장자의 풍모가 가득히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금오산속 덩복속에 움을 파서 박인호를 보호하였다. 여기서 삼동을 지냈다. 그리고 줄을 놓아 정산(定山)의 칠갑산으로 자리를 옮겼다. 칠갑산은 차령산맥 중 몇 째 안가는 장산이다. 그러면서도 공주, 부여, 청양, 정산이 모두 30리 안에 있는 교통의 요지이다. 박인호는 산 입구에 소나무를 꺾어놓고 그가 있고 없고를 표시하면서 한가한 곳을 찾아 집신 삼는 것으로 일과를 삼았다.

그런 어느날 어물장사 하나가 지나가다 박인호를 만났다. 장사는 아무리하여도 낮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유심히 쳐다보았다. 어물장사는 물었다. “박선생 아니시오?” 박인호는 대답하였다. “박선생은 무슨 박선생, 쓰잘데 없는 소리말고 길이나 뿔리가소.” 어물 장사는 그대로 물러나질 않았다. 한참 승강이가 지속되었다. “박선생, 저는 서산에 사는 홍종식입니다.” 그렇다. 더 물러가라 할 수 없는 처지이다. 어찌된 일인가? 구명도생이 이리 장사치로 목숨을 지키다니 박인호에게 장세화(張世華) 접주의 소식이 궁금했다. “장접주도 안녕한가?” 그리고 도인들의 근황을 아는데로 물어 알았다. 그 경황중에도 도인들의 주문 외우는 소리가 다시 소생했다는 것이다. 오랜만의 해후이다. 이 날은 이런저런 이야기로 날이 섰다. 참으로 저승에서 봉고인(逢故人)한 것이다.

이리하여 박인호는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 다시 포덕의 길에 나섰다. 일본군의 세력은 이른바 삼국간섭에 의해 관동주를 내놓으니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박인호는 인심을 사로 잡는데는 이끝이 나있었다. 그것은 비기를 많이 읽고 방문하는 요령을 습득하였으며, 초보이지만 의술(醫術)이 있기에 포덕하는데는 안성마춤이었다. 내포지방을 몇 번 잠행하는 것으로 어렵지 않게 동학의 복원이 되었다. 동학이 상당한 규모로 성장하였다.

1896년에는국왕이 일본군에 시달리다 못하여 아관파천이란 역사상 전례가 없던 피난을 가게되었다. 친일내각이 무너지고 친로내각이 구성되었다. 이런 변혁기에는 정계 주요 인사의 신변에 이상이 생기는 것이 후진국의 상례이다. 국정의 책임자 김홍집(金弘集), 정병하(鄭秉夏), 어윤중(魚允中)이 피살되니 정치계가 격동을 하고 민심의 갈피를 잡지 못했다. 동학에 대한 문제는 관심밖이다. 다만 재수없이 걸려들

15. 동학(東學)의 복원(復元)

종교는 통상 사랑, 자비, 경천, 외경 등을 주지로 한다. 그러나 사랑과 전도의 강도에 따라서 한 손에 총과 칼을 병용하기도 하였는데 이를 정상적으로 여기고 있기도 한다. 그리하여 기독교국, 이슬람국 및 힌두교국에서 종교로 인해 싸움이 끊이지 않았다.

수운의 경천애인이나 제폭구민도 이 원리에 벗어나지 않았다. 다만 기독교나 이슬람교 등이 오랜 세월을 두고 극복하느라 겪었던 고민과 어려움이 우리 나라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극복하여야만 했고 급박한 국내외적인 상황에서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해월이 선사 수운의 가르침에 충실하여 일생에 걸쳐서 무위이화(無爲異化)에 의한 신원(伸冤)과 포덕(布德)에 힘쓴 것이다. 그러나 국정에 진저리 내었고 비기나 미륵사상에 희망을 걸었던 호남의 민중에 고부 군수 조병갑의 전창혁을 장삼한 것이 빌미가 되어 사단이 벌어졌고 그 사단은 동학농민군이 전주 감영을 점령하였고 집소강을 호남의 거의 전지역에 설치하게 되자 당시 조정을 장악한 일본군은 동학농민군 토벌에 나서게 되었다. 천안 세성산과, 홍주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주우금치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으나 무기와 훈련의 열세로 인하여 동학농민군은 괴멸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해월에게 1894년 10월에 여러 도인이 "이제 죽기 아니면 살기인데 화를 면하게 하소서" 하자 해월이 가로되 "일이 이에 이르렀으니 각자는 돌아가 화를 면하라" 하니 갑오동학농민전쟁은 막을 내렸다. 일이 이리되니 호남의 동학농민군의 두령들은 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전봉준이 순창에서 친구 김경천(金京天)의 밑고로 잡히고, 손화중이 나주에서 친구 이봉우(李鳳宇)의 밑고로 잡히고 김개남이 청주에 임모(林某)의 밑고로 잡혀 다 처형되었다.

한편 해월, 의암을 중심으로 하는 동학 중추부는 공주에서 벗어나 1894년 12월 24일 강원도 홍천 땅으로 숨어들었다. 체포령이 내려졌으니 이집 저집에서 잠시 숨어 다니다가 1895년에는 인제(麟蹄)에 숨고 다시 음죽군(陰竹郡)에 숨고 1897년 12월 24일에는 젊은 의암에게 도봉을 넘겼다. 1898년 4월 6일에 원주 둔둔리(原州屯屯里)에서 송경인(宋敬仁)에게 잡히어 1898년 6월 2일에 경성 감옥에서 처형되니 종자 모두 헤어졌다.

의암은 다시 춘암이 있는 정산(定山) 두치(斗峙)로 자리를 옮겼다.

이 때는 가족이 다 이곳으로 옮겼다. 그리하여 해월의 부인 손씨가 이곳에서 환원 하였으니 그는 의암의 매씨이기도 하였다.

7월 20일에 춘암은 경도주(敬道主)가 되었다. 신분이 한단계 상승한 것이다. 1900년 5월 1일에는 춘암이 주관하여 해월의 묘소를 송파에서 광주 원적산으로 이장 하였다. 의암은 여기서도 오래 있을 수가 없었다. 교인들의 형편도 살펴보아야 하고 또한 신변의 위협도 심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1901년 1월에 풍기 미륵평으로 옮겼다. 여기서 의암은 대도주 취임식을 가졌다. 이리하여 동학은 완전히 복원되었다.

면 법에 의해 처단되게 되어 있었다.

1898년 1월에 박인호는 해월에게 의암과 같이 신년무후를 갔다. 해월은 호못했다. 그리고 박인호와 대면하였다. 동학도인들이 전국에 퍼져 죽음 직전에서 신음하고 있었는데 박인호는 그렇듯 죽음의 땅에서도 내포지방에서 동학을 복원한 것이다. 또 다시 동학에 서광이 비치리라는 예감이 해월에게 들었던 것이다. 자기와 생사를 같이한 의암과 동학을 복원한 박인호가 손을 잡으면 동학의 내일은 밝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었다.

해월은 종자를 시켜 흰 팥을 장에 가서 사오도록하여 이를 잡아 의암과 박인호에게 겸상으로 주었다. 이를 백치겸상이라고도 하고 또 백치일치겸상이라고도 한다. 백색의 순수한 마음으로 일치 지성으로 동학을 일으켜달라는 노스승의 소리없는 애원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다. 박인호는 일어서서 의암한테 큰 절을 하였고 필생 스승으로 모시겠다고 선언하고 5년이 연하인 의암 앞에서는 담배도 안피우는 조심을 하였다.

1898년 4월 5일 해월이 송경인(宋敬仁)에게 체포되어 경성감옥으로 가니 쫓겨만 다니던 무리로서는 뒷감당하기가 어려웠다. 이 때에 동학세를 복원한 박인호가 담당하는 수밖에 판 방법이 없었다.

박인호는 김명배(金冥培)로 하여금 내포접중에 가서 비용을 마련하게 하니 홍중군 홍주면(洪州郡 洪州面)에 사는 김주열(金周烈)로 하여금 모심어 벼가 푸른는 열마지기 팔아 비용에 썼으나 해월은 5월 11일

평리원 재판장(平理院 裁判長) 조병직(趙秉稷)

수반검사(首班檢事) 윤성보(尹性普)

수반판사(首班判事) 주석면(朱錫冕)

에 의하여 5월 그믐날 좌도난정률(左道亂正律)로 교수형(絞首刑)에 처해지니 해월을 쫓던 동학간부들은 허탈 상태에 빠졌다.

그때 박인호는 의암에게 "스승님은 따로 마땅한 곳이 없으면 우리가 이루어 놓은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라고 제안하였다. 그리하여 8월에 당진 저동으로 옮겼다. 1899년에는 의암으로 하여금 입도식(入道式)을 거행토록 주선을 하였다. 이제야 겨우 정식으로 대도주가 된 것이다.

이제까지 그럴만한 계제가 아니었다. 저동의 생활은 안전했다. 여기서 그는 사돈까지 맺는 경사를 가졌다. 그러나 교주라는 직함을 가지고 오래 여기에 있을수는 없다. 만에 하나 기밀이 누설되어 경찰이 뒤쫓으면 큰 일이기 때문이다. 이때 의암은 박인호에게 춘암(春菴)이라는 법호를 내렸다. 박인호의 신분이 한 계단 올라간 것이다.

의암이 이용구에게 주어 보낸 진보회 강령은

- ① 황실을 존중히 하고 독립기초를 공고히 한다.
- ② 정부를 개선한다.
- ③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 ④ 군정과 재정을 정리한다.

라는 내용이였다. 고국에 있는 동학 두목들이 마음에 안들어 하던 차에 의암이 특명을 주어 들어온 이용구가 설치고 뛰어다녔다. 일본군의 뒷바라지를 하던 동학도인들도 신이 났다. 교주의 큰 뜻이 담긴 일ियो, 또한 교주가 보낸 특사가 마련하는 일ियो, 뿐만 아니라 그들이 동참하고 있는 일본군이 승승장구하니 자기들이 싸움의 주역인 양 신명이 났다.

의암교주가 신신당부한 민회의 활동도 아무 차질없이 진전되었다. 하루 아침에 16만이나 되는 도인들이 단발을 하고 단추를 달고 염색한 의복을 입고 거리에 나섰다.

여기에 문제가 생겼다. 조정은 물론이요, 외국 공관도 놀랐다. 그것은 조선의 민도가 아직 여기까지는 올지경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동학도인 것을 안 조정은 탄압의 손을 늦추지 않았고 일본군도 오늘의 쓸모가 있지만 이해가 상반하는 경우에는 조직된 동학은 골치거리다라고 생각하여 양호우환의 우를 범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일진회 송병준을 시켜 위협하였다. 이용구를 죽인다고 협박하여 유인하니 손쉽게 진보회는 일진회에 합병되었다. 이는 큰 문제였다. 갑오혁명 전쟁때는 반봉건으로 역적이 되어 그런대로 뜻이 있었지만 이번 일은 친일매국노로 반역이 되었으니 하늘에 머리를 두고 살 수가 없는 노릇이다. 춘암 박인호가 급거 일본에 가서 상황을 보고 하고 전후책을 요청하였다.

의암으로서는 자업자득이었다. 의암이 일본 군부의 長谷川好道를 만나고 伊藤博文을 만나고 田村 日本軍參謀長을 만나 일본의 승전을 빌고 국방 헌금을 만원이나 한 것은 조정의 진로파를 격기 위해서 한 것이지만 힘의 강약이 부동이라 우리의 소원은 소원일 뿐 공염불이었던 것이다. 이것을 이용구가 겉으로 나타낸 사항만 알고 일을 잘못 처리한 것이다. 의암의 운신의 폭은 없었다. 일당을 출교하고 동학을 천도교라 천도하였지만 그것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었다. 하는 수 없이 교주 자리를 구암 김연국에 넘겨주었다. 구암은 옛날 그의 장인인 해월 밑에 있을 적에 교주의 경쟁자였지만 지금 거덜난 동학은 이미 마음에 없었다. 그리하여 하는 수 없이 춘암 박인호에게 교주 자리를 넘겨주고 물러났으니 이해가 1908년이였다. 춘암 대도주 시대가 열린 것이다.

16. 천도교(天道敎)의 현도(顯道)

해월의 장례는 비록 지목하였지만 큰 탈 없이 끝마치었다. 이제 의암이 해월의 자리에서 모든 일을 해나가야 했다. 우선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하는 것이다. 지목이 풀리지 않았으니 의암도 잡히면 해월의 운명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었다.

우선 쉽게 생각나는 곳이 박인호가 포덕한 내포지방의 어느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순서였다. 그리하여 선택한 곳이 당진 땅 저동이라는 곳이다. 이곳은 이관영이라는 사람과 김현구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곳으로 비교적 안심하고 있을 수 있는 곳이다. 이곳에 1년여를 있다고 정산(定山) 두티라는 곳으로 옮겼다. 이곳은 차령산맥 가운데 유수한 큰 산으로 공주, 부여, 정산, 청양이 둘루 30리 안에 위치해 교통이 비교적 좋았다. 이곳에서는 심적 안정을 얻은 듯 가족끼리 모두 다 같이 해월의 부인이자 의암의 매씨인 손씨가 이곳에서 환원하여 얼마전까지도 묘가 여기에 있었다.

두티의 생활은 오래 끌지를 못했다. 1년이 채 못되어 경상도 풍기로 옮겼다. 여기서는 설법식을 갖고 대중주(大宗主)에 취임하고 신도주(信道主)에 김연국(金演局), 성도주(誠道主)에 손천민(孫天民) 경도주(敬道主)에 박인호(朴寅浩)를 임명을 하니 오랜만에 동학의 조직체계가 마련된 것이며 동학이 명실공히 복원된 것이라 할 수 있었다.

쫓기어 정황이 없던 때는 피하고 도망칠 생각에 급급했으나 이제 좀 안전한 생활이 어어지니 새로운 생각이 떠올랐다. 간부들을 모아놓고 의암이 사정을 하였다. “전자에 지목도 피하고 국제정세를 돌보아 교의 장래도 도모할겸 10년을 한하여 외유를 하려고 구암 김연국과 송암 손천민에게 상의한 바 구암의 반대로 못갔으나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는데 여러분의 의견이 어떻소?” 하니 박인호가 쾌히 “좋소”하고 대답을 하였다. 사실 구암 김연국은 해월의 사위이니 의암 누이의 사위요, 송암 손천민은 의암의 숙부였으나 경제가 허락치 않아 승낙을 못했고, 박인호는 그 정도의 경제는 능히 댈 수가 있기에 쾌락한 것이다. 의암이 일본에 가서 활동한 내용을 ‘의암 손병회’란 책에서 군데군데 발췌하여 검토해 보기로 한다.

의암은 일본에서 사회단체 또는 정당이 국정에 기여하는 것을 실감하였다. 그리고 국정에 민의의 반영이 여간 중요함을 알았다. 그리하여 이를 조선땅에 시험하려 하였다. 처음에 박인호, 홍병기 등에게 부탁하였다. 그러나 전통사회에서 그것이 그리 쉽게 되는 것은 아니었다. 중립회라는 단체를 만들었으나 의암은 마음에 들지 않아 진보회의 강령을 만들어 측근인 이용구에게 각별한 부탁을 하여 조선땅에 내보냈다.

18. 춘암 대도주의 종단체계화 업적

(1) 교회제도의 수립

춘암 박인호가 대도주가 되어 우선 착수한 것이 교회체제의 정비였다. 동학의 역사는 기구한 파란만장한 역사였다.

수운이 창도한지 4년만에 순도하니 겨우 접이란 것을 열렸을 뿐이었다. 1864년 해월이 승통하였으니 지목(체포령)이 심하여 피해 다니기 바빴다. 동가숙 서가식 때노를 산에 살아야 하는 형편이 30년을 넘겼다. 1897년 해월의 뒤를 이어 의암이 승통하였으나 지목의 위협하에 3년을 숨어다니다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일본에서 원격조종하면서 교를 이끌었으나 갑진년 개혁사업에 이용구의 실수로 1905년에 천도교로 헌도하고, 1906년에 환국하여 수습에 나섰으나 역불급 교주 자리를 내놓아야만 하였다. 따라서 교는 초보상태로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고 있었던 상황에서 춘암이 제4세 교주로 등극하였던 것이었다.

춘암은 대중적이고 서민적인 사람이었으나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거시적인 안목과 뛰어난 상황판단으로 고비때마다 큰 일을 해냈으며 교계의 큰 희망적 인물이었다. 춘암이 첫번째 시도한 것이 교의 체제정비이었다. 하나님 밑에 교역자를 체계화하여 구체적 신앙체계를 세우는 것이었다.

그는 우선 중앙총부의 공의에 부처

(가) 계층구조의 확립을 위하여

① 수운을 대신사로

② 해월을 신사로

③ 의암을 성사로

추존하여 하이아라키(Hierarchy)을 세웠다.

(나) 교회를 중앙총부라하여 남부(南部) 흥문동으로 이전하여 무거운 공기를 일신하였다가 3월에 대사동으로 이전하였다.

(다) 장실(丈室)을 만들어 의암을 모시고 좌봉도(左奉道)에 김명배(金翼培)를 임명하였다.

(라) 중앙총부 고문에 오세창(吳世昌)을

(마) 전계관장에 김완규(金完圭)를

(바) 금융관장에 윤구영(尹龜榮)을

17. 천도교 대도주 춘암 박인호를 쓰는 입장

천도교 4세 대도주 춘암 박인호에 대한 기술은 상당히 왜곡되어 있다. 도인의 입장에서 보면 춘암은 동학의 큰 공로자이다.

첫째, 갑오년의 동학봉괴 이후 이를 복원한 사람이 춘암이요, 갑진개혁운동에 힘의 부족으로 의암의 심복인 이용구가 동학을 망쳤을 때 이를 수습하여 기미년 삼일독립선언서를 천도교의 힘으로 제작 배포하도록 밀받침한 인물이 춘암 박인호이다. 의암이 천려일실로 곤경에 처해 교주자리를 내놓아야만 할 때 춘암은 장식(丈席)이라는 고금에 없던 자리를 만들어 모시고 봉도라는 비서격의 종자를 주어 권위와 생활의 편의를 잘 보살폈다.

사실 의암은 1897년 해월의 순교에 뒤이어 당진, 정산, 풍기에 표류하는 3년동안 큰 일 하나 한 것이 없고, 이어 일본에 피신 유랑하기 5년동안 망명교주로서 원격조정 에 의하여 교무의 대충을 살피고 명령만 한 것이다. 의암의 대 일본계책은 힘의 줄다리기에 좌우되는데 혼자서 환상에 의해 추진하다가 갑진, 을사의 실수를 범한 것이다. 민족속에서 자리를 펴고 교주의 구실을 한 것은 하루도 없는 것이다.

한데 천도교의 이모(李某)가 쓴 천도교 창건사에는 의암이 병사하는 날까지 교주로 있는 것으로 기술하여 춘암 박인호 대도주 시대를 아주 없던 것으로 삭제하였다. 이것은 동학교단 창설에 일익을 담당하고 동학이 붕괴되었을 때 혼자 힘으로 재건하고 갑진 개혁의 실수로 동학이 민족반역으로 몰려 의암이 교주를 내놓고 춘암이 나서서 수습하여 교도 300만 대교로 민족운동의 중심에 섰던 춘암 박인호에 대한 인간으로서 예우가 아니다.

기미년 만세운동 이후 천도교인 태반이 시중회, 국민총력 천도교 연맹, 임전보국대를 만들어 이 민족을 배반하였을 때 춘암의 비타협적 동학정신은 아들을 죽여야 했고, 무인년에는 온 민족이 일제의 사슬 밑에 신음했을 때 의연히 멸왜기도를 일으켜 우리 민족의 기개를 살려 을유년의 해방을 아무 부끄럼 없이 맞을 수가 있었던 것이다. 이런 역사관에 입각하여 보고를 전개해 나가는 것이다.

오만년 끝날까지 일일시시 천지인덕
못잊을사 우리기념 삼세스승 대덕이여
이에 더하여 사과성경신법(四科誠敬信法)과 오관, 주문, 청소, 시일, 성미, 기도를
반포하니 종교로서의 교회의 기초적인 대강을 완성하였다.

(2) 천도교 월보

의암(義菴) 손병희(孫秉熙)가 일본군의 힘을 빌어 친로내각(內閣)을 타도하고 새로운 내각을 세워 국정 쇄신을 이루려고 이용구를 시켜 진보회를 조직하여 일본군에 협조하여 승리를 가져왔다. 그리고 민회를 성장시켜 국력을 키우려는 기도는 제국주의의 속셈을 모르는 천진난만한 구상으로 실제에 있어서는 동학이 민족 반역이란 오명 끝에 1908년 1월 18일에 교주 자리를 춘암 박인호에게 넘겨준 것이다.

춘암은 동학을 재건한 바 있는 능력이 있는지라 전광석 화식으로 교내의 제반사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고 1910년 7월 16일에 교의 항구한 발전을 위해서는 교의 제반사를 기록 보존하는 월보를 발간함이 최상이라 판단하여 의암과 상의하여 기계를 구입하여 월보를 발간하니 이것이 천도교 월보로 우리 나라가 생긴지 처음 갖는 간행물이다.

천도교 월보는 1910년 8월 15일 창간되어 1937년 5월 폐간되기까지 통권 295호를 낸 우리 문학사에 기념비적인 잡지이다. 이 잡지의 특징은,

(가) 창간호부터 한글 전용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그때 우리 민족의 지식이 한글 전용으로 보다 그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나) 내용은

교리부, 학술부, 기예부, 물가부 등의 내용과 학술부, 지리, 역사, 물리, 화학, 경제, 농업 등의 지상 강의와 특기부, 한일합병 때까지 우리 역사 강의를 연재했고 나아가 단편소설을 연재하여 계몽주의를 실천하여 우리 문화 향상에 노력하였으나 중일 전쟁으로 나아가는 길목에서 폐간되었다.

천도교 월보는 무리 없이 민중을 일깨우기에 서두르지 않고 서서히 민중의 개안에 발맞추어 진행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천도교 구파가 무인멸왜운동으로 옥쇄할 때까지 지속되었으니 무위이기화(無爲而氣化)를 실천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 (사) 신도사에 라용환(羅龍煥)을
- (아) 법도사에 양한묵(梁漢默)을
- (자) 전제관장에 이병호(李秉昊)를 임명하였으며
- (차) 천지인 삼통대계를 세워 종문 삼대 기념일로 삼으니
- (ㄱ) 4월 5일은 천일
- (ㄴ) 8월 14일은 지일
- (ㄷ) 12월 24일은 인일로 정하고
- (ㄹ) 3월 10일과 6월 2일은 기념일로
- (ㅁ) 12월 1일을 교일 기념일로 정하였다.

또한 교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회는 기념일에 기념가를 부르는 것이 예이기에 기념가를 마련하였다.

기념가

천일선창 오만년 개벽운수 금일은 천일이요
 지일선창 오만년 개벽운수 금일은 지일이요
 인일선창 오만년 개벽운수 금일은 인일이요
 천덕이여 천덕이여 대신사의 천덕이여
 지덕이여 지덕이여 해월신사 지덕이여
 인덕이여 인덕이여 의암성사 인덕이여
 옛 하늘 개량하사 새 하늘 만드신 덕
 성령하마 없어질결 성덕살린 우리천덕
 육신하마 없어질결 육신살린 우리지덕
 성령육신 갖춘자격 자격주신 우리인덕
 한울믿고 사는방법 우리살아 천지인덕
 성경신법 우리마음 마음따라 이룬공덕
 수명위록 우리희망 희망따라 오는목적
 종교사람 되는우리 우리마음 천지인덕
 종교집에 사는우리 우리할일 천지인덕
 스승주신 천지인덕 우리받은 천지인덕
 천지인덕 뭉친당이 세상주어 다살린덕
 우리살고 세상살아 사람마다 천지인덕

시켰다.

개벽지가 신과의 전유물로 돌아가니 1923년 춘원 이광수가 조국 배반의 이유를 '민족을 개조한다'하고 전향하는 구실로 "민족개조론"을 이 개벽에 연재하니 이때부터 개벽의 변질은 서서히 온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가도 개벽은 민족사에 이바지한 꼴이 된 아쉬움이 남아 있다.

일제는 치밀하였다. 조선 합병때 3,000만원을 80,000명의 조선국 유지에게 은사금으로 준 바 있다. 이제까지 항쟁하는 지사들을 회유하는 방법을 썼다.

하나는 조선 민족을 계몽하자는 것이요,

둘째는 독립을 준비하는 방법으로 실력을 기르자는 것이요,

셋째는 일본법 밑에서 자치 운동을 하자는 것이다.

이리되니 조선족의 내분이 민족전선에서 벗어나가려는 것이었다.

19. 개혁운동과 춘암가

기미년 독립만세운동의 자금을 댄 혐의로 춘암은 구속되어 죄명은 벗어났으나 일제의 심증은 춘암이 만세 운동의 핵심임을 확신하고 석방하지 않았다.

이 만세 운동은 여러면에서 큰 변화를 가져왔다. 하나는 천도교인들이 명실 공히 민족운동의 전면에 나선 것이요, 둘째는 일제가 무단정치를 지양하고 문화 통치를 들고 나온 것이요, 셋째는 산산히 흩어져 속생각으로만의 광복 또는 민족운동이 현실적인 현안으로 들어간 것이다.

1919년은 세계적으로도 변혁의 해요, 일본으로서도 일대 변혁의 해요, 조선 민족으로서도 새로운 기운이 일어난 뜻있는 해다. 세계적으로는 국제연맹이 생겨(식민국가를 처리하는) 그 처리 원으로 민족자결이라는 대명제가 등장한 것이다. 일본이란 나라도 개항 이후 연전연승 국부가 늘어 세계일등 국가를 내다보며 이른바 내각책임제 의회정치를 하면서 세계 정책에 영, 미와 어깨를 나란히 한 것이다. 한편 한민족은 갑오동학농민군의 참패, 을미년의 왕비시해 소각, 보호조약의 체결, 왕의 독살에 주눅이 들어있었지만 1912년 2월 8일 동경 유학생들의 독립선언은 윌슨 미 대통령의 민족자결 제언에 힘을 얻어 소생하기 시작하였다.

선각자는 국외로 나가 항일 전선에 헌신하다가 상해에 모여 임시정부를 세웠고, 지식인들은 각기 그의 전공에 따라 민족운동의 일익을 담당하였다. 이때 춘암은 천도교 대도주의 아들(래홍)과 조카(래원)이도 춘암의 못다한 한을 풀기 위해 민족항쟁의 전면에 나섰다.

춘암은 의암의 특별 배려에 의해 일경이 유죄 입증울 못하여 무죄가 되었으나 그들의 심정이 만세 운동의 핵심임을 믿어 끝내 석방을 하지 않으니 래홍은 20대의 지식인으로 자기의 할 일을 쟁겨나가게 되었다.

정치·경제·사회·문화의 각 영역에 요원의 불길같이 열기가 타올랐다. 신문이 발간되고 동인지가 나오고 각종 씨름이 뒤를 이었다. 래홍은 생각하였다. 아버지 없는 교의 일을 맡아 꾸려 나가야 한다. 생각 끝에 각종 운동의 지침이 되는 잡지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은 춘암이 발간한 천도교 월보의 후속적 성격을 가진 것이다.

그리하여 1920년에 “개벽(開闢)”이란 월간 잡지를 발간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여 현장 지도자의 식견을 넓혀 주게 하였으니 이 개벽은 5년의 긴 세월 큰 구실을 하다가 불행하게도 주관하는 사람들이 친일로 돌아가면서 자폭하니 당국은 이를 폐간

1916년 무기명 성미제를 정하다.

1918년 4월 5일에 지방 두목(地方頭目) 54명에게 도호(道號)를 주다. 교리연구부를 설립하다.

1919년 9월 천도교 교리 연구부를 설립하다.

1920년 천도교 청년회를 두다.

1921년 2월 여자 일요 강습회를 개최하다.

20. 포덕 활동의 강화

종교가 원시 시대에는 단순한 의식주 해결을 위한 바람과 행동을 하는 것만으로 시종하였다. 인지가 발달하면서 신앙의 내용이 정돈되고 발전하여 오다가 문자가 발명되면서 신앙 내용이 문자로 정착되면서 내용도 체계적이 되었다.

19세기 서구의 제국주의에 의한 식민지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민족간에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발생하고 피지배 민족 사이에는 민족의 희망과 생존권 차원의 방편으로 민족 종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우리의 동학도 이 과정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었다. 지배 계층의 수탈과 학정에서 벗어나려는 소원과 외국 세력의 침략에서 해방되려는 민족적 바람으로 발생하였고 또한 이를 바탕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기에 민족 종교인 동학은 처음에 경전도 없고 교회당도 없이 피압박자끼리 이심전심의 교감에 의하여 전승 보급되었다. 동학은 갑오 동학농민군이 개벽을 위하여 전국이 뒤집히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까지도 교당이 나 경전없이 전국적으로 전도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갑오동학농민전쟁'은 교리 다툼의 종교 전쟁이 아니었고, 목졸려 신음하던 민초가 죽기 싫다고 몸부림 친 것이다.

갑오전쟁에 동학군이 패하고 해월이 순도하고 의암이 교주를 내놓아야 할 때까지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었다. 1901년 의암이 외유한다고 할 때 그 이유가 문명 국가 형편과 교의 실상을 파악하여 새 시대에 걸맞는 종교로 발전시키겠다고하여 있는 돈, 없는 돈을 규합하여 막대한 금액을 흔쾌히 대준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희망은 의암의 엉뚱한 사고로 동학 해체 분산되었고, 기구하게도 천도교란 이름으로 교명을 바꾸어 민중 앞에 내어놓은 것이다. 그러나 외국에서 들어온 천주교나 기독교는 위계질서가 잘 짜이고 신앙의 절차 및 포교의 기구가 완전한 체제로 활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의 종교의 관행에 준하여

1912년 종학(宗學) 강습소를 설립하다.

1912년 2월에 중앙총부를 북부 송현동으로 신축 이전하다.

1912년 4월 15일에 각지 두목 21인을 선정하여 제1회 연성(煉成)을 하다.(관악산 삼막사에서 연성을 하다)

1915년 제7회 연성을 행하다.

1916년 4월 1일에 특신자에게 천훈장(天勳章)을 제정 수여하다.

“성미제는 우리 도에서 예로부터 내려오는 풍습이니 달리 생각하지 마오. 종교도 살림을 해나가려면 돈이 있어야 하지 않겠오?”

“그렇지만 그것은 각령(閣令) 제2호 위반이니 즉시 철폐하시오. 그리고 교도들에게 허무맹랑한 소문을 퍼뜨려서는 아니됩니다. 민심을 동요시킬 우려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우리의 요구대로 하겠다는 서약서를 쓰시오.”

서약서를 쓰고 나오는 의암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다. 사실 의암은 일본에 있을 적에도 조선민족의 대표로서의 위신을 지킨다는 심정으로 호화사치를 하였어도 조선의 식자들도 의암이 젊은 여기(女妓) 작처하여 호화방탕함에는 시선이 곱지 않았다. 그러기에 월남(月南) 같은 사람도 의암의 사망에 존평하기를 “나는 일면식도 없지만 거물이 갔다”고 존평을 하였다. 춘암은 신의가 있었다. 해월이 평 하나를 사다가 겸상으로 차려준 뒤 5년이나 연하인 의암에게 큰 절하고 그 앞에서 담배도 삼가는 예절과 뒷받침을 다해 주었다.

조선총독의 학정은 그 미치는 곳을 몰랐다. 1910년 조선을 강제한 일본은 토지제도를 정비한답시고 ‘토지조사령’을 만들어 조선인의 토지를 정비작업을 하는데 우선 공유전이 그들의 소유로 돌아가니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았고, 세금을 물리는 제도라 하니 조선 농민들은 자기 토지가 입자가 없다고 하게 되었고, 따라서 이것도 입자 없는 땅이 되었으며 면유지, 군유지, 국유지를 만들어 조선인의 생활기반을 전적으로 뒤엎었다. 이리하여 민족을 때려잡으면서 한편으로는 테라우치(寺內)총독을 암살하려 하였다는 사건을 꾸며 신민회를 비롯하여 양반지배층을 전국에 걸쳐 잡아들이고 고문하는 것으로 목적을 삼으니 조선은 전국토가 아수라장이 되었다.

아무리 세상이 어지러워도 세월은 가도 민심도 그때에 적응하면서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법이다. 미국에 들어온 예수교가 전국 각지에 퍼져 그 수를 헤아리기도 어렵거니와 교회당을 세우고 학교를 세워 그 위세가 만만치 않았다. 그세가 강하게 될수록 일본의 군대보다 더 무서운, 민족이 말살되는 재앙이 닥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생겨나고 점점(漸增)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천도교의 성미는 일본군의 학정에 힘입어 몰밀려 들어오듯 모아졌다. 양반이 다 썩어 나라를 팔아 먹었으니 민초들의 모임인 동학 즉 천도교에 민족의 희망을 걸겠다는 것이다. 동학이 제아무리 민족종교라 하여도 민심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지 못하고 민족의 자긍심을 일깨워 주지 못하면 민족의 앞날에는 희망이 없는 것이다. 여기에 민족 자긍심을 거는 대교당을 설립하는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춘암은 여러 자문을 거쳐 300만 교인이 10원씩 출염하여 조선내에서 가장 불품 없

21. 춘암과 성미 및 그 용처

성미란 동학에서 동학 교단의 유지 발전을 위하여 정성에서 우리나라의 성금을 말한다. 이 성미가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얼마씩이나 내게 되었는지도 알 수 없다. 조석진의 「역사」란 책을 보면 갑오년 동학 농민군이 기포하여 패전하고 숨어다닐 때 도인들이 힘이 있는대로 어염식량을 한말 두말 지린 어물 한코 한 때를 가져다 바쳤다는 기록이 있고, 해월이 잡혀가 옥중에 있을 때 비용이 없어서 박인호가 김명배에게 일러 홍주군 홍주면에 사는 김주열(金周烈)의 파랗게 모가 크는 논 열맞지기를 팔아다 경비에 충당하였다는 기록과 의암이 일본으로 외유가서 있을 적에 돈을 조선에서 마련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그 밖에도 조선 총독부에서 성미제를 규제하려 하였다는 기록과 천도교가 분열될 때 성미를 따로 거두었다는 기록이 있다. 공식 기록으로는 포덕 55년 갑인년 즉 1914년 4월 춘암 상사가 '유기명 성미제'를 '무기명 성미제'로 개정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

춘암이 도인 놀리고 성미를 많이 모이게 하는 귀재였다. 그러기에 갑오동학농민전쟁전에도 그가 포덕한 덕포가 전국에서 가장 컸으며, 의암이 일본 체제의 비용을 무리없이 댔으며, 의암이 실의로 환국한 후에도 장식으로 모시고 호사가 극하는 사치생활을 보장하였던 것이다. 의암 손병희의 일절로 저간의 정상을 살펴본다.

이해 4월 1일 의암은 일본군 제2헌병대 무라다(村田多忠) 중위의 호출을 받고 출두하지 않으면 아니되었다. 그들은 벌써부터 한민족 한종교의 지도자를 이렇게 다루기 시작한 것이다. 일개 하급 장교를 시켜 의암을 시험하려는 건방진 수작이었다. 의암이 늘 그러하듯이 쌍두마차를 타고 헌병대를 찾아가니 무라다 중위는 이것부터 트집을 잡았다.

“손선생! 선생은 왕이요, 백성이요? 거동이 그게 뭐요. 마치 내 위에는 아무도 없다는 듯이 방자하고 호사함이 이룰데 없으니 고치시오.”

의암은 젊은 장교얼굴을 쳐다보며 빙긋이 웃었다.

“그게 그렇게 못마땅하오? 내 돈으로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잘못이 있어?”

“선생 그 돈은 어디서 나는경요. 보나마나 성미(誠米)니 뭐니해서 가난한 교인들에게 뜯어다가 자기만 호사하는 모양인데 그 정미제를 없애시오. 의무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천황폐하 뿐이요, 당신들은 마치 세금을 받는 것처럼 교인들을 쥐어짜고 있으니 말이되요?”

- ④ 천정(天井) 앵글은 미국에서 수입함
- ⑤ 시공자(施工者)는 장시영이었으나 공사중 구속하는 등으로 공사에 압력
- ⑥ 성미의 액수는 정식 발표된 것이 없고 쓴 돈이 곳곳에서 발견되는 바 문제가 된 자금은
 - ㉠ 의암집 일꾼 김상규에게 3만원씩 2회, 도합 6만원을 1919년 봄에 주어 만주로 보낸 것이 탄로되어 기소가 되었으나 조사결과 빈민구호에 쓰려하였다고함.
 - ㉡ 기독교 장로들은 3·1운동 당시 민족대표로 영입하는 지금으로 5,000원을 지불.
 - ㉢ '독립선언서' 인쇄중 경찰에 들켜 5,000원을 주고 매수 해결하고 경찰관은 사표를 내고 도망감.
 - ㉣ 천도교 간부 신숙(申肅)이거액의 자금을 가지고 상해에 가서 도산 안창호(安昌浩)가 제의한 비행기를 사서 고국에 뼈라를 살포하자는 것을 거절하고 중국내에 종리원을 수군데 세웠음이 신숙 자서에 기술되었음.
 - ㉤ 여기서 특기할 것은 의암과 춘암과의 위상 문제이다.
 - ㉥ 춘암은 예우상 스승으로 대접하여 규정에 없는 장석을 만들어 모셔 일일이 자문하였음.
 - ㉦ 의암은 법정에서 춘암은 교주이고 자기는 옛날에는 교주였으나 지금은 평신도라 진술함.
 - ㉧ 친일하는 신도들이 춘암이 끝끝내 비타협적 독립노선을 지키기 때문에 교적(教籍)에서 빼기 위하여 15년이나 대도주를 한 춘암을 투표로 추방하고 재위(在位)한 것을 삭제(削除)하니 이를 식민사관이라 한다.

는 교당을 짓기로 하고 자금 추렵에 나섰다. 일금 30만원으로 지으려는 것이다. 여기에 자존심 싸움이 붙었다. 일본 정부가 조선통치의 정당성과 조선 총독부의 위엄을 부리고 일본국 중에서 제일가는 건물을 조선에 지어 자존심을 키우고 또한 조선의 복종심을 키우기 위하여 '조선총독부청사'를 지으려 하니 '천도교회당' 건립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건축 허가도 나지 않았다. 이리 핑계 저리 핑계를 대다가 끝내는 최소한도로 위축시켜 겨우 허가가 났다. 반으로 줄어들었다. 천도교 교회당의 건축 개요는 다음과 같다.

천도교 중앙 대교당

1. 建築決議 : 1918. 4. 5
2. 開基式 : 1918. 12. 1
3. 所在地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운동 88번지
4. 位相 :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 36호
5. 用度 : 천도교의 종교 의식과 일반 행사
6. 工事着工 : 1919. 7
7. 竣工 : 1921. 2
8. 使用日 : 1921. 2. 28
9. 佔地 : 1824평
10. 建坪 : 212평
11. 基礎 : 화강석
12. 벽 : 붉은벽돌
13. 지붕 : 철근앵글
14. 층수 : 전면 2층
15. 건물양식 : 탑모양의 바로크풍
16. 수용인원 : 800명 ~ 1,000명
17. 숨은 이야기

① 대도주 춘암 박인호(法律行事의 責任者)는 처음에 400평 규모로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지나치게 크고 위험성이 있다하여 절반으로 인허되어 그렇게 건축이 됨

② 공사비는 교도 일인당 10전씩 거출(거양목표 30만원)으로 책정 시공하였으나 27만원이 들어옴

③ 석재는 창신동 석산에서 발굴

“내가 우리 교의 교무를 좌하에게 전위함은 이미 수십년이라 단 말 할 것이 없거니와 오늘날 세계 종족 평등의 대기운에서 우리 동양 동족의 공동 행복과 평화를 위하여 끝내 한마디 안할 수 없어 이에 정치적 방면에 나아가게 되었기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좌하는 간부 제인과 같이 교무에 더욱 힘써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도의 오만년 대종교의 중책을 짊어지고 정진할지니라”

하고 장석이 교주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글이었던 것이다.

기미독립만세운동은 천도교와 일본에 반감을 가진 잔반들과 의식을 가진 기독교들에 의해 진행되었으나 일본군측으로 보아서는 대단한 소요로는 보지 않았던 것 같았다. 그 이유로는 1919년 학생 등교일이 예년에 비해 더 많으니 이는 휴교령을 내리지 않았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민족대표 33인과 그 밑에서 주관해온 인사 15명이 구속되었는데 춘암 박인호는 그 15인 중의 한 사람이었다. 죄명을 대지못해 무죄였다. 그러나 출감일자

1. 의암 1920년 10월 21일에 병보석
2. 춘암 1920년 10월 31일에 무죄방면되고
3. 그 외에는 1921년 12월 22일에 권동진, 오세창, 이종일 및 최린이 출감하였다. 춘암의 제소의 쟁점을 살펴보면

1. 1919년 2월에 의암의 종자 김상규에게 3만원씩 2회에 걸쳐 만주로 보냈는데 그 돈이 독립운동자금으로 보냈다는 검찰 주장에 서석을 사다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먹게 하려고 의암의 부탁해서 보냈다는 반론이 하나였고

2. 평양의 기독교계 인사에게 5천원을 지원한 것은 독립운동에 유인하기 위해 지원한 것이라는 제소에 의암 장석이 주라고하여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반론이었으며

3. 의암은 자기가 옛날에는 교주였지만 지금은 춘암이 교주이고 자기는 평신도였다는 주장에 춘암은 장석으로부터 그가 하라는 대로 나는 따랐을 뿐 독립이란 문자는 듣도 보지도 못했다면서 의암의 유시문을 대니

전후사정이 줄가리는 안맞지만 처벌하기에는 문제가 있어 미결로 남겨두었다가 의암을 병보석하고, 그후 몇날 후에 방면한 것이다. 의암과 춘암의 짝맞추기가 어느 곳은 같고 어느 곳은 틀려 오래 구금한 것이다.

22. 기미독립만세운동(己未獨立萬歲運動)과 춘암(春菴)

1894년 전라도 고부에서 동학 농민군이 기포했을 때 전봉준(全瓚準)은 빨리 한양에 쳐들어가 권세있고 부귀한 사람 다 없애버리자고 외치다가 시운이 다하여 공주 우금치에서 참패하여 전멸하였다. 충청도 내포 덕산 땅에 대접주 박인호가 사경에 빠진 동학의 맥을 이어오기 20여년이였다. 비리를 먹고 자라는 생물같았던 근세 조선이 멸망하는 와중에서 동학을 교도 300만이나 되는 대중단으로 육성시켰다. 그는 사람은 '거짓에 죽고 참에서 생명이 크다'는 신념하에 동학 교단을 다듬었다.

일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후 처리 과정에서 미국 대통령 윌슨이 '민족자결주의'를 들고 나왔다. 세계 각 민족은 그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의 힘에 의해 결정한다는 것이다. 세계의 각 식민지가 꿈틀대었다.

배달민족도 예외일 수는 없었던 것이었다. 1919년 2월 8일 일본에서 공부하던 젊은 학생들이 동경의 한 복판 한국 YMCA회관에서 조선독립을 선언하였다. 이에 조선안에서도 젊은 시자들이 은밀히 들고 있어났다. 그러나 조선안에서 이를 수렴할 세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끝내 천도교가 그 명을 짊어지기로 하고 민족대표 추대작업에 나섰다. 실무진이 이름있는 명사들을 찾아 헤메었다.

이모씨에게 갔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매국노 1호라 하는데 지금에 내가 민족대표란 가당치 않다. 가만히 있을 터이니 잘해보라"는 것이다. 다음에 박모 후작에 가서 애원하였으나 "나는 일본국에서 주는 은금을 가지고 사는데 민족대표가 되면 은금이 중단될 터이니 못하겠다고"고 하였다. 윤모씨에게 갔다. 그는 "되지 않는 것을 왜 하느냐"고 거절하였다. 다음에는 이모씨에게 갔다. 그는 답하기를 "청원서이면 동참하고 선언서이면 거부한다"고 하여 지배계급이었던 양반층의 동참을 얻는데 실패하였다. 그리하여 차선책으로 선정된 것이 관서 지방의 기독교 인사들이다. 그들은 형편상 돈이 5,000원이 필요하다 하여 편의를 봐주고 동참을 얻었다. 다음에 교섭한 곳이 불교계이었다. 그리고 천도교에서 응원하여 33인을 채웠다.

이종일이 보성사에서 선언서를 인쇄하다가 경찰에 들켰다. 위기일박이었다. 경관을 의암한테 데리고 가서 일금 5,000원을 주고 매수하였고, 그 경찰관은 사표를 내고 잠적하였다. 그러는 사이에 들어간 경비는 물론 천도교의 책임이었다. 이리하여 민족대표가 선정되었다. 의암은 교의 장래에 크게 염려하였다. 그리하여 춘암 박인호에게 특별 배려하였다. 춘암의 보호책으로 유시문을 내렸던 것이다.

리 독자에게 잡지를 발송하였다. 오늘날 압수당한 잡지의 거의 전부를 볼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것은 다른 잡지에서 거의 볼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압수가 잦음으로 인하여 개벽 당사자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과 물질적 희생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니었음을 새삼 말할 것도 없다.

앞에서도 이미 말했거니와 이 개벽은 우리 문학사상 다시 없는 귀중한 문헌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건만 오늘날에 있어서 개벽은 잡힐 듯이 잡히지 않는 무지개같이 저쪽에 놓여 있어 사학에 뜻을 두는 이들에게 이만저만한 아쉬움과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이 개벽의 전질을 영인 출판한다는 것은 뜻깊고 값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당한 이야기다. 개벽 하나만을 놓고 볼 때 그런대로 합격점이다. 그러나 개벽의 운영진이나 필진이 대부분(극히 소수는 제외되지만) 계몽주의, 준비주의, 자치주의를 내걸고 시중회, 국민총력 천도교 연맹, 임전보국단 등 각종 친일단체에 그 이름을 남겼으니 전공이 가석하나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 아니겠는가.

여기에 일제 말기짜기 끌고 간 천도교 월보와 활동이 왕성하여 폐간까지 당한 개벽을 따로따로 보는 눈이 있는 것이다. 민중은 언제나 선구자에게 완벽한 구슬(玉)이 되기를 요망하는 것이다.

23. 개 벽

기미년 독립만세 운동은 일제로부터 이른바 문화정책을 이끌어 냈으나 천도교의 만세운동을 주동한 원로가 전부 구속당하고 말았다.

교회 원로가 구속당한 천도교회는 새로운 젊은 층이 원로들의 대역을 맡고 나섰다.

교주 춘암의 아들 박래호, 의암의 사위 방정환, 서북 출신 이돈화 그리고 최종정 등이 그들이다.

동학은 누년을 두고 민족사의 주역 역할을 해왔다. 이제 새로운 시운을 맡는 시점에서 그들이 맡아야 할 과제를 그들은 넉넉히 해야 했다. 민족문화실현운동으로 개벽사를 세워 "개벽"이란 종합잡지를 내놓았다. 개벽지는 1920년 6월 25일 창간하여 1926년 8월 1일 통권 75호를 내고 폐간되었다.

개벽은 민족 문화의 수립, 민족 전통의 문화 유산 확립, 언론 학술 종교문예를 게재하여 후천 개벽 운동의 일꾼을 키워 나가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리하여 서양 사상을 소개하고 민족자결주의를 고취하고 천도교 사상과 민족사상을 양양하고 사회개조와 과학문명을 소개하고 정신적 경제적 개벽을 꾀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근본적인 정책은 제국주의의 노선 변경은 없었고 도리어 항일 전선에 나타난 인사를 유용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그 중에서 안창호와 가까웠던 이광수를 회유하였고 이어 만세운동의 핵심인 최남선, 최린을 회유, 순화하는데 성공하였다.

개벽의 변질은 1923년 이광수의 민족 개조론을 연재하여 시동을 걸었다. 그리하여 용도 끝에 이용구의 비운을 모면하려 그들의 친일성과 반비례하여 논조가 격양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친일의 전면에서 나서는 1926년 향하여 폐간의 구실을 제공하여 그들은 이용구의 전철을 밟지 않고 영예로운 친일의 자리를 누릴수가 있었고 개벽지는 명예폐간을 당하였다.

이런 사정을 음폐하는 개벽지는 영인본 복사에서 다음과 같이 논급한 것은 알 만한 이야기다.

또 하나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은 개벽의 시종일관 불굴의 투지라 하겠다. 거의 호마다 압수를 당하고 벌금형 또는 정간을 당하면서도 압수를 당하면 호외 또는 임시호를 발간하여 그 필봉을 굶기지 않았고 압수 당할 것을 예견하여 발행 납본하기에 앞서 미

가 천(天)에 수(受)하던 동일(同一)한 정적(正嫡)이니 여등(如等)은 기신(其信)하다.

포덕(布德) 48년 1월 18일

의암(義菴) 손병희(孫秉熙) 函

이상(以上)과 같이 교회(教會)가 분열(分裂)한지 5년을 경과(經過)하여 1930년 12월 24일에 신파(新派) 최린(崔麟)은 구파(舊派)의 제4세 교조(教祖)를 부인(否認)한 것은 친일(親日)하기 위하여 교회(教會)를 분열(分裂)코저 목적(目的)한 구실(口實)이지 어찌 제4세 교조(教祖)가 되신 법통(法統)의 역사(歷史)야 부인(否認)하겠는가? 앞으로는 전죄(前罪)를 개과(改過)하고 수도(修道)와 대도발전(大道發展)에 성력(誠力)을 다 할터이니 합동(合同)하여 달라고 자원(自願)함으로 구파(舊派)에서는 합동조건(合同條件)으로

(가) 신파(新派)에서는 친일적(親日的) 행동(行動)과 조선자치운동(朝鮮自治運動)을 중지(中止)할 것

(나) 제4세 법통(法統)을 역사(歷史)가 지어진 사실(事實)대로 시인(是認)할 것을 제안(提案)하니 신파(新派) 최린(崔麟)은 이를 쾌(快)히 승락(承諾)함으로 천도교전국합동대회(天道教全國合同大會)를 개최(開催)하고 신구양파(新舊兩派)는 합동(合同)을 선포(宣布)하였다.

(2) 천도교(天道教)의 제2차 신구파(新舊派)의 분열(分裂)

이렇게 합동(合同)한지 불과 2년에 신파(新派) 최린(崔麟)은 또 다시 친일근성(親日根性)을 발휘(發揮)하여 천도교(天道教)의 제2차 신구파(新舊派) 분열(分裂)을 피하였다.

1932년 4월 4일에 일본(日本)의 대동방주의(大東方主義)를 극구(極口) 찬양(讚揚) 실천(實踐)하기를 건의(建議)하였으나 구파(舊派) 제4세 교조이하(教祖以下) 권동진(權東鎭), 오세창(吳世昌)이 즉석(即席)에서 이를 거부(拒否)하니 신파(新派) 최린(崔麟)은 또 다시 교회(教會)를 신구양파(新舊兩派)로 분열(分裂)하였다. 이것이 제2차 분열(分裂)이며 이렇게 8년을 경과(經過)하여 1940년 1월 3일 신파(新派) 최린(崔麟)은 자기(自己)의 문하소속(門下所屬) 야뢰(夜雷) 이돈화(李敦化)로 하여금 제4세 법통(法統)을 부인(否認)하기 위하여 저작(著作)한 창건사(創建史)인 체계략람(體系略覽)이라는 인쇄물(印刷物)을 전부(全部) 자진소각(自進燒却)하고 今後는 절대(絶對)로 제4세 법통(法統)을 시인(是認)할 터이니 무조건(無條件) 합동(合同)하여 달라고 제의(提議)하면서 '래(來) 8월 14일까지 이대로 나아가다면 소위(所謂) 신파교인(新派

24. 천도교의 분열(天道敎의 分裂)

(1) 천도교(天道敎)의 제1차 신구파의 분열

일제(日帝)는 1910년 조선을 병합(併合)하고 양반층(兩班層) 반골(反骨)들의 회유(懷柔)에 전념하는 한편 신민회(新民會) 등의 의식인사(意識人士)에 대한 탄압(彈壓)을 강행(強行)하였다. 그리하여 1894년에 괴멸(壞滅)된 동학(東學)은 삼백만(三百萬)을 헤아리는 대종단(大宗團)이 되었고 드디어 1919년 민족항쟁(民族抗爭)의 주역(主役)이 되었다. 이에 수감중(收監中)인 최린(崔麟)을 회유(懷柔)하여 가석방(假釋放)하고 천도교(天道敎)의 내부분열(內部分裂)을 회책(劃策)하니 여기에 춘암(春菴) 거세작업(去勢作業)이 이루어지고 점점(漸漸) 위축(萎縮)의 일로(一路)를 걷게 된다.

여기에 그 과정(過程)을 약기(略記)한다.

1925년(乙丑) 8월 14일에 최린(崔麟)은 제4세 교주(敎主)를 부인(否認)하고 스스로 이탈(離脫)하여 왜정(倭政)에 아부(阿附)하니 그는 소위(所謂) 칩임참의(勅任參議)라는 일제(日帝) 감투를 얻어쓰고 시중회(時中會)라는 간판(看板)을 내걸고 일본(日本)에 지원병제도(志願兵製圖)를 실시(實施)를 애원(哀願)하는 한편 조선(朝鮮)은 자주독립 가능성(自主獨立 可能性)이 없다면서 조선자치제(朝鮮自治制)를 애원(哀願)하여 그 공로(功勞)로 매일신보(每日新報) 사장(社長), 임전보국단장(臨戰報國團長) 등을 역임(歷任)하여 호화(豪華)스럽게 조선천지(朝鮮天地)를 활보(闊步)하게 되었다 이것이 천도교회(天道敎會)가 양단(兩斷)된 시초원인(始初原因)이며 당시에 제4세 교조(敎祖) 지지파(支持派)를 구파(舊派)라 하였고 최린(崔麟) 지지파(支持派)를 신파(新派)라 하여 구파(舊派)는 천도교중앙교회(天道敎中央敎會)라 하고 신파(新派)는 천도교본부(天道敎本部)라 하였다.

최린(崔麟)이 제4세 교조(敎祖)를 부인(否認)한다 함은 천도교(天道敎)는 제1세부터 제4세까지 법통(法統)을 전하였는데 제3세 교조(敎祖) 손의암(孫義菴)선생이 제4세 박춘암(朴春菴)선생에게 법통(法統)을 전한 사실(事實)을 부인(否認)한다는 것이다. 당시(當時) 제3세에서 제4세에 법통(法統)을 전한 사실(事實)으로써 부(不)와 여(如)한 서류(書類)가 있다.

차대도주(此大道主)의 위통(位統)은 천궁지종(天窮地終)토록 경기억회(幾億萬回)를 전하더라도 천(天)이 신사(神師)에게 전하던 동일(同一)한 심법(心法)이요, 차사(且使) 동(東)에 전하던지 서(西)에 전하던지 목(木)에 전하던지 석(石)에 전하던지 신사(神師)

25. 육영사업(育英事業)과 성미(誠米)

춘암이 대도주의 자리에 오르면서 동학의 세가 대창하여 성미가 많아지고 그 힘으로 종하고 교역자 양성소를 많이 세워 포덕의 폭이 크게 신장하였다. 그리하여 총독부와 힘을 겨루면서 다의교당까지 세웠다.

이때 교육계의 적신호가 켜졌다. 그것은 우리의 전통적인 교육제도는 중앙에 성균관이 있고 지방에는 향교가 있어 큰 틀을 잡았고 서원이 있어 이들과 병립하는 형편이었다. 여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서원에 가서 학습하고 서민층은 글방에 가서 면무식(免無識)을 하였다. 그것은 글방은 아무나 아무데서나 각기의 취미에 따라서 해 왔기에 자의적이고 통제란 것이 없었다. 그러던 것이 일본에 합병되면서 학교령이 생기고 학교는 국가나 법인이어야만 경영할 수가 있었다.

관에서는 3개면에 1교라하여 옛날 군현에 하나가 서기 쉬웠다. 글방도 서당 규칙을 만들어 학문의 발전을 규제하니 조선인은 취학하기가 어려웠다.

그리고 국민 의식이나 자본의 형성도 학교를 세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리하여 촌에서는 글방식 소학교가 세워졌다 폐교되었고, 도회지의 중등교육 이상은 민영회나 이용익 등 권세가 몇 개 학교를 세우는데 그쳤고 서양의 선교사에 의해서 학교가 세워지는 것이 고작이었다.

이때 춘암은 생각하였다. 천도교가 개벽의 차원에서 학교를 세우기로 하였다.

방법은

- ① 학교를 세우는 것이요.
- ② 남이 운영하는 학교에 보조금을 주는 것이요.
- ③ 남이 운영하다 폐교 대상이 되는 학교를 인수 경영하는 것이다.

이에 드는 학교는 보성학원의

- ① 보성소학교
- ② 보성중학교
- ③ 보성전문학교
- ④ 동덕여학교
- ⑤ 용산문창학교
- ⑥ 마포보창학교
- ⑦ 대구교남중학교

敎人)은 종자(種子)도 남지않을 형편(形便)이니 관대(寬大)히 처분(處分)하여 사람을 살리는 의미(意味)에서 합동(合同)하였다'라고 애원(哀願)함으로 구파(舊派)는 그를 용로(容怒)하여 동년 4월 4일 다시 전국합동대회(全國合同大會)를 개최(開催)하고 합동(合同)을 선포(宣布)하기에 이르렀으며 제4세 교조(敎祖) 박춘암선생(朴春菴先生)께서는 신구파(新舊派) 합동(合同)된 것을 애심(喪心)으로 기뻐하시면서 대회전일(大會前日) 즉 4월 3일에 환원(還元=서거)하였다. 그후 5년을 경과(經過)하였다.

(3) 천도교(天道敎) 제3차 신구파(新舊派) 분열(分裂)

1945년 8월 15일 조선(朝鮮)이 해방(解放)되자, 같은 해 10월 25일에 전국임시대회(全國臨時大會)에서 신파(新派) 최린(崔麟)은 과거(過去) 삼천만(三千萬)에 국민(國民)에 반역자(反逆者)요 삼백만(三百萬) 교단(敎團) 난법난도자(亂法亂道者)라는 죄목(罪目)하에 출교(黜敎)를 결의(議決) 선포(宣布)하기에 지(至)하였다. 1946년 5월 20일 신파(新派) 최린(崔麟) 출교(黜敎)에 대하여 항상(恒常) 불평(不平)을 갖어온 신파계(新派系) 교인(敎人)들이 다시 제4세 법통(法統)을 부인(否認)하고 분열(分裂)하여 천도교(天道敎) 총본부(總本部)라는 간판(看板)을 따로 내걸고 소위(所謂) 청우당(淸友黨)이라는 청년조직(靑年組織)을 하여 간부급(幹部級) 인물(人物) 김기전(金起漣) 이돈화(李敦化) 라상신(羅相信) 이석보(李錫保) 김병준(金秉俊) 등은 월북(越北)하여 이북(以北) 청우당(淸友黨)에 합세(合勢)하니 이것이 제3차 분열(分裂)이다.

1947년 8월 14일 이 물을 본 구파계(舊派系) 청년교인(靑年敎人) 수십인(數十人)이 숙청단(肅淸團)이라는 조직하(組織下)에 신파(新派) 천도교총본부(天道敎總本部)라는 간판(看板)을 철거(撤去)하고 신파계(新派系) 간부(幹部)들을 축출(逐出)하였는 바 그들은 미군정관(美軍政官) 34인을 대동(帶同)하고 미군세력하(美軍勢力下)에 또 다시 그 간판(看板)을 달았다.

그 익년(翼年) 1948년 4월 4일에 신파계열(新派系列)은 제4대 법통(法統)을 시인(是認)하고 무조건(無條件) 간판(看板)을 뗀 터이니 무조건(無條件) 합동(合同)하자고 요청(要請)함으로 구파(舊派)에서는 무조건(無條件) 합동(合同)하였다. 이리하여 민족종교(民族宗敎)의 본산(本山)이었던 천도교(天道敎)의 그 세(勢)가 갈수록 위축(萎縮)되어 이제 명맥(命脈)만 유지(維持)하는 무기력(無氣力)한 종교(宗敎)로 되어 버렸다.

최병제(崔秉濟) 提供

26. 6·10만세운동

1925년을 넘어서면 조선땅에 몇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 하나는 기미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던 엘리트군이 일제에 무릎을 꿇어 친일의 베일을 벗고 친일의 전면에 등장하는 것이다. 둘째는 천도교가 신파, 구파, 사리원파로 갈리어 공룡이 되어가면서 신파의 간부가 친일의 전면에 등장하는 것이다. 셋째는 유력 인사들이 기진맥진하여 민족 진영이 힘을 잃어가는 것이다. 넷째는 1917년에 세운 소비에트 정부의 망령이 일본에 들어와 맹위를 떨치니 조선땅에도 그 세력이 침투해와 계급사상에 의한 사회 문제가 일어났다.

일본 정부는 만주문제 해결과 겹들여 조선땅에도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시도하였다. 이런 상황이니 조선의 통치는 일보 후퇴 2보 전진의 양식에 의해 정세는 한 단계 단단계 조여들었다.

이럴즈음에 민심은 어떤 계기가 마련되면 움직이게 마련이다. 망국의 왕이 봉어했다. 망국의 백성이 한을 풀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장례는 슬프고 애처로운 것이다. 그것도 한 나라의 왕으로 천하를 호령하던 왕이 이리 끌리고 저리 끌려 다니다 불쌍하게 죽어 옛날 왕의 장례의 절차에 의해 장사지내니 이를 인산이라 하였다.

어지간한 조선사람은 그 팔자가 내 팔자라 동정불금(同情不禁)이다. 그리하여 6월 10일 독립만세 운동은 터지고 말았다. 천도교 대도주 춘암 박인호의 아들 래홍과 조카 래원이 아버지를 대역하여 나선 것이다.

⑧ 일신여학교 등

8개교는 창설 또는 인수 경영하고

① 용산양명학교

② 양덕여학교

③ 전주창동학교에는 보조금을 주었다.

여기에 부침할 것은 출판사 보성사를 세워 문화운동을 시작하니 천도교 월보가 1910년 발간되어 1920년에 개벽지가 나와 대중문화운동을 일으키는 초석을 닦았다.

② 혁신세력

③ 비타협적 민족세력

으로 분류할 수가 있다.

이에 천도교 구파는 내홍의 아버지 춘암을 교주로 받드는 세력이었기에 내홍이 책임을 지고, 진보세력은 홍명희, 허헌이 맡아 자치운동으로 나아가려는 민족지인 동아일보와 선명성 경합을 벌이고 있는 조선일보를 끌어들이며 그들이 자담하기로 하니, 이는 그들의 뜻대로 추진이 되어 1927년 1월 14일 일본의 조일신문에 발기인을 발표하였다.

① 조선일보

신석우, 안재홍, 이승복, 한기악, 장지영, 백관수, 김준연, 최선익, 이관용, 홍성희

② 유럽

김명동, 정재용, 이정

③ 천도교

권동진, 박래홍, 김진린

④ 기독교

박동완, 조만식, 이갑성

⑤ 불교

한용운

⑥ 학계

홍명희, 이순택 등이었다.

⑦ 여기에 민홍회원 김항규, 명제세, 송내호, 권태석, 김홍진이 합류하여 1927년 2월 15일 창립총회를 여니 회장에 이상재, 홍명희를 선출한 바 홍의 고사로 권동진이 대신 선출되었다. 회원은 1931년에 4,000명이 넘는 바 이는 자필원서를 받았기로 문자해독자의 10%를 넘는 선이다.

⑧ 강령

-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진함
-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하는
-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절 부인함이었다.

⑨ 조직

회장 이상재

부회장 권동지

27. 신간회와 춘암가

기미년 독립만세운동이 당황한 일제는 문화정책이란 구급책을 내놓았다. 그리하여 기미년의 정신을 계승코자 하였던 독립세력과 이를 지지하였던 세력은 각기 상반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독립운동 세력은 문예부흥기라도 맞은 듯 사회전반에 걸쳐 각종 운동의 싹을 틔워 문예, 사회, 정치 등 각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독립기운의 맹아를 솟게 하였다. 반면 이에 대응하는 저지 세력은 조선식민정책을 강행하여 지식인의 예봉을 꺾는데 심혈을 기울여 문화정책의 한계내에서 방입만을 허용하는 방법으로 사회 지도층 인사들을 회유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면서 민족운동의 큰 줄기인 천도교가 사분오열되어 광복운동은 고사하고 자체수습도 힘겹게 되었다. 이때 민족계몽운동과 독립준비운동으로 일본치하에 있어서 자치운동이 시작되는데, 이는 본질적으로 민족세력화할 운동을 그 순부터 깃뺏아 버리자는 속셈인 것이다. 이에 속하는 단체로는 조선사편수회, 조선유도회, 각종 어용단체 등이 있었고, 상반되게 자치운동을 부정하면서 철저히 독립운동을 지향하려던 단체인 공산당의 결성과 조선어학회 등으로 나눌 수 있었는데 이 중 가장 큰 줄기는 신간회 활동이었다.

이와 같은 배경속에서 신간회 운동과 춘암가와의 관계를 살펴 보고자 한다. 춘암이 생각하기를 소극적인 계몽운동이 전개되고 자치운동이 생기는 것은 독립운동의 위축을 가져오는 것이며 공산당이 생기는 것은 독립운동 본령을 이행하는 것으로 어떤 경우이든지 민족진영의 독립운동은 왜소화되는 길을 밟게 되는 것이라고 여겼다.

그리하여 그의 아들 내홍에게 거시적 독립운동체를 발의하게 하고 친일로 돌아서지 아니한 천도교들에게는 그에 동참하도록 권유하였다. 이때 내홍이 그와 친분이 두터운 홍명희, 허헌과 상의하면서 위축되는 민족진영과 위협받는 혁신세력에 대해 계획이 서지 않고는 살아남을 방도가 없다고 चे의하여 그들의 협조를 얻어내었다. 이리하여 민족단일당, 즉 신간회의 결성을 보게된 것이다.

어떠한 단체이든지 조직을 보다 효과적으로 구성하기 위하여는 처음 창안한 사람들의 각자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들도 역할분담을 위한 당시의 포용대상을 살펴보면,

① 천도교 구파

4. 보혁의 활동 방향에 상극성이 심했다.
5. 급기야 공용화하였다가 자진하는 꼴이 됐다.
6. 신간회를 결성함에 준암은 그와 연원(淵源)을 같이하는 구파인사들이 참여를 제의하여 동참을 유도하였다. 다음은 참여자의 명단이다.

① 충청남도

서산군 : 박병협, 최병로, 박동현

태안군 : 김상배

안면도 : 주병도

당진군 : 정환석, 신태철, 신태군

부여군 : 최용철

예산군 : 정규희, 문병석, 마기상

② 경기도

수원군 : 라천강, 홍종각, 윤교충, 이연학, 정태홍

평택군 : 이용현, 이보성, 이인수

시흥군 : 이상수

광주군 : 김정은, 박용구, 백남순, 김교영, 김정운, 홍종수

이천군 : 홍두백, 김귀식

여주군 : 김영식, 김연식

용인군 : 이덕유

강화군 : 구광조

인 천 : 김윤환, 김영희

양평군 : 양섭환

양주군 : 윤원세, 김경배

③ 충청북도

충주군 : 김홍배, 홍순창

진천군 : 박주철

영동군 : 손석구, 안종택

음성군 : 김장희, 정공현

④ 강원도

평창군 : 김동식

횡성군 : 정연수

중앙위원

이 인, 홍명희, 한용운, 신석우, 윤보선, 이종린, 김용무, 명제세, 오화영, 이관구, 성태영, 이필주, 김명동, 김준연, 김택, 권동진, 정재용, 이갑성, 이석, 정태석, 이승복, 이정, 문일평, 박동완, 백관수, 신재호, 장지영, 조만식, 최선익, 박래홍, 하재화, 한기악, 홍성희, 조병옥의 37인이요, 부서는 사무국에 총간사를 두어 각부의 간사를 관장하게 하였으니, 총무부, 조직부, 선전부, 서무부, 경리부, 홍외부, 문화부, 부녀부, 청년부, 학생부를 두어 이들 각부 간사를 관장하게 하였다.

총간사 홍명희이고, 각 간사는 안재홍, 권동진, 신석우, 김준연, 이승복, 한기악, 홍성의, 문일평, 박희도, 김활난, 장지영, 이순택, 박동완, 명제세, 최익환, 백관수, 박래홍, 최익선, 김명동, 유각경, 조병옥, 이동욱, 이정, 이관용, 송내호, 오화영, 권태석, 이종린, 안석주, 전순복, 김영섭, 정춘수, 이육, 홍순필의 34명이었다.

○ 구성원 분류(1931년 현재)

1. 전국지회 141개
2. 지회설립준비지 6개
3. 도지회연합회 2개
4. 회원 39,410명
5. 회원의 직업별 분포

| | | |
|---------------|---------------|--------------|
| 1. 노동자 6,041명 | 2. 농민 21,524명 | 3. 직공 2,783명 |
| 4. 여관업 45명 | 5. 저술업 31명 | 6. 의사 241명 |
| 7. 목축 3명 | 8. 사진 666명 | 9. 변호사 34명 |
| 10. 어업 112명 | 11. 재경 52명 | 12. 회사원 447명 |
| 13. 공업 678명 | 14. 측량 5명 | 15. 은행원 9명 |
| 16. 인쇄 95명 | 17. 기자 647명 | 18. 교사 367명 |
| 19. 이발 233명 | 20. 학업 342명 | 21. 교역 255명 |
| 22. 운수 24명 | 23. 상업 4,315명 | 24. 대서업 83명 |
| 25. 직업미상 868명 | 계 39,410명 | |

○ 활약상

1. 회존속중 광주학생의거에 활력이 되어주고 선후책강구에 노력하였다.
2. 조직이 심대하고 공개적이기에 항일적 노력은 못했다.
3. 창회까지 자금을 댄 천도교 측의 핵심인 박래홍이 제거됐다. 그는 보혁의 조정역이었다.

28. 현파 박래홍

(1) 박래홍과 그의 피살

① 현파의 활동과 피살

현파(玄波) 박래홍(朴來弘)은 동학농민군이 기포하던 갑오년(甲午年) 9월2일 충청남도 덕산군 장촌면 막동에서 동학도인 박상호(朴尙浩)의 아들로 태어났다.

곧 동학 대접주인 당숙 박인호에 출계 입사하니 춘암일가가 홍주성 전투에서 패퇴한 후이고 이어 동학군이 공주 우금치에서 붕괴하니 동학교도는 전국에 걸쳐 숨어 쫓기는 기구한 운명에 처했으나, 그도 기구한 운명을 근근히 이어오다가 동학이 세상에 들어나게 됨에 비로서 그의 나이 17세에야 경성관립정동학교(京城官立貞洞學校)에 입학케 되고 23세에 보성중학교(普成中學校)를 졸업하고 곧 보성전문학교(普成專門學校)에 입학하였다. 어떠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업을 그만두고 교회의 일을 보게되니 즉 천도교 청년회를 조직 관리하니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으로 다년간 분부하였다.

현파는 27세에 학업을 다시 계속하려 중화민국(中華民國)에 들어가 북경대학(北京大學)에 입학하였다. 일년이 지나지 못하여 귀국하여 천도교 청년회를 천도교 청년당으로 변경하여 중앙상무위원(中央常務委員)이 되었다. 33세에 다시 천도교 청년동맹을 발기 조직하여 중앙위원이 되었고 그의 양아버지 춘암(春菴) 박인호(朴寅浩)가 기미독립만세(己未獨立萬歲) 운동의 자금책으로 잡혀가고 일제가 문화정책을 표방하니 의암(義菴)의 사위인 방정환(方定煥)과 손을 잡고 서북출신인 이돈화(李敦化), 김기전(金起田) 등과 개벽지(開闢誌)를 창간(創刊)하여 신문화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때 천도교는 막대한 교회 돈으로 신식학교를 여러개 세우고 문화운동을 대개하니 천도교 월보, 개벽, 보성사의 출판사업에다 시대의 진운에 발맞추어 부문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그러나 일제는 천도교의 기층운동을 탄압하거나 매수 작업으로는 그 기세를 꺾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 내분을 획책였다. 즉 1923년 이광수(李光洙)의 민족개조론(民族改造論)을 연재하면서 서서히 친일의 면모를 드러내니 최린을 중심으로 문호를 따로 세우는 것이었다. 이에 박인호의 승통시비(承統是非)를 일으켜 천도교는 춘암을 주축으로 하는 구파와 최린을 중심으로 하는 신파가 승강이를 거듭하게 되니 부문운동도 두가지로 같은 이름의 두 단체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쯤되자 신파는 돈이 많이드

영월군 : 김종국

⑤ 전라남북도

부안군 : 안내현

순창군 : 윤귀섭

강진군 : 양해선

해남군 : 이인근, 이강량

완도군 : 신명희, 박한규

임실군 : 최종기, 김한경, 박성현

남원군 : 유태홍, 유종석

장흥군 : 김재반, 황생주

⑥ 황해도

신천군 : 김정삼, 김성오

안악군 : 이만유, 현행묵

은율군 : 홍성인, 정돈근

송화군 : 강용택, 손덕걸

장연군 : 강용열, 강중수

재령군 : 최재학, 박창우

봉산군 : 오덕원, 장명세

해주군 : 최보흠, 여운남, 최덕삼

⑦ 평안도

선천군 : 이의달, 윤영찬, 옥신보, 박희현, 홍성구, 한봉서, 이용길, 문무현, 계행로, 김명진, 김덕연, 계수영, 박득순, 한정기, 전용진, 배천혁, 정도원, 김이원

용천군 : 김귀현, 정용성

⑧ 함경도

북청군 : 유병준, 유달원 이상 43군 101명이다.(최병제 제공)

신간회의의 공중분해는 기미만세운동을 무서워했던 유럽과 체제내에서 직필을 주지로 하는 조선일보 기자들이 주축이 되었기에 큰 소리 한번 못지르고 공산주의자들이 기대했던 보호막 구실도 못해주었기에 한쪽에서부터 붕괴되었던 것이다.

이제까지의 연구자는 신간회의의 조직비화를 찾지 못하였기에 이에 첨언한다.

는 문화운동을 주로하고 구파는 민족운동을 주로하게 되었다. 신파의 문화운동은 어린이운동, 청년운동, 여성운동 등을 하고 구파는 똑같은 운동을 하면서 민족운동을 주로하였다. 신파는 개벽, 해성, 자수대학 등 계몽운동을 힘차게 하게 되었고, 구파는 청년동맹, 천도교월보 등의 운동을 하였으니 민족운동 쪽에 힘을 썼다.

6·10독립만세운동, 신간회 운동 등 민족운동은 구파쪽의 전유물이었다. 특히 신간회 운동은 회원이 4만명이 넘는 거국적 단체인 바 이는 현파의 발의에 의하여 받기가 되고 현파는 중앙총부의 간사로 신간회 운동의 중추적인 위치에 놓여 있었다.

천도교(天道敎)를 분열(分裂)시켜 기층종교(基層宗敎)를 와해(瓦解)시키려는 일제(日帝)의 의도(意圖)는 1925년대에 들어와서도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었다.

첫째, 박인호(朴寅浩)는 카리스마적 存在였다. 아무리 신파(新派)의 주류(主流)가 감언이설(甘言利說)로 교중(敎衆)을 유인(誘引)하여 가더라도 민족종교(民族宗敎)의 신도(信徒)들은 날이 갈수록 원위치로 돌아오게 되어 있던 것이다. 그리하여 다시 합했다가 또 분리(分離)하는 작업(作業)을 여러번 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동학(東學)의 존재이유(存在理由)가 일본민족(日本民族)에게 얽혀서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시중회(時中會)나 만들고 국민총력(國民總力) 천도교(天道敎) 연맹(聯盟)이나 만드는 부류(部類)로서는 종단(宗團)을 이끌 수 있는 명분(名分)이 없었던 것이다.

둘째, 현파(玄波)는 신지성인(新知性人)이었다. 신도(信徒)들에 의해 현파(玄波)는 이모(李某) 김모(金某)와 더불어 천도교내(天道敎內)의 삼제사(三才士)로 일컬어졌다. 거기에다 현파(玄波)는 춘암교주(春菴敎主)의 아들이다. 새시대의 경륜(經綸)이 그에게는 누구못지 않게 예민(銳敏)하고 크게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신파(新派)에서 하는 문화운동(文化運動)을 규모(規模)는 작지만 구파(舊派)에서도 해내었던 것이다. 이것이 신파독존(新派獨存)의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다. 일제(日帝)의 천도교(天道敎) 파괴(破壞)가 용이치 않게 된 것이다.

셋째, 민족항쟁(民族抗爭)의 진원지(震源地) 구실을 했던 것이다. 기미독립만세운동(己未獨立萬歲運動), 6·10독립만세운동(獨立萬歲運動), 신문화운동(新文化運動), 신간회운동(新幹會運動)의 밑바닥에는 의연히 천도교(天道敎) 구파(舊派)가 그 핵(核)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 이르면 춘암(春菴)의 부자(父子)는 무서운 존재(存在)였던 것이다. 신파(新派)는 신파(新派)대로 친일화(親日化)가 더디었고, 일본(日本)의 천도교(天道敎) 해체(解體)는 무망(無望)하였던 것이다. 때는 춘암(春菴)이 1855년생이니 나이가



○ 街市 雜 貨 販 賣 街 景

短刀든怪漢이突現
 殺害原因은 全然히不明

短刀든怪漢이突現 教會堂에서殺人騷動

「현도교 청년들 중 대 표 박 대 호 씨를
 以한 이 단 도 모 켜 러 서 무 창 히 죽 이 어」

天道教朴來弘氏慘禍

오랜오래 「현도교 청년들」 중 대 표 박 대 호 씨를 以한 이 단 도 모 켜 러 서 무 창 히 죽 이 어... (The following text is highly distorted and largely illegible due to poor image quality, appearing as a dense block of vertical lines of characters.)



포(起泡)가 있던 1894년 가을인 9월 2일 충청남도(忠淸南道) 덕산군(德山郡) 양촌면(兩村面) 막동(幕洞)에서 동학신자(東學信者) 박상호(朴尙浩)의 아들로 태어났다. 곧 그의 종숙(從叔) 동학대접주(東學大接主) 춘암(春菴) 박인호(朴寅浩)의 사자(嗣子)로 수양(收養)되어 숨어사는 기구한 운명을 근근히 계속하다가 천도교(天道敎)가 세간(世間)에 드러난 후 나이 17세가 되어서야 비로서 경성관립정동학교(京城官立貞洞學校)에 입학(入學)하였다. 23세에 보성중학교(普成中學校)를 마치고 보성전문학교(普成專門學校)에 입학(入學)하였다. 부득이(不得已)한 사정(事情)으로 학교(學校)를 그만두고 교회(敎會)의 일을 보게 되니 천도교(天道敎) 청년회(靑年會)를 관리(管理) 조직(組織)하고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으로 수년간 노력(努力)하였다.

27세에 몸을 일으켜 중원(中原)에 들어가 북경대학(北京大學)에 입학(入學)하였다가 곧 귀국(歸國)하여 개벽지(開闢志)를 창간(創刊)하고 천도교(天道敎) 청년동맹(靑年同盟)의 중앙대표위원(中央代表委員)이 되었고 34세에 신간회(新幹會)를 발의(發議)하여 본부(本部) 상무간사(常務幹事)가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끝끝내 불타협적(不妥協的) 민족운동(民族運動)의 선봉(先鋒)이 되었다.

때는 계몽주의(啓蒙主義) 독립준비주의(獨立準備主義) 나아가 자치주의(自治主義)가 팽배할 때였다. 그들과 반목(反目)이 여간한 것이 아니었다. 천도교(天道敎)의 전통파(傳統派)를 내몰고 신파(新派)를 육성(育成)하던 일제(日帝)가 70세가 다된 춘암(春菴)을 제쳐놓고 30대의 그 아들 래홍(來弘)을 제거(除去)하려 결정(決定)한 것이다.

그 하수인(下手人)으로 등장(登場)한 이가 서울봉(徐乙鳳)이었다. 일본국(日本國)에서 유랑(流浪)하다 입국(入國)한 자로 박래홍가(朴來弘家)에 들러 말하기를 그의 아버지가 교인(敎人)이었는데 죽어서는 교회(敎會)가 홀대한다고 간부(幹部)들에게 항의(抗議)하면서 묘비(墓碑)와 신문게재(新聞掲載)를 요구(要求)하였다. 간부(幹部)들은 그것은 의암성사(義菴聖師)도 아직 안하였으므로 어렵고 우선 일보(日報)에 사진과 같이 환원보도를 하자고 설득(說得)하여 타일렀다.

그 이튿날 천도교당(天道敎堂)에서 대중(大衆)환시한 가운데 일언반구(一言半句)의 이야기도 없었는데 박래홍(朴來弘)을 칼로 찢어 죽인 것이다. 그는 그의 아버지 춘암(春菴)의 대역(代役)으로 이승을 떠난 것이라 하였고 각신문(各新聞)들은 동기(動機)가 의심된다고 보도(報道)하였다.

〈天道敎 月報 21〉

70歲가 넘었고, 현파(玄波)만 없애면 천도교(天道敎)는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던 것이다. 여기에 현파제거(玄波除去)의 가능성(可能性)이 있는 것이다.

본정경찰서(本町警察署) 고등계(高等係) 구보전(久保田)이 인물(人物)을 선정(選定)했다. 일본(日本)에 가서 유랑(流浪)하던 서울봉(徐乙鳳)을 찾아냈다. 그의 아버지가 천도교회(天道敎會)를 보다가 얼마전에 사망(死亡)한 것이다. 그러기에 아버지의 공(功)을 생각하여 묘비(墓碑)를 세워주고 신간공고(新刊公告)를 해달라고 간부(幹部)들에게 요구(要求)하고 현파(玄波)의 집에서 잤다. 간부(幹部)들은 의암(義菴)의 묘(墓)에도 아직 못한 것을 그대의 아버지부터는 못하고 신간공고(新刊公告) 보다는 천도교월보(天道敎月報)에 게재(掲載)하는 것이 좋겠다고 타일러 그만한 선(線)에서 타협(妥協)을 짓고 잔 것이다. 그 이튿날 교회당(敎會堂)에서 여럿이 보는 가운데서 현파(玄波)를 칼로 찢어 급사(急死)한 것이다. 저간(這間)의 사정(事情)을 당시(當時)의 기사(記事)를 적어 이해(理解)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② 박래홍(朴來弘) 현파군(玄波君)의 약력(略歷)

1894년생(35세)

보성전문대학교졸(普成專門學校卒)

북경대학졸(北京大學卒)

천도교내(天道敎內)의 엘리트

1919년 3월 박인호(朴寅浩) 피검(被檢) 박래홍(朴來弘) 전면(前面)에 부상(浮上)

1920년 방정환(方定煥), 이돈화(李敦化), 김전기(金田基), 등 청년교인(靑年敎人) 지식인(知識人)들과 빈자리를 메움. [개벽지창간(開闢志創刊)]

천도교(天道敎)의 분열(分裂)과 외로운 투쟁(鬪爭)

천도교(天道敎)의 이론적(理論的) 기반정리(基盤整理)

천도교(天道敎)의 각종(各種) 신생활(新生活) 운동(運動) 전개(展開)

천도교(天道敎) 교리(敎理) 연수부발족(研修部發足), 천도교청년총동맹(天道敎靑年同盟)으로 발전(發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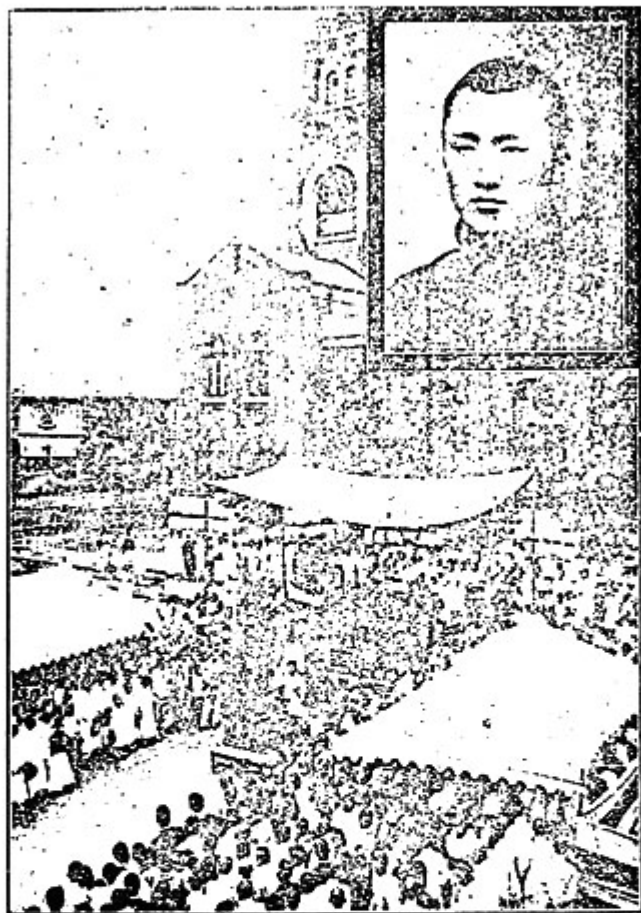
내수단(內修團) 발족(發足)

6·10독립만세운동(獨立萬歲運動) 주동(主動)

신간회(新幹會) 발의(發議), 발기인(發起人) 간사(幹事)가 됨

조선(朝鮮) 운동(運動)의 기수(旗手) 박래홍(朴來弘) 피살(殺害)

현파(玄波)는 박래홍(朴來弘)의 호이다. 현파(玄波)는 갑오(甲午) 동학(東學)



圖式映永及偉青君弘來朴波支敬

박내홍 朴來弘 1894(고종 31)~1928 천도교인(天道教人). 호는 현파(玄波). 충남 덕산(德山) 출신. 보성전문학교(普成專門學校) 졸업. 중국 북경(北京)에 유학. 1906년에 천도교에 입교, 천도교 총동맹 중앙위원장과 신간회(新幹會) 본부 총무간사(總務幹事) 등을 지냈고, 1928년 일본 경찰의 밀정 서윤봉(徐乙鳳)에게 살해되었다. [文獻] 天道教創建錄

③ 박래홍(朴來弘)

현파(玄波) 박래홍(朴來弘)은 천도교(天道敎) 대도주(大道主)인 박인호(朴寅浩)의 아들로써 1894년생이다. 그는 일찍 보성전문학교(普成專門學校)를 졸업(卒業)하고 북경(北京)에 건너가 대학(大學)을 마치니 머리가 명석(明皙)하여 준재(俊才)요, 식견(識見)이 깊어 대인(大人)이었다. 그러기에 천도교당내(天道敎堂內)에서 이모(李某), 김모(金某)와 더불어 삼총사(三銃士)로 알려졌다. 그의아버지 춘암(春菴)이 기미삼일만세운동(己未三一萬歲運動)에 자금책(資金責)으로 지목(指目)받아 천도교(天道敎) 요인(要因)들과 거의 다 잡혀가는 꼴이 되었다.

그때 그는 30대 중반(中盤)의 혈기왕성(血氣旺盛)한 젊은이로 동학(東學)의 발전적(發展的) 사업(事業)에 전념(專念)하였다. 때에 맞추어 일제(日帝)가 문화정책(文化政策)을 위장(僞裝)하니 호기(好機)라 생각하고 개벽(開闢)을 창간(創刊)하고 뒤이어 인내천(人乃天)의 종지(宗旨)를 살리는 운동(運動) 즉 부문운동(部門運動)을 시작(始作)하였다. 그러나 그것도 한순간, 최린(崔麟)이 옥중(獄中)에서 변절(變節)하여 가석방(假釋放)이 되어서는 소위(所謂) 신파(新派)라는 것을 분립(分立)시켜 천도교세(天道敎勢)는 양분불구(兩分不具)가 되었다.

이에 박래홍(朴來弘)은 부문운동(部門運動)에 머물지 않고 종제(從弟) 박래원(朴來源)과 같이 6·10독립만세운동(獨立萬歲運動)을 일으켰고, 1927년에는 허헌(許憲), 홍명희(洪命憲)와 밀의(密議)하여 신간회(新幹會)를 발의(發議) 발기(發起)하여 준비과정(準備過程)의 자금(資金)을 대고 그는 신간회(新幹會)의 총무간사(總務幹事)가 되어 인내천(人乃天) 종지(宗旨)에 터한 불타협적(不妥協的) 민족운동(民族運動)의 선봉(先鋒)이 되었다.

때는 민족운동(民族運動)하던 이들이 계몽주의(啓蒙主義), 준비주의(準備主義), 자치주의(自治主義) 등으로 친일성(親日性)을 띄는 시점(時點)인지라, 천도교(天道敎) 신파(新派)를 육성(育成)하던 일제(日帝)가 70歲가 넘는 춘암(春菴)은 방치(放置)하고 그 아들 현파(玄波) 죽이기 작전(作戰)을 폈다.

그 하수인(下手人)으로 등장(登場)한 것이 서울봉(徐乙鳳)이다. 그는 일본(日本)에서 유랑(流浪)하다 입국(入國)한 자로 본정경찰서(本町警察署) 고등계(高等係) 구보전(久保田)과 만나는 사이였다. 하루는 그가 박래홍가(朴來弘家)에 들러 그 아버지가 교인(敎人)이었는데 죽어서는 교회(敎會)가 홀대한다고 간부(幹部)들에게 항의(抗議)하자 간부(幹部)들은 비석(碑石)은 의암성사(義菴聖師)도 아직 안세웠고 다른 방법(方法)은 별것이 없지 않느냐고 타일렀다. 그 이튿날 천도교당(天道敎堂) 대중

刻)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요사(夭死)를 가없이 보고 그의 참사(慘死)를 어이없이 여기는 이기 보다도 그의 죽음이 더 좀 의미(意味)있지 못한 것을 한(恨)하는 사람이다. 우리로서 영결(永訣)에 임하여 어찌 한마디 말도 없이서라. 사람은 죽는다. 그러나 박군은 예측(豫測)보다 일찍 죽었고 박군은 예측(豫測)보다 의외(意外)의 창험(昌險)으로 죽었다.

② 명호(鳴呼), 현파(玄波) 박래홍군(朴來弘君)

이증린(李鍾麟)

무엇이여, 무엇이여, 래홍(來弘)이가, 어찌서 래홍(來弘)이가, 칼에 찢리다니 누구의 칼에, 그대 생명은 죽지나 않겠는가 하면서 궁정동(宮井洞) 자택(自宅)에서 전화통(電話筒)을 귀에다 부치고 끊임없이 무어 무어여하는 노인은 즉금(卽今) 74세이신 그대의 부친(父親) 춘암선생(春菴先生)이시다.

전화통(電話筒) 앞으로 죽 늘어서서 무엇이요, 무엇이요 하면서 어쩔줄 모르고 전화(電話)받는 노인의 얼굴만 쳐다보는 노부인(老婦人)들은 즉금(卽今) 77세이신 그대의 어머니와 가족들이며, 여섯 살 먹은 제집아이 네살 먹은 어린 놈의 손을 잡고 말 한마디 없이 마루밑에 우두커니 섰는 부인(婦人)은 금년(今年) 봄에 재취(再娶)한 즉금(卽今) 17세인 그대의 부인(婦人), 책복자를 내어던지고 허둥지둥 뛰어나오다가 교당(教堂)앞에 다달아서는 둥그런 눈으로 수선수선 왔다갔다하는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이 구석에 기웃, 저 구석에 기웃하는 아이들은 동덕여학교(東德女學校)에 다니는 즉금(卽今) 15세인 그대의 큰 딸, 제동학교(劑東學校) 생도(生徒) 즉금(卽今) 12세인 그대의 큰 아들 의섭(義燮)이, 사범부속학교(師範附屬學校) 2년생 즉금(卽今) 9세인 그대의 둘째 아들 명섭(明燮)이다.

아! 현파(玄波)가 죽다니 현파(玄波)가 칼에 찢리어 죽다니, 이것이 참말이요 아까 안국동(安國洞) 네거리에서 만났는데 현파(玄波)가 죽다니요, 이와 같이 각 방면(方面)에서 쏟아져오는 전화(電話) 물결같이 밀려드는 오욕백의 군중(群衆)들은 다 그대가 관계(關係)하여 있는 각 단체(團體)들과 그대와 생사(生死)를 같이하는 동지(同志)들이다. 그대는 이런 줄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대의 생명(生命)이 어떠한 생명(生命)이었더냐. 그대의 가정(家庭)으로 보든지 그대의 동지(同志)들로 보든지 그대의 하는 사업(事業)으로 보든지 그대의 연령(年齡)으로 보든지 어떠한 생명(生命)이었느냐. 이렇게 귀중(貴重)한 생명(生命)을 이렇게 허탄(虛誕)히 죽이고 만다는 말이나.

이것이 그대의 죄악(罪惡)이나, 그대는 과연 이렇게 죽을 만한 죄를 지었느냐, 그

(大衆) 앞에서 일언반구(一言半句)의 이야기도 없었던 박래홍(朴來弘)을 칼로 찔러 죽인 것이다.

당시의 신문(新聞)들은 일제히 동기(動機)가 의심(疑心)된다고 게재(掲載)하였다.

〈長子 朴義燮 證言〉

(2) 현파에 대한 추도문

① 추도문(追悼文)

장의위원대표(葬儀委員代表) 홍명희(洪命熹)

사람은 죽는다. 남자(男子)도 죽고, 여자(女子)도 죽고, 부자(富者)도 죽고, 빈자(貧者)도 죽고, 용렬(庸劣)한 자도 죽고 용감(勇敢)한 자도 죽고, 노예(奴隸) 부락(部落)에도 죽음이 있고 공후귀가(公侯貴家)에도 죽음이 있다. 부모(父母)도 죽을 것이요, 자녀(子女)도 죽을 것이며, 친척(親戚) 고구(故舊)도 죽을 것이요. 같은 목적(目的)으로 같이 나가는 동지(同志)들도 다 각각 죽을 것이다. 사람은 죽는다. 사람에게는 시간시간(時間時間) 일일이 죽음에 대한 창험(昌險)이다. 고기를 먹고 술에 취하는 것도 그 창험(昌險)이요, 산에 오르고 강을 건너는 것도 그 창험(昌險)이요, 충대를 올라 내리고 전차(電車)길을 건너 다니고 인력차(人力車)를 달리는 것도 모두 그 창험(昌險)이다. 사람사람이 창험(昌險)은 일반(一般)이나 더구나 민중(民衆)을 위하여 사회(社會)를 위하여 제일선(第一線)에 나서 활동(活動)하는 자는 용렬(庸劣)한 자 보다 공후귀족(公侯貴族)보다 창험(昌險)의 도가 더하고 창험(昌險)의 수가 많을 것이다. 설사 그가 팔구십 노령(老齡)에 이르러 편안히 운명(運命)한다 하여도 그것은 미리부터 기필치 못할 일이요, 그가 요사(夭死)하느냐 그가 참사(慘死)하느냐 그가 생사관문(生死關門)에서 신음(呻吟)하느냐 그에게 대하여는 도리어 이러한 예측(豫測)을 가지는 것이 당연(當然)하다 말할 수 있다. 사람은 죽는다. 박래홍군(朴來弘君)도 죽었다. 그는 요사(夭死)하였다. 그는 참사(慘死)하였다. 그에게는 생양가(生養家)의 부모(父母)가 구존(具存)하여 그 아들을 곡(哭)하고 그에게는 여러 친척고구(親戚故舊)가 있어 그의 생전(生前)의 좋은性情(性情)과 아름다운 처사(處事)를 서로서로 추억(追憶)하며 그를 곡(哭)한다. 그러나 그것은 한갓 가정인(家庭人)으로서의 박군(朴君)을 곡(哭)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곡은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곡이다. 그에게는 같은 목적(目的)으로 같이 나가던 수만의 동지(同志)가 있다. 일이 중도(中途)에 머물러 장애(障礙)와 저해(沮害)가 중첩(重疊)할 때 그를 잃은 그 동지(同志)들의 곡은 가정(家庭)의 곡보다 의미(意味)가 몇층 더 심각(深

봉모(乙鳳母)는 을봉(乙鳳)이 형제(兄弟)를 데리고 타처(他處)로 개가(改嫁)하였다. 환차궁(鰥且窮)한 서상건(徐相建)은 자기(自己) 당내(堂內) 유여(有餘)한 친족(親族)이 있건만은 차에 개의(介意)치 아니하고 성주읍 뒤산에다가 석굴을 파고 독처한 적도 있다 한다. 을봉 저더러 말하라 하여도 그 부를 천도교 신자라 말할지언정 신문에 표창하고 교회에서 비(碑)하여 즐만한 공로가 있다고는 하지 못할 것이다. 그뿐 아니라 을봉모가 을봉형제를 데리고 개가할 시 을봉이는 그 부를 면식할 만한 연륜이 아니었던 것은 다래 서상건의 친절한 교우인 성주 권기현씨와 면담한 것으로보아서 증명할 수 있다.

③ 을봉이가 그대(현파를 가리킴)를 죽이기 전 경로

이것은 을봉이가 경성에 나오기 오일 전 즉 9월 29일 성주군 월항면 장산동 권기현씨를 처음 방문할 시의 말이다.

「을봉 제(弟)가 그 모에게 있다가 약 8년전 일본 동경으로 가서 6년간 철공생활을 하였고, 2년전 그 모에게 끌리어서 부산에 와서 자기 형과 약 2년간 또한 철공생활을 하다가 형의 부랑으로 인하여 재미가 없음으로 형제가 한가지 경성으로 올라가서 황금정에서 22일간 유숙하던차 돌연히 그 모로부터 부의 병이 위험하다는 전화를 접하고 김천 모가로 내려온 즉 벌써 그 부친이 사망하였다는 전보가 왔어요. 즉시 성주로 간즉 저의 종숙이 벌써 렴을 하였습니다. 평생에 부친이라는 이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그 얼굴을 보기 위하여 려한 것을 풀다가 부친의 얼굴을 보고 어떻게 놀랐든지 뒤로 자빠졌어요. 그 뒤로 아무 생각없이 그날 즉 9월 26일 매장하고 오늘 바로 댁에 왔습니다.」

그런데 망부의 공로를 신문에 내리면서 「불가불 경성에 가서 천도교 선생을 찾아보겠으니 당신(권기현을 가리킴)은 선생님께 편지를 하여주세요.」

권 선생은 「현파는 지금 그런 일을 관계하시지 아니하니 교회의 간부인 이종린씨를 찾아 강론하는 것이 가하다」고 그에게로 소개편지를 써 주었다 한다. 교회의관계가 많은데 오직 그대를 목표한 것이 무슨 심상이나.

을봉이가 위와 같이 권기현씨에게 교회 내용을 상세히 듣고 겸하여 이종린에게 소개하는 편지를 가지고 왔으니 의례히 입경 즉시로 이종린을 찾아보고 그 소개 편지를 내어놓아야 할 것이 아니나. 그러한데 을봉이가 그 편지를 내어 놓지 아니한 것이 무슨 이유이나. 이에 이와 을봉이의 문답한 전말을 전하면 다음과 같다.

대의 평생(平生) 한 일이라고는 어려서부터 칼에 찔려 죽던 그날까지 안으로는 자기 아버지의 뜻을 받아, 광제창생(廣濟蒼生)을 목적(目的)한 천도교(天道敎)의 진리(眞理)를 신봉(信奉)하고 천도교(天道敎)의 사업(事業)을 노력(努力)하던 그것뿐이고, 밖으로는 시의투쟁중(猜疑鬭爭中)에 빠진 대중(大衆)의 역량(力量)을 통일(統一)하려는 모단체(某團體)의 간부(幹部)로서 있는 그것 뿐이었다. 그리하여 말 한마디를 하여도 그 말 뿐이었고, 웃음 한번 웃어도 그 웃음이었고, 울음을 울어도 그 울음이었고, 술 한잔을 먹어도 그 술이었고, 꿈을 꾸어도 그 꿈이었고, 발 한자욱을 떼어도 그 걸음이었고. 이것이 과연 칼에 찔려 죽을 죄(罪)이나.

그대는 과연 이렇게 죽을 만한 악(惡)이 있더냐. 그대의 품성(品性)은 너그럽고 등글었다. 그대의 기개(氣概)는 현양(軒昂)하였다. 그대의 의지(意志)는 견확(堅確)하였다. 그대의 언동(言動)은 진실(眞實)하였다. 그대의 이상(理想)은 원대(遠大)하였다. 그대의 판단(判斷)은 명민(明敏)하였다. 그대의 신체(身體)는 건장(健壯)하였다. 장부(丈夫)로 너그럽고 등근 것이 악(惡)이나, 현양(軒昂)한 것이 악(惡)이나, 견확(堅確) 진실(眞實)한 것이 악(惡)이나, 원대(遠大)하고 명민(明敏)하고 건장(健壯)한 것이 악(惡)이나.

이것은 그대를 열한 번이나 찔려 죽인 서울봉(徐乙鳳), 그놈에게 물어보아도 죄악(罪惡)이라고는 아니하리라. 그러면 을봉(乙鳳)이가 그대를 이렇게 참혹(慘酷)히 죽인 죄악(罪惡)이라고 할 것이 그 무엇이나. 세상(世上)에 드러난 바는 오직 모(母)의 망부공로(亡父功勞)를 각(各) 신문지(新聞紙)에 내어 줄것, 천도교회(天道敎會)로서 망부(亡父)의 비(碑)를 하여 줄것(且 유학비, 강청은 전연 없는 말), 이 두가지를 하여 주고 아니 하여주는데 하등(何等)의 관계(關係)가 없는 그대에게 요구(要求)하였는데, 그것은 나의 책임(責任)이 아니라고 거절(拒絕)하였다는 그것 뿐이다.

이것이 과연 그대를 찔려 죽이기까지의 죄책(罪責)이나. 을봉(乙鳳)의 망부(亡父) 서상건(徐相建)과 친절(親切)한 교우(敎友)들의 말을 들으면 을봉(乙鳳)은 기(其)의 망부(亡父)를 원한(怨恨)하던 놈이다. 서상건(徐相建)이가 천도교(天道敎)에 귀의(歸依)한 후, 내수도(內修道)에 극진(極盡)하던 기(其) 부인(婦人)이 죽었다. 그리하여 상건(相建)은 을봉모(乙鳳母)를 첩(妾)으로 들이었다. 을봉(乙鳳)의 형제(兄弟)까지 생산(生産)한 을봉모(乙鳳母)는 기부(其父)의 신앙(信仰)을 반대(反對)하여 내수도(內修道)는 고사(姑舍)하고 어쩌다 교우(敎友)가 방문(訪問)하면 반드시 절육(疾辱)하여 그 부의 체면(體面)을 오손(汚損)함이 상습(常習)이었다. 그 부는 부득이(不得已) 손가락을 끊어 맹서(盟誓)하고 기(其) 여(女)를 구축(驅逐)하였다. 을

없으니 이것이 무슨 의미요. 상위에 놓인 본교월보에 사진과 필적이 박힌 페이지를 헤쳐보이면서 군의 부친은 천도교 신자이니 그의 약력과 초상유목을 기재하는 것은 당연할 뿐 아니라 신문이라는 것은 일일만 지나면 휴지이지만은 이 월보같은 것은 책자이니만큼 영원히 전할수 있는 것인 즉 부친의 사진을 가지고 오셨소?

을 : 망부는 아무 유언도 남기지 아니하고 사망하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셨습니다. 돌아가신 후에 제가 찾아보니까 소형의 사진 한장 뿐이었는데 아니 가지고 왔어요.

이 : 그러면 그 사진을 곧 올려오게 하고 우선 오늘이라도 이 현판의 유목은 곧 사진을 박게 하세요. 월보에 기재하는 것은 내가 그 책임자에게 잘 부탁하리다.

다시는 말이 없이 무엇을 그리 사색하는지 손은 손대로 눈은 눈대로 다 각각 놀리는 까닭에 아까부터 싸기 시작하던 보자를 싸는 것이 약 30분이나 되었어도 아직 다 싸지 못하였다. 이후의 행동이 하도 이상하여서 사무원에게 이 손님을 응접실로 안내하여 드리라고 하고 일어섰다.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이다.

이상으로 전말을 종합하여 보면 당초의 요구를 거절한 자는 이종린이었다. 또는 그대 부자의 거절을 당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튿날 그대를 찢어죽이던 그때에도 이종린을 만났으니 반드시 이에게 다시 요구하여 볼 것이며 또는 이가 당초 거절하던 날 「이 말은 나 개인의 의견이요 교회를 대표하여 하는 말은 아니다. 여러분과 상의하여 본다면 어떨런지는 모르겠다」 하였은 즉 이더러 그간 상의(相議)하여 보았는가를 물어 보는 것이 순서일 것인데 그 일에 아무 관계가 없는 그대 즉 자기를 편안히 재워주고 배불리 먹여주고 또 월보에다 기재하는 것은 책임을 지겠다고 하니까 제가 월보에 내는 때까지 밥값을 내고 덕에서 유숙하겠다 한즉 밥값을 내다니 그것이 무슨 말이나고 도리어 섬섬히 생각하던 그대를 꼭 목표로 하여 일부러 술까지 사다먹은 후 교당에까지 쫓아와서 말 한마디 접하지 아니하고 대번에 찢어 치명상을 주었다. 심장이 찢리어서 예구 소리 한 마디도 지르지 못하고 기계적으로 달아나는 그대를 쫓아가서 뒤덜미를 내리찍어서 거어이 결과를 내고야만 것이 무슨 까닭이나.

차라리 그대보다 10년이나 더한, 무슨 일든지 무능한 이종린 필자를 죽이었던 필자 개인으로서는 가석하겠지만은 교회로서는 장래에 있어서 내적 외적으로 희망이 집중하여 있는 35세 한참 일할만한 그대를 죽인 것보다는 나을 것이다. 참 이것이 운명이나 참으로 운명이나.

현파! 현파 그대는 평생에 운명이라는 그것을 절대부인하였다. 필자 역시 운명을

이 : (울봉이에게 조의의 예를 펼한 후) 군은 선부군을 모시고 있다가 당변하였는가
울 : 지금으로부터 약 6년전 동경 소식천구에 가 있다가 이번에 부친 병보를 듣고 와서 허둥허둥 종신은 하였습니다.(권과 문답한 사실과는 전연 상위)

이 : 당변을 한 지가 며칠이 못되었는데 무슨 일로 이렇게 올라오셨소.

울 : (얼굴을 쩡그리며 억지로 비애한 빛을 지어가지고 그 망부를 교첩현판등속을 이의 앞에다 내어놓으면서) 망부(亡父)에 대한 지원(志願)이 있어서 왔습니다. 망부는 이와 같이 일생 천도교(天道教)만 알고 다른 것은 모르다가 사망하였은 즉 공로(功勞)를 신문에 내어주실 것, 또한 천도교(天道教)에서 망부의 비(碑)를 세워줄 것이 저의 지원(志願)입니다.

이 : 남의 아들이 되어서 그 부친(父親)의 공적을 불공케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군의 부친은 천도교 독신자이지 일반 사회적으로 표창할 만한 공로가 있었는가는 의문이다. 소(小)하야도 성주(星州) 그 지방에서라도 교회이외의 교육이라든지 기타 공공사업을 희생적으로 하셨다면 모르겠지만은 단순한 천도교 신자로서 일반 각 신문지상에 표창하기는 그리 용이한 일이 아니지요.

이때 이와 정면 대좌하였던 울은 머리를 잔뜩 수그리고 이의 좌측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쪼그리고 앉는다.

따라서 천도교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요, 백만으로써 이는 신자의 자제들은 다 그대와 같이 자기 부형 뿐이 천도교의 독신자이고 공로자인줄로 생각하겠지만은 신자 그들로 보면 숙우숙열의 점이 없을 것이다. 그대의 부친으로 말하면 자기가 천도교 신자로서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였을 뿐이지 오직 천도교를 위하여 한 일은 아닐 것이요, 군의 부친은 개결한 어른이라 그의 영혼이 있다면 자기의 역사를 신문에 내느니 비를 하느니 하는 것을 도리어 불공하실 것입니다. 만일 그의 가정이나 동지들의 비를 세운다면 그것은 나도 찬성하고 원조하는 것을 아끼지 않겠소만은 교회적으로 불능한 일이요,

이에 울은 무슨일인지 얼굴에 땀이 죽 흐르면서 무엇을 사색하는 것 같이 머리를 들지 않고 내어 놓았던 서류와 현판을 다시 보에다 쓴다.

울 : (이육고)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신문에다가 내어주시오.

이 : (웃으면서) 그것은 아까도 말하였소만은 꼭 내어서 필요하다면 지금이라도 낼 수 있소만은 성주군 천도교인 서모가 모월 모일 사망하였다는 부고 광고밖에 낼 것이

비석(碑石)을 세운다고 가정(假定)하면 그대의 선친(先親)의 정령(精靈)이 극히 불쾌(不快)하게 생각할 것이다. 그런즉 비석(碑石)을 세운다는 것은 우스운 일인줄 생각하고 또는 신문(新聞)에 발표(發表)하는 것으로 말하여도 하려면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선친(先親)은 교회(教會)에서는 누구인지 알지만은 사회(社會)에서는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 신문사(新聞社)로서는 그대의 선친(先親)을 그렇게 표창(表彰)할 것이 없다고 말할 것이다. 그 혹은 우리의 요구(要求)에 의하여 게재(掛載)한다. 가정(假定)하면 오호활자(五號活字)로 조그만하게 성주(星州) 천도교(天道教)인 아무가 죽었다고 한 줄 쓸 뿐이다. 또는 그것이 광고지(廣告紙)에 지나지 못한다. 그런즉 그것이 하등(何等)의神通(神通)할 것이 무엇이나 그런데 오직 최선(最善)의 방침(方針)은 한가지가 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교에는 기관지 월보(月報)가 있다. 신문(新聞)은 한번 보고 휴지통(休紙桶)으로 들어가면 그만이지만 월보(月報)는 영구보존(永久保存)할 수 있다. 그런즉 월보사(月報社)와 논의(論議)해서 선친(先親)의 사진(寫眞)과 경력(經歷)을 게재(掛載)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런 의미로 양해(諒解)하리만치 말씀하셨다. 그날밤에 래홍군(來弘君)의 사랑에서 자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화암장(化庵丈)께서도 이상(以上)의 의미(意味)로서 말씀하였고 래홍군(來弘君)도 역시 말로서 그의 양해(諒解)를 얻었다. 마침내 월보(月報)에 게재(掛載)하게 하였다. 그 선친(先親)의 사진(寫眞)을 오려고기까지 작성(作定)하였다. 게재(掛載)하는 것은 래홍군(來弘君)이 책임(責任)지고 하기로 하였다. 그러하였더니 별안간(瞥眼間)에 그 흉행(凶行)을 하였다.

⑤ 아직까지 의심(疑心)나는 흉한(凶漢)의 그 태도(態度)

흉한(凶漢)이 종리원(宗理院) 사무실(事務室)에 첫번으로 왔을 때에 첫번 보기에 는 썩 진실(眞實)하게 보였다. 너무 그러므로 도리어 음흉(陰凶)하게 보였다. 사람을 대하여 인사(人事)할 때에는 코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되 두번 세번씩 하였다. 누구 하고 인사(人事)할 때에는 테이블에 이마 짚은 일도 있었다. 그리고 대한 사람의 얼굴이나 상하좌우(上下左右)를 보는 일이 없고 오직 고개를 숙이고 땅만 내려다 볼 뿐이었다. 감사실(監査室)에서 여러분께 도거리로 인사(人事)할 때에도 역시(亦是) 코가 땅에 닿도록 두번 절 하였다. 마침 그날 아침에 그 선친(先親) 서상건씨(徐相建氏)의 부고(訃告) 두장이 왔음으로 조의(弔意)로서 그에게 말하였다. 그는 필경(畢竟)에 그 선친(先親)의 표창(表彰)의 말이 나오고 따라서 선친(先親)의 유적(遺蹟)을 책보(冊報)에서 끄집어 내었다.

부인하는 자이다. 운명을 부인하던 그대의 죽음을 할 수 없이 운명에 돌리고 말을 끊는 나의 설움을 그대는 아느냐 모르느냐. 그대의 죽음을 마침내 운명에 돌리고 말 것이냐. 현파 너는 대답하여라.

④ 현파군(玄波君) 피살(被殺)의 전생경로(前生經路)

천도교(天道敎) 청년총동맹(靑年總同盟) 대표위원(代表委員) 현파(玄波) 박래홍군(朴來弘君)은 10월 5일 오후 0시 20분 흉한(兇漢) 서울봉(徐乙鳳)에게 피살(被殺)되었는데 피해자(被害者)와 가해자(加害者) 간에는 아무 까닭모를 참극(慘劇)을 일으켰더라. 흉한(凶漢)은 성주(星州) 교인(敎人)이 고(故) 서상건씨(徐相建氏)의 친자(親子)라고 칭(稱)하며 4일 오후 1시쯤 종리원(宗理院)을 찾아와서 그 선친(先親)의 공로(功勞)를 표창(表彰)하여 달라고 요구(要求)하였다.

그 요구조건(要求條件)은 단 두가지이다. 하나는 그 선친(先親)이 다년(多年) 신교(信敎)하였으니 교회적(教會的)으로 비석(碑石)을 세워줄 것과 다른 하나는 선친(先親)의 공로(功勞)를 신문(新聞)에 발표(發表)해 줄 것. 이것 뿐이다. 그때 동좌(同座)하였던 여러분 중에 보안장(普庵丈)께서 양해(諒解)하리만치 말씀하였다.

자식(子息)된 도리(道理)에 그 선친(先親)을 위하여 비석(碑石)을 세우도록 애쓰는 것은 나로서는 동정(同情)한다. 그러나 교회적(教會的)으로 비석(碑石)을 세운다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다. 그 이유(理由)는 우리 교의 삼세성사(三世聖師)도 아직까지 교회적(教會的)으로 비(碑)는 그만두고 단갈(短碣)하나 세운 것이 없다. 그것은 별 문제(問題)로 하고 그대의 선친(先親)이 단연 신교(信敎)하다 환원(還元)한데 대하여 무한(無限)히 애석(哀惜)한 동시(同時)에 생전(生前)에 신교(信敎)하던 그 성력(誠力)을 무한(無限)히 감사(感謝)한다. 그러나 그대의 요구(要求)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교인(敎人)은 삼백만(三百萬)이나 대단(大團)이다. 그 삼백만(三百萬)에서 유년(幼年)이 절반(折半)을 차지했다고 가정(假定)하면 백오십만(百五十萬)은 온통 30년 혹은 4~50년을 교회(敎會)에 헌신(獻身)한 어른들이다. 그러면 하후하박(何厚何薄)으로 그대의 선친공로(先親功勞)를 표창(表彰)하기 위하여 비석(碑石)을 세워준다면 150만 어른들도 다 비석(碑石)을 세워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 또한 그대의 선친(先親)은 교를 안 사람이다.

(中略)

그러므로 그대의 선친(先親)이 생전(生前)에 가진 생각은 교를 위할 뿐이요, 사후(死後)에 비석(碑石) 같은 것은 결코 생각치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中丸) 원장이 해부를 하였던 바 절린 곳은 맨 처음 찢은 왼편 옆구리를 비롯하여 뒷등과 목선 십여 곳이나 난자되었으나 정작 치명상은 왼편 옆구리에 절린 것이 심장(心臟)을 관통(貫通)케 된 것이라더라.

칠령팔락(七零八落)하는 범인(犯人)의 진술(陳述)

별항 사건의 범인은 현장에서 체포하는 즉시로 취조를 하여 보았으나 그가 동경(東京)에 있을 때에 털공장에 직공으로 있으며 학교를 통학하였다는 등 자습을 하였다는 등 그 말이 한결같지 않으나 필경 취조의 결과로 보면 어떤 학교에 학적을 두지 않고 고향에서도 채 보통학교도 마치지 못한 무학자라더라.

동아일보(東亞日報) 소화(昭和) 3년 10월 17일(1928년) 제2917호

슬하(膝下)엔 어린 오남매(五男妹) 숙현(續絃)에 불과반재(不過半載)
「천도교내의 일방의 중진으로서 그의 죽음은 상당히 영향이 크다.
[피해자(被害者) 박래홍씨(朴來弘氏) 가정(家庭)]

의외의 참변을 당한 박래홍씨는 박인호씨의 양자로 작년 가을에 상처하고 금년 이월에 비로써 이씨(李氏, 19)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는 바 장자 의섭(義燮, 14)군을 비롯하여 오남매가 있는데 씨는 구파 교주의 영식인만큼 천도교내에 있어서도 중요한 직무를 가지고 있었던 관계로 씨의 참화는 천도교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리라고 하며 신간회(新幹會) 총부(總部)의 간사(幹事)의 직무도 가지고 있어 친지들은 씨의 참화를 비상이 슬퍼하는 터인데 장의는 오는 구일 오전 열시에 교회장으로 시의 수철리(水鐵里) 공동묘지에 안장할 터이라더라.

동아일보(東亞日報) 소화(昭和) 3년 10월 17일(1928년) 제 2917호

백주천도교당내(白晝天道教堂內) 참변(慘變) 의운(疑雲) 중첩(重疊)한 살해원인(殺害原因)

동기(動機)는 의연(依然) 불명(不明)

살해계획(殺害計劃)만은 조직적(組織的)

「이야기 할 때에도 고개를 들지 않고

동기는 하여간에 계획만은 조직적」

표면(表面) 요구(要求)는 기사(記事)와 비석(碑石)

선친(先親)의 호와 도호(道號)를 각(刻)한 현판(懸板) 두개와 그 선친(先親)의 시(詩)를 쓴 현판(懸板) 한개를 끄집어 내어 보이고 그 외에도 여러가지 서류(書類)를 끄집어 내었다. 그런데 이상(異狀)한 형태(形態)는 현판(懸板)을 다시 쌀때에 무엇을 생각하는지 보귀를 붙들어댈 줄을 알지 못했다. 정방형(正方形)인 보(褌)에 두자가량이나 되는 현판(懸板)을 쌀려면 그 보귀를 조금씩 붙잡아 매어야 간신히 네귀를 다 붙들어 매게 되었는데 두귀만을 벗겨 잡아매어 놓고는 두귀를 또 잡아다 댈때에는 한 뼘가량이나 부족(不足)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不拘)하고 자꾸 잡아당겨서 붙잡아 매려고 하였다. 댄다는 것보다 두귀를 갖다 붙여보려고 하였다. 한참동안이나 그 모양을 하였다. 또 한가지는 별안간에 그의 얼굴에는 구슬땀이 비적 흘렀다. 그것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렸는지 알 수 없다.

래홍군(來弘君)의 사랑에서 자고 오전(午前) 11시까지 거기서 주저(躊躇)하였다. 열시쯤 되어서 소주(燒酒) 한병을 사들고 와서 래홍군(來弘君)한테 먹자고 하였다. 마침 그 동리(洞里)에 대청계(大清溪)임으로 래홍군(來弘君)은 자기방에서 책(冊)과 기타 집물(什物)의 먼지를 털고 있었다. 흉한(凶漢)이 넘어 나오라고 하므로 나가서 술한잔을 마셨다. 그 좌석(座席)에는 이병헌(李炳憲), 박성익(朴性翊) 양시(兩氏)가 같이 있었는데 흉한(凶漢)은 한잔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권하고는 자기가 한잔 마시곤 하였다. 래홍군(來弘君)을 또 보자고 한다. 군은 이미 종리원(宗理院)으로 갔다고 한 즉 그는 전화(電話)로 좀 불러달라고 하므로 가면 만날 것을 부를 필요가 무엇이라고 한 즉 그는 또 남은 술을 다 마시고 나갔다. 그런데 중문(中門)에서 무엇을 생각하는지 한참동안 주저(躊躇)하다가 갔다고 한다. 흉한(凶漢)이 문을 나선지 한 30분 가량 후에 그 흉보(凶報)를 들었다고 한다.

(3) 박래홍(朴來弘) 피살(被殺)의 저간(這間)의 사회논조(社會論調)

동아일보(東亞日報) 소화(昭和) 3년 10월 7일(1928년) 제 2907호

피살자(被殺者) 전신(全身)엔 십여처상흔(十餘處傷痕)

난도를 친듯한 무수한 상처 치명상(致命傷)은 최초(最初) 일격(一擊)

오일 오후 영시반경에 시내 경운동(慶雲洞) 천도교종리원(天道教宗理院) 본관 이층 편집실에서 경남 성주(星州) 출생인 서울봉(徐乙鳳, 24)이가 들인 천도교 전교주 박인호(朴寅浩)씨의 아들 천도교청년동맹(天道教青年同盟) 위원장 박래홍(朴來弘, 35)씨를 찢어 죽였다 함은 작보한 바와 같거니와 선혈이 임리한 중에 물힌 시체는 현장에 출동한 경성 지방법원 도부(渡部)검사의 지휘로 당일 시내 서소문정 전증환(田

우리의 믿는 바 주의가 임의 사람은 꼭 같은 하늘의 이지 기운으로 된 이 세상에야 사람 사이에 승하가 있으며 있는 자 없는 자의 귀천이 있으랴. 그러나 이 세상은 그대로 되지 못하였다. 이 세상에는 돈 있는 자 칼 있는 자는 사람의 위라고 자처한다. 그리고 그것이 없는 자는 저희들 보다 아래라고 천하다고 구박하며 시달린다. 그 어찌 하늘의 본 뜻이며 이치이랴. 구박하는 자와 구박받는 자의 그 된 이치는 꼭 하나이며 그 조성된 세포(細胞)도 다르지 않다. 만약 다르다면 진리가 아니다. 그럼으로 우리 대신사(大神師)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부하고 귀한 사람 예전시절 빈천이요 빈하고 천한 사람 오는 시절 부귀니라고. 그리고 구박받고 시달리는 우리 사람들 가운데도 우리 동학쟁이는 더욱 심하게도 구박받는 무리이다. 동학쟁이 주먹에는 한치의 칼날이 없으며 그의 주머니 속에는 쇠천 한푼이 없다. 더욱이 그들은 의지할 만한 오막살이 한칸 가지지 못하였으며 살 가리울 누덕베 한 조각 없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이라고는 한 가지도 없는 벌거숭이들이다. 도무지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서의 살아나아갈 요소는 한가지도 갖지 못하였다.

더욱이 이 세상살이의 큰 무기인 싸움 지식(知識)조차 공이다. 그러면 우리로는 이 세상에서 어찌 썩보지 못하여 살아나갈 수가 있을까? 우리의 살길은 막연하다. 앞길은 캄캄할 뿐이다. 닿는 곳마다 돈과 곡식의 험한 어덕과 덤부살이는 우리를 몰아 구렁에 넣는다. 어찌 썩 살까부냐 지금의 현상으로서 다만 앞에 보이는 것은 죽음의 구렁창이 뿐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죽을 뿐인가 살아갈 길은 아주 없을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죽었다고 보리라 죽었다는 이보다도 우리의 존재(存在)를 알지도 못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그 살았다는 자들을 조상한다. 그들의 산 것은 다만 부분(部分)에만 산 것이다. 전체(全體)에는 못 산 것이다. 이 세상의 개별(個別)로는 살았을 지언정 이 세상을 조성(組成)하고 우주만물(宇宙萬物)의 원리인 하늘로는 살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네들의 그 부분에 삶을 가지고 전체에 죽은 것을 깨달지 못하고 날뛰는 그들을 조상치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부분으로서 한 가지도 없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삶의 요소(要素)인 것은 하나도 없다. 권세도 돈도 총도 칼도 무엇도 다 없다. 다만 가진 것은 하늘 그대로의 표현(表現)인 빨간 알몸둥이 하나 뿐이요, 하늘 천체 그대로인 즉 우주만물의(宇宙萬物) 화생(化生)하는 원리(原理) 그대로의 정신을 소유(所有)하였을 뿐이다. 하늘에 권세가 있으며 총칼이 있을까보냐 큰 바다(大海)의 물에 한 줌을 쥐어낸들 애처러울 바 무엇이며 다시 부은들 새삼스러이 기울 바 있을까부냐?

천도교당에서 백주에 박래홍(朴來弘)씨를 살해한 원인에 대하여는 가해자인 김천(金泉) 서울봉(徐乙鳳)의 행동이 너무나 의외인 것과 또는 전에 아무 면분(面分)이 없었던 관계로 보아 아직도 의문에 싸이어 있는 바다. 시 상세한 전후의 말을 듣건대 지난 사일 오전 열시경 쫓에 전기 서울봉이가 천도교 사무실 이층 종법사실(宗法師室)에 나타나서 보자기를 끌러놓고 자기 아버지 서상근(徐相根)이가 일찍이 천도교 독신자로 의사원(議事員)이라는 직무까지 보아 천도교에 공로가 많으니 첫째는 각 신문지에 소상히 소개하여 줄 것, 둘째는 비석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그의 언동이 너무 이상하므로 말대답을 하던 이종린(李鍾麟)씨는 자리를 피하고 말았던 바 그는 바로 궁정동(宮井洞) 13번지 박래홍씨의 부친 박인호(朴寅浩)씨 집에 가서 하룻밤을 유하고 그 이튿날인 지난 오일 아침에 다시 천도교당 이층 사무실에 나타나자 이종린 박래홍씨 등 서너 사람이 서서있다가 박래홍씨가 문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바로 따라 나가 그와 같은 흥행을 한 것이라는데 범인은 얼굴이 험악하게 생겼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할 때에는 절대로 바로 보지 아니하는 등으로 동기는 어디갔던지 계획만은 조직적인 것 같다 하며 그는 오육년전에 동경(東京)으로 가서 다년간 직공생활을 하다가 자기 아버지가 죽었으므로 지난 음력 8월 13일에 돌아왔다는 바 여러 가지로 미루어 보아 살해원인은 중첩한 의문속에 쌓인 모양이라더라.

(4) 박래홍(朴來弘)의 활동(活動)과 사상(思想)의 편린(片鱗)

민 자

朴 玄 波

천도교회 월보 제206호

1928년 2월 15일 발행

우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어떠한 처지의 사람인가를 생각치 않을 수 없으며 늘 생각하여야 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늘 우리를 잘 알아야 될 것이며 늘 우리의 처지를 잘 살펴야 될 것이다. 이것이 없는 자는 살았다고 할 수 없으며 의식(意識)이 있는 생물(生物)이라고 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천도교 신자이다. 즉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그 주의를 세상에 펴고 그 주의로써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맞지 않은 정신제도(精神制度)를 고쳐서 새 세상을 만들고 온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꼭 같은 하늘 사람되게 하려는 사명(使命)을 가지고 세상에 나온 천도교의 사도(使徒)이다.

하늘의 일은 우리의 일일 것이다. 그러므로 의암 선승사께서 말씀하신 『우리교는 마음 먹는대로 된다』하셨다. 우리의마음은 하늘의 마음인 까닭이다.

대신사 말씀에 『나는 도시 믿지 말고 하늘님만 믿었어라』하셨다. 사람인 나를 믿지 말고 만물의 주재이신 하늘만 믿으라 하심이니 모든 일은 하늘의 뜻대로 됨으로써이다. 우리 교의 그동안 파란은 우리가 사람인 사람을 믿는 까닭이다. 우리는 사람인 사람을 믿지 말고 하늘님만 믿자. 대신사께서 우리를 속이지 않으셨다. 그리하여 우리는 각각 사람으로서의 우리를 용맹스럽게 버리고 전체 하늘로서의 삶을 얻자. 우리는 하늘로서의 된 우리이다. 우리의 일은 하늘이 뜻한 바 세상이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규모를 일치하게 하고 정신을 통일하게 하여 하늘을 믿자. 하늘은 거것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다만 믿음의 힘 뿐이다. 믿어보자. 바다로 능히 산을 지을 수가 있고 태산으로 넉넉히 대해를 만들 수 있다. 대신사의 우수중도행불습(雨水中徒行不濕)과 이십여차 혹심(酷審)에 부러진 다리가 순간에 여전히 완인이 되심은 하늘과 둘이 아니신 까닭이다. 우리 교인 전체가 다 각각 하늘믿는 마음 이름이 없이 하나일 바에는 만사람이 하나일 것이오 만 사람이 하나이면 그의 행동이 하나일 것이다. 그의 행동이 하나이면 세상일은 참으로 우리의 마음 먹은대로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가 못되고 둘셋으로 갈리움은 우리의 믿는 마음이 하나가 아닌 까닭이다. 아니 믿는 마음이 없는 까닭이다. 믿자, 우리의 믿을 곳은 하늘뿐이오, 의지할 곳도 하늘 뿐이다. 우리의 모두를 호소할 곳도 하늘 뿐이다. 우리의 살 길은 오직 이 하늘을 굳세게 믿는 한길 뿐이다.

강 연

朴 來 弘

천도교회 월보제 110호

1919년 7월 15일

본론(本論)에 입하기 전에 우리에게 이 강연부(講演部)가 있지 못할 것이요. 또한 시대적(時代的)이며 필연적(必然的)임을 선(先)히 일언(一言)코져 하나이다.

이상(理想)을 부철저(不徹底) 부원만(不圓滿)함에 수(隨)하여 실현(實現)된 선천(先天)의 모든 제도(制裁)는 임의 석양풍(夕陽風)에다 지나고 암야혼(暗夜昏)소의 모든 시대(時代)는 어느덧 작(昨)소의 몽(夢)이 되었습니다. 바로 말하자면 금일(今日)은 청신신기(淸晨身氣)에 새롭고 상연(爽然)한 서광(曙光)이 동천(東天)에 비칠

한줌의 물을 퍼낸대야 돌아올 곳은 다시 그 바다이다. 간대야 갈 곳이 따로 없으며 온대야 올 곳이 따로 있지 아니하다.

우리의 소유(所有)는 하늘 전체 그대로의 진리(眞理)이다. 이 우주 만물이 하늘의 표현인 이상 우리는 우주 전체를 소유하였을지언정 부분의 세상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 전체로 살지언정 팔 하나만 눈 하나만 입 하나만 살지는 않는다. 우리의 동하고 정하는 것은 나의 몸 전체가 동하고 정할지언정 팔이면 팔, 다리면 다리, 눈이면 눈, 하나만 날날으로 움직이지 않고 살지도 않는다. 우리의 정신은 우주만물의 화생한 원리 그대로이요, 우리의 파지(把持)한 진리(眞理)는 세상 전체의 조성된 그 진리 그대로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에 근거(根據)한 행동이어야 한다. 그리하여서 우리 교인으로는 전체로 일치된 행동이 통일된 정신으로서야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지할 곳은 다만 하늘 뿐이요, 믿을 곳도 다만 하늘 뿐이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돈에도 의지하며 권세에도 의지하고, 칼에도 의지하며 총에도 의지하여 산다. 그를 믿고 사람으로서의 하지 못할 모든 행동도 제멋대로 한다. 어찌 불쌍치 않으랴? 제 정신 제 힘은 천리나 만리에 버리고 다만 총칼이나 돈·권세에만 의지하여 사니 어찌 불쌍치 않으랴? 그것들을 없이하는 때이면 그들은 어찌 될 것인가?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우리는 행동을 한가지 하고 정신을 한가지하여 믿자. 우주만물의 원리이요, 그의 주재자(主宰者)인 힘, 그를 믿자. 의지할 곳도 그밖에 없고 믿을 곳도 그밖에 없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하늘로 하고 행동을 그대로 할 바에야 어찌 한 냇의 돈이나 한치의 배를 쥐고 벌벌떨며 놓지 못하고 사람을 잃으며 하늘을 잃으리오. 우리는 풍뎠이나 벼자라도 있으면 있는대로 용맹스럽게 버리어 그의 힘으로 기울어져 가는 이 세상을 구해내자. 시들어가는 그 거래를 살리자.

우리는 다시금 정신을 가다듬어 믿자. 하늘은 만물을 나게하고 역세게 한다. 그렇게 한다느니보다 그렇게 되는 것이다. 하늘이 사람 낼적에 꼭같이 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이 가진 하나도 갖추어지지 않았다. 다만 하늘 그대로의 표현을 만끽했다. 그 정신만 가지게 하였을 뿐이다. 그러면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를 나게 한 하늘님만 믿자.

우리는 호소할 곳도 하늘이요 의지할 곳도 하늘이다. 우리의 모든 뜻한 바가 잘되고 못되는 것은 모두가 하늘이다. 하늘이 사람에게 있는 한 아무것도 갖추어 주시지 않고 다만 세상을다 살리라는 사명만 우리에게 주셨을 바에야 그를 다시금 독실히 믿자. 그리하여 하늘과 우리가 둘이 아니면 그 곳에 우리의 일은 하늘의 일이 될 것이요.

거기에 그 필연적세(必然的勢)로 구성(構成)된 이유(理由)를 론(論)하건대 그 기(氣)의 응결(凝結)된 것은 우리의 체질(體質)이 되고 그 이성(理性)이 다시 그 체육(體肉)이 부화(孵化)되어야 그 육체(肉體)를 운용자재(運用自在)하나니 이것은 마치 잠(蠶)이 실(室)을 구하고 그 내(內)에 입(入)하여 생(生)하다가 다시 실(室)을 설출(說出)하고 아(蛾)아 되야란(卵)을 산(産)하고 난(卵)이 다시 부화위잠(孵化爲蠶)하여 여차(如此)히 유생무궁(幼生無窮)함 같이 오인류(吾人類)도 체질(體質)에 이성(理性)이 부화(孵化)되어 그 체(體)를 운용(運用)하다가 그 성(性)이 다시 산이 위기(散而爲氣)하여 그 원(元)에 귀(歸)하면 시세무인(是世無人)이요, 우(又) 그 기응(氣凝)하여 체(體)가 되고 우(又) 이성(理性)이 부화(孵化)되어 그 체(體)를 운용(運用)하게 되면 시세유인(是世有人)이라 하나이다.

그 만물(萬物)을 화응위형(化凝爲形)하고 산이위기리(散而爲氣理) 하는 기응(氣凝)하여 체(體)되고 성(性)이 부(附)한 연후(然後)에 인(人)되게 하는 그 총주재자(總主宰者)를 강명(強名)하여 왈(曰) 본연성(本然性)이라 하고 그 형성(形成)이 식(植)으로된 자에는 생성(生性), 동(動)으로된 자(者)에는 왈(曰) 생각성(生覺性), 인(人)으로된 자(者)에는 생성각성영성(生性覺性靈性: 타물지배성(他物支配性))이 구(具)하였나니 이러한 성(性)은 그 본연성(本然性)에서 분리(分離)되어 그 응기위체(凝氣爲體)된 질(質)을 수(隨)하여 이(異)하나니 차(此)를 명(名)하여 기질성(氣質性)이라 함시다. 그러면 이 두가지 성(性)이 본시이물(本是二物)이니까 아니올시다. 이것은 본시혼원일물(本是混元一物)로 질(質) 성(成)하기 이전(以前)에는 인여물(人與物)이 동연일리기기이(同然一理氣已而)라 질(質)을 형성(形成)한 이후(以後)에는 그 질을 수(隨)하여 각각(各各) 이(異)한것이라 고(故)로 인여물(人與物)은 그것의 화몰여하(化沒如何)에 의(依)하여 생멸변화(生滅變化)하나니 유물유세(有物有世)는 이것의 소치(所致)라 그럼으로 그가 천(天)을 이(離)하여 물(物)되며 인(人)된 자(者)이 없다고 하나이다.

그 혼원일물(混元一物)의 재(滓)자는 응(凝)하여 만물지질(萬物之質) 즉 세(世)를 구성(構成)하였고 청자(淸者)는 이성(理性)으로 무형(無形)에 있어 세(世)를 총지배(總支配)하는 신(神)[천주혹칭상제(天主惑稱上帝)]이 됨과 같이 우리 인류(人類)도 기응(氣凝)하여 체질(體質)이되고 성(性)이 부(附)하여 심령(心靈)이 되었나니 그 체여심(體與心)은 인(人)의 요소(要素)이올시다.

그럼으로 심령(心靈)을 수련(修鍊)하여 만물(萬物)이 총주재자(總主宰者)인 대신(大神)의 력(力)을 자전(自專)할 뿐 있으며 육체(肉體)를 선보선양(善保善養)하여

꿈에 비참근식(飛潛動植) 운운(云云)한 제상(諸像)이 빛을 얻어 자유(自由)스럽게 활동증식(活動增殖)하는 후천벽두(後天劈頭)인 금일(今日)이올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 후천벽두(後天劈頭)에 입각(立脚)하여 장차후천(將次後天)에서 생활(生活)하며 후천(後天)으로 되게 하며 후천(後天)으로 하여금 선천(先天)에 퇴화(退化)하지 아니하고 신명(新明)한 후천(後天)되게 함을 다시 말하자면 측면적(側面的) 생활(生活) 반신적(半身的) 생활(生活)을 하던 선천(先天)의 제도(制度)를 혁(革)하여 원만무결(圓滿無缺)한 신제도(新制度) 신사회(新社會)에서 낙천적(樂天的) 생활(生活)을 하게 인도(引導)할 자(者)는 우리가 아님인가?

이러한 우리도 개벽초신(開闢初晨)의 서광(曙光)이요. 모든 법문(法文)의 화두(話頭)이며 후천영원(後天永遠)의 주의(主義)인 즉 유무유유(有無有有) 유성(有性) 유신(有身) 유천(有天) 유세(有世)의 일편적(一片的)이 아니요 보편적(普遍的)인 반면적(反面的)이 아니요. 원만적(圓滿的)인 단 이약(而約)한 우리 종지(宗旨) 즉 인내천(人乃天) 삼자(三字)를 우리가 연구(研究) 선전(宣傳)치 아니치 못할 것이올시다.

감(敢)히 연구선전(研究宣傳)한다 자부(自負)함을 크게 당돌(唐突)함을 불감(不堪)하오나 행(幸)인지 불행(不幸)인지 시대(時代)는 우리로 하여금 마지못하게 되었으며 세상(世上)은 우리를 구세주(救世主)로 갈망(渴望)하게 하겠나이다.

대개(大概) 천(天)이라 인(人)이라 무엇이랴 무엇이랴 구별분설(區別分說)함은 인(人)으로된 우리의 일이올시다. 우리가 한번 우리라는 이 육곡(肉穀)을 벗어나서 선천지생(先天地生)하여 만물(萬物)의 주(主)가 된 본원천(本元天)에 배회(徘徊)하여 봅시다. 세(世)의 운운기물(芸芸其物)이 거기에서 그것으로 화이위형(化而爲形) 형이후화(形而後化) 하나니 응기이위질(凝氣而爲質)하고 후산이위기(後散而爲氣)하여 만물(萬物)이 비록 운운(芸芸)하니 각각(各各) 기근(其根)〔본원천(本元天)〕에 귀(歸)하나니 고로 물의 성장노사(生長老死)와 굴신동정(屈身動靜)이 그것이 아니옵고 거기에서 벗어남이어서 마치 수포(水泡)가 수에서 수(水)로 형성(形成)하였다가 다시 꺼져서 수(水)가 됨과 같다고 합니다. 그럼으로 우리의 人生이라는 것도 그 운운(芸芸)한 중의 일물(一物)이라 그것을 득(得)한 즉 생(生)하고 득(得)치 못한 즉 멸(滅)하나니 고로 그것의 화물여하(化沒如何)에 의(依)하여 생멸(生滅)하는 동시(同時)에 그것의 구성요소(構成要素)가 되었다 하겠습니까. 그것 즉 천(天)이 아무리 위(巍偉)하나 인(人)이 무(無)하면 천(天)의 전능(全能)을 발휘(發揮)할 수 없으며 따라가서 천(天)이 천(天)노릇 할 수 없는 것은 정리(正理)이며 필연(必然)의 세(勢)이올시다.

活)은 도저(到底) 불능(不能)이라 고로 혹자(或者)는 국가(國家)란 기관(機關)을 조직(組織)하고 대권(大權)을 부여(附與)하여 그 대권(大權)으로 질서(秩序)를 정(定)하며 혹자(或者)는 교문(教門)을 입(立)하여 중심(衆心)의 귀(貴)할 바를 정(定)하여 상의상부(相倚相扶)하는 심리(心理)를 발이교지(發而教之)하여 일기관(一機關) 정(定)하니 어시호(於是乎) 인류사회(人類社會)는 질서(秩序)가 초정(稍定)하고 생활(生活)이 초안(稍安)하였도다. 종(從)하여 인(人)은 독립생존(獨立生存)키 불능(不能)한 사교(社交)의 동물(動物)임을 내지(乃知)할지로다. 그러면 그 사교(社交)의 기관(機關)은 하(何)인지 일차(一次) 연구(研究)치 아니치 못할지니 차(此)는 즉 타(他) 동물(動物)의 불유(不有)한 독특(獨特)의 언어(言語)가 유(有)하고 우차(又此) 언어(言語)만으로는 이 시대(時代)의 인격지(人隔地)의 인간(人間)에 의사(意思)를 소통(疏通)하여 처세(處世)키 불능(不能)할지라 고로 문자(文字)의 제정(制定)하여 언어(言語)의 부호(符號)로 인류(人類)의 유일(唯一)한 기관(機關)을 작(作)하였나니 차(此)는 즉(即) 생래(生來)의 사회성(社會性)이 인류(人類)에게 부유(附有)한 소이(所以)니라.

시(是) 즉(即) 인(人)의 육체(肉體)에 무형(無形)이 있어 외부(外部)의 육체(肉體)를 사(社)하여 물(物)을 용(用)하는 성(性)이니 성(性)은 각별(格別)한 자(者)가 아니요 즉(即) 일(一)이며 타동물(他動物)도 성(性)은 동일(同一)한 성(性)이나 인(人)은 차(此)에 영명(靈明)한 지혜(知慧)를 부(附)하여 차(此)로서 능히 사물(事物)을 변별(辨別)하여 자타호악선악(自他好惡善惡)을 지(知)케된 것은 동일(同一)하니 차지성(此知性)으로 공동생존(共同生存)에 적당(適當)한 사위(事爲)를 행(行)하는 것이 즉 생래(生來)의 사회성(社會性)이니 고로 인(人)은 상의상부(相倚相扶)하여 타동물(他動物)의 침해(侵害)를 어(禦)하고 타강자(他强者)를 적(敵)으로하여 능히 대(對)함을 득(得)할 중합력(衆合力)이 생(生)한지라 유(由)하여 개인(個人)은 집(集)하여 소단체(小團體)로 소단체(小團體)는 합(合)하여 대단체(大團體)로 화(化)하고 차단체(此團體)에서 탈퇴(脫退)되는 자(者)는 즉사(即死)하는 자(者)로 인(認)하게 되니 차호상(此互相)의 관계(關係)로 조직(組織)된 단체(團體)가 즉 소위(所謂) 사회(社會)이요. 우일세(又日世)니라.

차(此) 사회(社會)에는 이대기관(二大機關)이 유(有)하니 종교(宗教)와 국가(國家)가 시(是)라 국가(國家)는 오인(吾人)의 외부(外部) 즉 신체(身體)를 제어(制御)하는 유(有)로 일정(一定)한 질서(秩序)를 작성(作成)하고 차(此)에 복종(服從)치 않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신체(身體)를 구속(拘束)하여 명(明)한 벌(罰)과 형(刑)으로

만유(萬有)의 세(世)를 완전(完全)히 운용(運用)할지니 연칙성신(然則性身)을 쌍전(雙全)하여 대천대세(大天大勢)의 양계(兩界)를 정복운용(征服運用)함을 가득(可得)하리니 고(故)로 만과학(萬科學) 만사물(萬事物)은 육체(肉體)인 오인(吾人)의 능어충용(能御充用)할 바이며 만종교(萬宗教) 만이상(萬理想)은 영성(靈性)인 오인(吾人)의 자각자전(自覺自專)할 바이니 수(隨)하여 선천(先天)의 유신무성(有身無性) 유성무신(有性無身) 유원무세(有元無世)의 편부적(片部的)인 천상극락설(天上極樂說)과 인외무령설(人外無靈說)이 반면적(半面的)인 모든 이상(理想)을 따라 현실적(現實的) 제종문(諸宗門)은 성신쌍전유무겸존(性身雙全有無兼存)인 원만무결(圓滿無缺)인 대중지활주의(大宗旨活主義)인 인내천(人乃天)이 대광명(大光明) 대중문하(大宗門下)에서 통일적(統一的)으로 기정(其正)을 득(得)하였으며 기추(其趨)를 정(定)하였다하리니 이곳 후천영겁(後天永劫)이 인생(人生)을 지배(支配)할 주의(主義)의 의(意)라고 아직 이만 약해(略解)하옵고 후(後)이 정연철저(精研徹底)를 준(俊)하나이다.

과경(過境)을 하(賀)하고 장래(將來)를 축(祝)하노라

朴 玄 波

천도교회월보 제100호

1918년 12월 18일

천(天)은 무언이이인(無言而以人)으로 대지(代之)하시며 무형이이물(無形而以物)로 형지(形之)하시며 무체이이만물(無體而以萬物)로 체지(體之)하시고 무위이이화(無爲而以化)로 성지언(成之焉) 하시나니 고(故)로 만조화만유물(萬造化萬有物)은 즉(卽) 천(天)이니라.

인(人)은 천(天)을 체(體)한 자(者)라 무형(無形)의 영성(靈性)과 유형(有形)의 체질(體質)을 구(具)하였나니 전자(前者)는 즉 정신(精神)이요 후자(後者)는 시육신(是肉身)이라 정신(精神)은 육체(肉體)를 사(使)하여 만물(萬物)을 용(用)하고 육체(肉體)는 정신(精神)의 명(命)에 응(應)하여 만물(萬物)로 하여금 정신(精神)의 욕망(慾望)을 만족(滿足)케 하기 위하여 노력(努力)하나니 유시이강자(由是而強者)는 존(存)하고 약자(弱者)는 망(亡)하며 우자(優者)는 승(勝)하고 열자(劣者)는 패(敗)하며 부자(富者)는 귀(貴)하고 빈자(貧者)는 천(賤)하게 된지라. 이러므로 인류(人類)는 난파(亂波)에 난파(亂波)를 중(重)하여 평화(平和)의 안락(安樂)한 생활(生

(入)케하고 차(此)와 반(反)한 자(者)는 타옥(他獄)으로 송(送)하나니 인(人)은 죄악(罪惡)이 다(多)한 자(者)라 어찌 개과(改過)치 않으리오 하여 유일(唯一)의 신앙심(信仰心)을 여(與)하여 인심(人心)을 정(正)하며 혹자(或者)는 만물(萬物)은 비록 운운(芸芸)하나 그 근(根)에 귀(歸)하나니 그 근(根)은 즉(卽) 정(靜)이라 정(靜)이 동(動)하여 화(化)하며 화(化)하여 형(形)을 성(成)하나니 차(此) 즉(卽) 물(物)이라 차물(此物)이 비록 성(盛)하나 종(終)에 그 정(靜)에 귀(歸)치않이 하는 자(者) 무(無)하니 고(故)로 인(人)도 그 정(靜)을 수(守)하여 기(氣)를 전(專)히하면 가이위선(可以爲仙)에 음양양기(陰陽兩氣)를 오소자재(吾所自載)하리라 하는 초세자(超世者)도 유(有)하였도다.

이상제자(以上諸子)는 그 시대사회(時代社會)의 난파(亂波)를 감(鑑)하여 그 시대인심(時代人心)을 정(正)할 만큼 식(識)을 고(高)히 한 자(者)이니 즉 그 시대인심(時代人心)의 박(薄)한 자(者)를 후(厚)히 악(惡)한 자(者)를 선(善)히 누(陋)한 자를 청정(淸淨)히 번뇌(煩惱)한 자를 정한(靜閑)히하여 그 부족(不足)을 보(補)하여 장(長)을 조(助)한 자(者)이로다. 그러나 인심(人心)은 오직 유형(有形)한 물질(物質)의 이욕편(利慾便)에만 경(傾)하여 유(有)의 극도(極度)에 달(達)한지라 어시(於是)에 각종(各種)의 과학(科學)이 발명(發明)되며 일사일물(一事一物)이라도 실험(實驗)하고 증명(證明)하여 이 우주(宇宙)에는 자연(自然)한 원소(元素)가 유(有)하고 차원소(此元素)는 화합혼합(化合混合)하여 만유(萬有)의 물(物)을 멸(滅)하였거늘 하등(何等)의 신(新)이니 성(性)이니 하는 자(者) 이 기유(豈有)티오하여 무신(無新)을 창(創)하는 자(者)까지 있었도다. 그러나 인지(人智)는 일절(一節)을 심입(深入)하여 자연(自然)의 원소(元素)는 하자(何者)의 소사(所使)이며 혼화합진화(混化合進化)는 하자(何者)의 소위(所爲)인지 차(此)를 지(知)코자 하는 일대(一大)문제(問題)가 초(超)하여 사방(四方)에 구(求)할새 부득(不得)하고 종교(宗教)에 신(信)하는 바 성여신(性與新)은 미신(迷信)인듯하나 실(實)이 있고 허위(虛僞)인듯하나 신령(新靈)함이 있어 가이명과(可以名科) 학만유체(學萬有體)의 원(源)이 될지라 그러므로 보(步)를 회(回)하여 종교(宗教)에 구(求)할새 재래(在來)의 각(各)종교(宗教)는 기(既)히 선천적(先天的) 노물(老物)이라 혹(惑)은 유성무신(有性無身) 혹(惑)은 유신무성(有性無性) 혹은 유명무실(有名無實) 혹은 유신무세(有身無世)하여 개일(皆一)에 편(偏)하고 중(中)에 부적(不適)한지라 종(從)하여 인족(人族)은 귀(歸)할 바를 부지(不知)하고 의(依)할바가 무(無)하여 중도(中途)에 방황포복(彷徨逋復) 하는도다 차(此)와 여(如)히 무주무의(無主無依)하여 부불부자불자(父不父子)

그 질서(秩序)에 위반(違反)치 못하도록 하는 외부(外部) 기관(機關)이요 종교(宗教)는 오인(吾人)의 내부(內部) 즉 심리(心理)를 조종(操縱)하여 사회(社會)에 불리(不利)한 행위(行爲)는 각자(各自) 내심(內心)으로써 제어(制御)하여 사회(社會)의 평화(平和)와 개인(個人)의 심리(心理)를 위안(慰安)하는 내부(內部)의 기관(機關)을 위(謂)함이라 고(故)로 차(此) 양자(兩者)는 인(人)되고는 성령(聖靈)과 육신(肉身)을 구(具)함과 같이 인류사회(人類社會) 되고는 하자(何者)이나 결(缺)치 못할 자 자생민(自生民) 이래(以來)로 이상대율(以上大律)에 의(依)하여 사회(社會)는 조직(組織)되었을 것이니 그의 외부기관(外部機關)에 대하여는 차(此)에 논(論)할 필요(必要)가 무(無)하기니와 그 내부기관(內部機關) 즉 종교(宗教)에 대하여 일언(一言)을 시(試)코자하노라.

종교(宗教)는 대개(大概) 그 시대(時代)의 인심여하(人心如何)에 의하여 산출(產出)되는 시대(時代)의 최대(最大) 특산물(特產物)이로다. 선천(先天)의 사회(社會)는 인지(人智)가 암매(暗昧)하고 중심(衆心)은 유(有)에만 경(傾)하고 이(利)에만 혹(惑)하여 무형(無形)의 성령(聖靈)과 인도(人道)의 정의(正義)는 전멸(全滅)에도 (到)한지라 차(此)를 석(惜)하여 혹자(或者)는 성(性)을 입(立)하여 인심(人心)이 유형(有形)한 물(物)에만 분주(奔走)하여 성(性)은 망각(忘却)고 육전(六塵)과 고해(苦海)에 매몰(埋沒)되어 번뇌(煩惱)한 중에 그 최귀최애(最貴最愛)한 신(身)을 종(終)하는지라 차(此)에 성(性)을 논(論)하여 일신(日身)을 일차선정(一次禪定)하여 개심견성(開心見性)이면 피계(彼界)는 적전(赤塵)이 화(化)하여 청정(淸淨)이 되고 고해(苦海)는 변하여 극락(極樂)이되나니 여중(汝衆)은 고해(苦海)에 분주(奔走)치 말고 극락(極樂)에 래(來)하여 쾌락진정(快諾眞正)의 생활(生活)을 하라하고 전해(塵海)에 매몰(埋沒)된 창생(蒼生)을 자비(慈悲)하는 대자비(大慈悲)도 되며 혹자(或者)는 인심(人心)이 이욕(利慾)에만 경(傾)하여 반(反)히 자기(自己)의 신(身)까지 망각(忘却)하고 천륜인도(天倫人道)는 물외(物外)에 포기(拋棄)하는지라 차(此)를 석(惜)하여 인애(仁愛)의 대법(大法)으로 인(人)을 교(教)하여 인륜(人倫)을 명(明)히하고 인도(人道)의 정교(正教)를 창(彰)하여 인(人)은 이인(以仁)으로 상애(相愛)하여 이(以) 자리(自利)로 이타(利他)에 급(及)하게 교(教)한 인애자(仁愛者)도 되고 혹자(或者)는 증혹(衆惑)을 종합(綜合)하여 유일(唯一)의 신(新)을 인(認)하여 일신(日新)의 국(國)은 천국(天國)이요 기(基) 당(堂)은 천당(天堂)이니 신(新)은 인(人)의 정(正)과 선(善)을 행(行)함을 요구(要求)하고 죄악(罪惡)을 회개(悔改)함을 희하여 정선(正善)을 행(行)하는 자(者)는 조(助)하여 천국(天國)에 입

공(其功)이 소(少)하다 못할지나 앞으로 오만년(五萬年)의 장세월(長歲月)에 차(此)하고는 항하(恒河)의 일사(一沙)에 불과(不過)하고 군(君)의 섭(涉)한바 산하(山河)는 전세계(全世界)에 대(對)하여 일소정원(一小庭園)에 불외(不外)하나 앞으로 후천(後天)의 위(違)한 우주(宇宙)의 광팽을 둔 군이 아닌가 군은 경(更)히 제겁(諸劫)을 탈(脫)하고 악경(樂境)에 점입(漸入)하여 험준(險峻)의 고초(苦楚)를 다하고 평야(平野)에 쾌보(快步)를 시(試)하는 군이 아니냐 군이여 고려(顧慮)말 기(其) 장족(長足)으로 진(進)하여 봉익(鵬翼)으로 고비(高飛)하라 군의 후원(後援)은 건전(健全)하며 군의 이상(理想)은 무량(無量)하니라 군은 진(進)하여 취(取)하고 비(飛)하여 상(上)하라 여이장이단식곤장(余已將以箠食壺漿)으로 군을 영(迎)할지요 방황(彷徨)의 미진(迷津)을 파(破)하고 파란불화(波亂不和)의 사회(社會)를 평(平)하는 일(日)은 동(冬)은 춘(春)이요 사회(社會)의 난파(亂波)는 화락(和樂)하여 인류(人類)는 천민(天民)이요 세계(世界)는 천국(天國)이 되리니 유왕유진(俞往俞進)하라.

앞으로 오만년(五萬年)의 새길을 개척(開拓)하기에 분노(奮勞)하는 군의 건강(健康)을 위하여 축배(祝盃)를 거(舉)하고 큰 소리로 오만년(五萬年)의 장수(長壽)를 하(賀)하노라.

산하대운진귀차도(山河大運盡此道)

朴 玄 波

천도교 월보 제 124호

1920년 10월 15일

언의 시대(時代)임을 물론(勿論)하고 그 시대(時代)의 표상(表象)인 그의 사회(社會)에는 그를 지배(支配)할 만한 공통적(共通的) 정신(精神)이 신비리(神秘裡)에 복재(伏在)하여 있음은 누구나다 긍정(肯定)하는 공리(公理)이다. 그러므로 그 사회(社會)의 심리(心理) 즉 시대(時代)의 사조(思潮)가 변천(變遷)함을 따라 그의 제도(制度)가 변혁(變革)되나니 그 시대(時代)의 사조(思潮)가 변천(變遷)됨은 먼저 그의 공통적(共通的) 정신(精神)이 신비리(神秘裡)에서 변환(變幻)됨을 반증(反證)할 일 것이다. 그러면 이 우주만반현상(宇宙萬般現象)이 모두 그 정신(精神)과 서로 부합(符合)되지 아님이었으며 서로 응(應)하여 현(現)하지 아님이었다. 따라서 언의 시대(時代) 어떠한 사회(社會)를 물론(勿論)하고 부르짖는 파괴(破壞)나 건설(建設) 개조(改造)나 해방(解放) 그 무엇임을 물론(勿論)하고 다 그 정신(精神)과 합하고저

不子)하여 이연살인(以擬殺人) 이급해아(以及害我) 하는 차시(此時)가 아닌가 고(故)로 사회(社會)의 질서문란(秩序紊亂)은 기(基) 극(極)에 달하였도다 천운(天運)이 순환(循環)에 무왕부복(無往不復)하사 대기(大氣)의 서광(曙光)이 동천(東天)에 섬(暈)도 하도다 거경(去庚) 신사월오일(申四月五日)은 즉(卽) 후천대기(後天大氣)가 초개(初開)한 벽두(闢頭)이로다 신사(新師)-천명(天命)을 수(受)하사 방황(彷徨)하는 인족(人族)을 도(導)하사 극락(極樂)을 교(教)하시며 망(望)하든바 천국(天國)을 교도(教導)케 하시니 기(基) 대중(大宗)은 인내천(人乃天)이요 양조(兩條) 즉 성령수련(性靈修鍊) 육신보호(肉身保護)는 그 항로(航路)의 지침(指針)이로다 차(此)를 시해(試解)하건대 인(人)은 즉 아(我)니 아(我)는 신외(身外)에서 신(身)으로 하여 곧 아(我) 노릇하게 하는 자(者) 즉 성(性)을 수련(修鍊)을 할수록 영명무량(靈明無量)하여 신(身)을 어(御)하여 세(世)를 제(制)할지며 신(身)은 성(性) 재성(載盛)한 자(者) 이세(二世)의 무량(無量)한 유(有)를 용(用)하여 세(世)의 악(樂)을 형(亨)할 자(者)이니 그러함으로 보호(保護)치 않으면 불가(不可)하도다.

인(人)은 차양자(此兩者)를 선보(善保)하여 천(天)의 유형화(有形化)로 조직(組織)된 세(世)를 용(用)할지니 성신세(性身世)는 즉 아(我)이요 천(天)은 무형(無形)의 성(性), 유형(有形)의 세(世)를 상칭(想稱)한 자(者)이니 그러면 아(我)는 곧 천(天)이요 세(世)는 곧 천국(天國)이며 극락(極樂)이 아닌가.

자(玆)에 제자(諸子)의 편견(偏見) 즉 성(性)은 아(我) 본래(本來)의 요소(要素)이며 신(身)은 성(性)(본연성(本然性))의 화형(化形)한 자로 반(反)히 성(性)(기질성(氣質性))을 재(載)한 아(我)이며 세(世)는 이상(以上) 말함과 같이 천(天)의 유형화(有形化)의 집성(集成)한 자(者)이니 시천국(是天國)이 이난가 고(故)로 차(此)에 선천오만년(先天五萬年)의 방황(彷徨)하며 난해(難解)하는 문제(問題)는 기(其)정(正)을 득(得)하였도다. 수(隨)하여 몽매방황(朦昧彷徨)하든 제자(諸子)는 귀(歸)하여 인내천(人乃天)의 자포(慈胞)에 회(懷)하고 중향(衆向)은 일(一)에 정(定)하였도다.

그러나 금불문고(今不聞古) 불문(不聞) 금불차고(今不此古) 불차(不此)의 대중(大宗)의 고치하(高徹下)에서 대성은광(大聲恩光)을 발하여 미진(迷津)에 방황(彷徨)하는 창생(蒼生)을 제(濟)하여 극락(極樂)과 천국(天國)에 도(導)할 자(者)-기수(其誰)이뇨 차(此) 즉 월보(月報)-군(君)의 책임(責任)이 아닌가 군(君)은 후천대기(後天大氣)의 결정체(結晶體)의 출세(出世)한지 금이다열성상(今已多閱星霜)에 수(壽)-백(百)에 진(臻)하고 보(步)-본도산하(本島山河)에 섭(涉)치 않았음이었으니 기

이 사회(社會)에 모든 문제(問題)는 다 생명(生命)이 있음으로 시(始)하여 생(生)하고 생명(生命)은 그를 부지(扶支)하는 그것의 력(力)으로 지속(持續)될 것이다.

따라서 사회(社會)의 모든 문제(問題)는 다 각기자기(各其自己)의 생명(生命)을 위하여 곧 자기(自己)의 생명(生命)으로 하여금 계급(階級)으로부터 평화구속(平和拘束)으로부터 해방(解放) 압박(壓迫)으로부터 자유(自由)에 향진(向進)하여 될수 있는대로 완전(完全)한 생명(生命)을 향(享)코져 하여 기(起)하였으리라. 그리하여 인(人)의 생명(生命)을 중시(重視)치 아니하는 계급(階級)을 타파(打破)하며 인(人)의 생명(生命)을 구속(拘束)하는 제도(制度)를 개조(改造)하고자 부르짖음이 현하(現下) 모든 문제(問題)의 진수(眞髓)일 것이다.

보라 지금 세계(世界)가 동성(同聲)으로 상응(相應)하여 떠드는 모든 문제(問題)를 일인(一人)의 복(腹)을 위하여 전사회(全社會)나 국가(國家)의 생명(生命)을 희생(犧牲)하는 제(制)를 파괴(破壞)하고 공존생활(共存生活) 하자는 그것 자산(資產) 있는자와 권력(權力) 있는 계급(階級)에 생명(生命)이 없이 구(狗)체 노릇하는 노동자(勞動者)의 「나도 사람 너도 사람이다. 땀 흘리지 않으면 식(食)이 없다. 먹지 못한다」하는 그의 운동(運動) 그 완강(頑強)한 부권(夫權)의 구속(拘束)하에 처참(慘慘)히 귀중(貴重)한 생명(生命)을 무조건(無條件)으로 희생(犧牲)하든 부인(婦人)들의 자유해방(自由解放)을 부르짖는 그의 운동(運動)이 사회(社會)의 모든 자산(資產)은 유래(由來)의 땀의 결정(結晶)이라 고(故)로 이는 땀흘리는 자의 공유물(共有物)이 어늘 어찌 일력가(一力家)이나 일계급(一階級)의 전유물(專有物)이리오 하여 차(此)를 공동(公共)의 소유(所有)치 않으면 아니되겠다는 그의 운동(運動) 그 무엇이나 다 하나 즉 각자(各自)의 일인(一人) 생명(生命)의 절대(絶對)한 자유(自由)와 영원(永遠)한 평등(平等)을 위하여 부르짖으며 분투(奮鬥)함이 아닐까 나는 기(期)한다. 이후의 모든 문제(問題)는 이것이 시간(時間)의 문제(問題)이지 언제나 실현(實現)되기는 될줄로 자기(自期)한다. 또는 그의 실현(實現)되는 방법(方法)의 여하(如何)는 불문(不問)에 부(付)할지나 이는 모두가 사(私)가 아닌 공(公)임을 시인(是認)한다. 공(公)은 즉 이 시대(時代)의 대정신(大精神) 그것이 그대로 표현(表現)코져 함이라. 그러면 이의 모든 운동(運動)은 이를 표현(表現)코져하는 유형적(有形的) 방법(方法)에 지나지 못하는 수단(手段)이다. 수단(手段)의 여하(如何)든지 방법(方法)의 무엇임을 막론(莫論)하고 나는 이 모든 번민(煩悶) 모든 운동(運動)에 눈뜨지 못하고 분주방황(奔走彷徨)하는 모든 동족(同族)에게 일대반성(一大反省)의 강추(剛推)를 하(下)하리라. 제족(諸族)아 균등은 도노(徒勞)치 말라 모든 문제(問題)의 진핵(眞

그때 그만큼 합리(合理)되도록 자기생각(自己生覺)으로는 그 정신(精神)에 불합리(不合理)한 그 사회(社會)의 사상(思想)이나 제도(制度)를 개조(改造)하고자 절규(絶叫)할 일 것이다. 이의 절규(絶叫)는 곳 불철저(不徹底)한 불합리(不合理)한 곳 그 정신(精神)에 순응(順應)되지 아니한 사회(社會)를 합리(合理)하게 정신화(精神化)가 되도록 이 사회(社會)에 사상향(思想鄉)을 건설(建設)하고자 함이어늘 인습(因襲)에 물젖은 색안자류(色眼者類)나 불합리(不合理)한 제도(制度)에 의(依)하여 사복(私腹)이 비(肥)한 자류(者類)는 이를 음(陰)으로나 양(陽)으로 방혈(防歇)하나 리(理)는 리(理)대로 공(公)에 순응(順應)되어야 표현(表現)되나니 하시(何時)를 물론(勿論)하고 즉 이(理)에 합(合)된 공(公)의 성(聲)은 방(防)할 자(者) 무(無)하며 어(御)할 력(力)이 없다. 반(反)히 공(公)의 성(聲)을 거(拒)하는 자는 양급기신(殃及其身)의 외에 타도(他道)가 무(無)하다. 이에 이른바 공(公)은 즉(卽) 그 정신(精神)의 표징(標徵)이니 그 정신(精神)의 외(外)된 공(公)은 없으며 그 정신(精神)에 배치(背馳)된 사회(社會)는 없다. 그러면 누구나 그 사회(社會)를 연구(研究)코저 하는 자면 먼저 그 시대(時代)의 정신(精神)을 공구(攻究)치 아니치 못할 것이요. 모든 사회(社會)의 번민(煩悶)한 문제(問題)는 그 정신기관(精神機關)에 의하여 해결(解決)치 아니치 못할 것이다.

여기에서 왕고래금(往古來今)을 막론(莫論)하고 그 시대(時代)의 부르짖는 모든 문제(問題)는 그 시대(時代)에 해결(解決)될지며 해결(解決)할 기관(機關)이 산출(産出)될지니 이 곳 시(時)의 종교(宗教)이다. 그럼으로 종교(宗教)는 하시(何時)를 물론(勿論)하고 그 사회(社會)의 산물(産物)이라 할지요. 또한 그 사회(社會)는 그 종교(宗教)의 정신(精神)에 의하여 지배(支配)될 것이다. 종교(宗教)와 사회(社會)는 이(理)가 아닌 현상(現狀)이다. 수(隨)하여 인생(人生)으로서 종교(宗教)에 귀의(歸依)치 않으면 인생(人生)이 진취미(眞趣味)를 알지 못할 것이다. 즉 인생(人生)으로서 이 우주조직(宇宙組織)에 따라서 사회조직(社會組織)의 대정신(大精神)을 만일(萬一)이나 지득(知得)함으로써 그에 귀의(歸依)치 않으면 그의 생명(生命)은 공포(恐懼) 번민(煩悶)의 외운(疑雲)에 쌓이어 지속(持續)되지 못할 것이다.

이에 인생문제(人生問題)가 해결(解決)됨에 따라 사회(社會)의 모든 문제(問題)가 빙해(氷解)될 것이다. 복잡(複雜)한 사회(社會)의 모든 문제(問題)중 가장 긴절(緊切)한 진수(眞髓)는 오직 식일기(食一器)에 있다하겠다. 이렇게 말하면 그는 단(單)히 구복(口腹)만 위하여 그것의 노예(奴隸) 노릇하는 한 비부(卑夫)에 지나지 못한 자라고 할 자도 없지 못하리라. 그러나 그리하는 사람도 한번 재고(再考)하여보라.

決)될지며 따라서 우리 인류(人類)의 귀추(歸趨)가 정하여 질 것이다. 그럼으로 사회(社會)의 모든 개조운동(改造運動)은 마치 만장(萬丈)의 노도(怒濤)가 거암(巨岩)을 만나 한번 부딪치면 평정(平靜)함과 같이 여하(如何)히 격렬(激烈)히 현출(現出)되나 종(終)에 해결(解決)은 우리의 문(門)에 귀(歸)할줄 자기(自期)한다. 이는 과언(誇言)이 아니라 세계(世界)가 변(變)하여가는 그의 추향(趨向)을 봄에 가히 증(證)할지라. 이는 내가 내것을 자랑함이 아니라 현세(現世)의 사조(思潮)와 우리의 주의(主義)가 부합(付合)됨을 친(親)하여 이와 같이 말함이라. 이에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완강(頑強)히 주수(株守)하고 타(他)를 어(御)코져 함이 아니라. 지금은 무엇이나 무슨 사상(思想)이나 운동(運動)임을 물론하고 국부적(局部的)으로 세계적(世界的)이 아니면 아니될 것이어늘 현하(現下)의 모든 운동(運動)은 이 일지방(一地方) 일민족(一民族)의 국부심운동(局部心運動)이 아니며 세계적(世界的) 사조(思潮)며 운동(運動)임을 누구나다 긍정(肯定)할 바이다. 우리는 우리의 주의(主義) 도덕(道德)으로 인수(因守)함이 아니라 세계화(世界化)함으로써 문호적(門戶的) 종교(宗教)를 구차(句且)히 고집(固執)코자 앎음으로 그의 주의(主義)와 사조(思潮)가 합리(合理)됨 일세라.

核)이요 모든 운동(運動)의 요구조건(要求條件)인 대정신(大精神) 그것은 신비리(神祕裡)에 은복(隱伏)되어 있어 않고 발서 사실화(事實化) 세계화(世界化)가 되어 각(覺)하고 귀의(歸依)하면 이 세상(世上)은 절대(絶對)의 이상향(理想鄉)일 것이다.

모든 문제(問題)와 운동(運動)은 모두가 그의 생명(生命)에 평등(平等)과 자유(自由)를 요구(要求)함이였다. 그러나 모든 요구(要求)의 정신(精神)은 허위(虛位)에 치(置)하고 우리는 이때껏 그것을 숭배(崇拜)할 뿐이요 실현(實現)치 못하였다. 그래서 천부(天賦)의 자유(自由)를 우선허위(爲先虛位)에게 채(遞)분되었다. 우주(宇宙)의 대정신(大精神)은 그 정신(精神)대로 있고 이 물질(物質)은 또 물질(物質)대로 따로 형성(形成)함이 아니다. 그 정신(精神)이 형(形)을 성(成)하면 세(世)이며 물질(物質)이 다 만유(萬有)의 주재자(主宰者)로 우리가 무한(無限)한 경외(敬畏)와 절대(絶對)의 굴복(屈服)으로 허위(虛位)에 숭배(崇拜)하든 그 대정신(大精神) 곧 천(天)은 화(化)하여 곧 만유(萬有)이다. 인(人)이다. 인외(人外)에 숭배(崇拜)할 하(何)가 무(無)하며 만유(萬有)의 외(外)에 하(何)가 존재(存在)치 않다. 그럼으로 인(人)은 곧 천(天)이니 인(人)을 사(事)함에 천(天)으로 하고 만유(萬有)를 대(對)함에 신(神)으로 하여 우리는 댜먼저 허위(虛位)에 피(被)분되었던 자유(自由)를 회복(恢復)할지라 이를 각(覺)하면 이를 회복(恢復)하면 모든 문제(問題)와 운동(運動)은 다 해결(解決)될 것이다.

우리는 인(人)이다. 인(人)은 다 꼭 같은 천(天)이다. 천(天)은 구속(拘束)도 단계(段階)도 없는 절대(絶對)한 자유(自由)이며 평등(平等)이다. 인(人)은 서로 부조(扶助)하며 서로 경애(敬愛)함으로써 사회(社會)를 건설(建設)하자니 이러한 인천(人天)이 평등(平等)인 인내천(人乃天)의 주의(主義)와 사인여천(事人如天)의 도덕(道德)아래에 어찌 귀부천빈(貴富賤貧)이 별(別)이 있으며 다같은 인(人)에 어찌 구속(拘束)이나 계급(階級)이 있으랴. 무엇이나 불합리(不合理)한 부철저(不徹底)한 현상(現狀)을 타파(打破)하고 이상(理想)대로 합리적(合理的) 신사회(神社會)를 건설(建設)코자 하거든 먼저 이 주의(主義)를 주의(主義)하고 이 신도덕(神道德)으로 성(性)을 양(養)할 것이다.

이에 온 세계(世界)가 떠드는 바 개선(改善)의 운동(運動)은 곧 유형(有形)한 물질(物質)로 개조(改造)를 시(始)하여 그의 대정신(大精神)에 합리(合理)되도록 이 사회(社會)로 하여금 이상화(理想化)하고저함이요. 우리의 주의(主義)는 정신(精神) 곧 사회(社會)임을 지(指)하여 정신(精神) 즉 천(天)으로 하여금 사회화(社會化)코자 함이니 이에서 모든 사회개조(社會改造)에 번민(煩悶)과 문제(問題)는 해결(解

조선어교육(朝鮮語教育)을 없애고 조선의 역사를 왜곡(歪曲)하고 일본어상용(日本語常用)을 강요하고 총동원령(總動員令)을 내리고 궁성요배(宮城遙拜)를 강요(強要)하여 이 당시의 조선 사람은 숨도 쉴 수가 없었다. 무엇인가 일어나고야 말정적이 짓눌렸다. 대변혁(大變革)이 임태하는 순간이었다. 동양의 정세는 꼬이어만 갔다.

드디어 1937년 7월 7일 일본군은 노구교(蘆溝橋)에서 전단(戰端)을 열었다. 일본군은 파죽지세(破竹之勢)로 중원 대륙을 쳐들어갔다.

대약진의 쾌보(快報)가 연속 터졌다. 중국안의 전장은 확대해 갔다. 수백만의 일본군이 동원되었다. 일본의 온나라가 환호의 갈채가 터져 나왔다.

이때 춘암은 무슨 일이 있어도 결국은 일본이 패망(敗亡)한다고 확신(確信)하였다. '조선사람이 정신을 차려야 하다. 정신이 흐려지면 없다. 조선 정신을 가져야 한다' 그는 청년교인에게 식고(食告)를 하도록 하였다.

안심가중(安心歌中)에 있는 멸왜심고(滅倭心告)를 다시 생활화하도록 하였다. 즉 「무궁(無窮)한 내 조화(造化)로 개같은 왜적(倭賊)놈을 일야간(一夜間)에 멸(滅)하고자 전지무궁(傳之無窮)하여 놓고 대보단(大報壇)에 맹서(盟誓)하고 한(汗)의 원수(怨讐)까지 갚겠습니다。」를 식사때마다 심고(心告)토록 한 것이다.

이 조치(措處)는 1936년(布德 77년) 8월 14일 지일기념일(地日記念日)에 상경한 각지의 두령(頭令)들에게 봉도(奉道) 한순회(韓順會)를 통하여 각군의 특신자(特信者) 2~3명에게 알려졌고 아울러 특성금(特誠金)도 거출(釀出)할 것을 전(傳)하였다.

이런 내용(內容)은

은율군(殷栗郡) 홍성인(洪性仁) 정홍석(鄭弘錫) 김준각(金俊珏) 정기준(鄭基俊)

신천군(信川郡) 이너석(李雷錫) 김재선(金在善) 이준선(李俊善) 김성오(金成五)

송화군(松禾郡) 최정현(崔貞鉉) 손임수(孫壬水) 우동익(禹東益)

장연군(長淵郡) 강응열(姜應烈) 강종수(姜宗秀) 양태호(梁泰浩)

재령군(載寧郡) 최재학(崔在學) 임창우(林昌禹) 강병익(康秉億)

봉산군(鳳山郡) 오덕원(吳德元) 장명호(張明浩)

해주군(海州郡) 최보흥(崔普欽) 최덕삼(崔德三) 여운남(呂雲南)

안악군(安岳郡) 박승도(朴勝道) 김운학(金雲學) 이만유(李萬有)에 이어져 이후(以後)만 2년만에 1938년 무인(戊寅) 2월 17일에 일제에 탐지(探知)되어 홍순의

29. 무인 멸왜 운동

민족항쟁(民族抗爭)의 효율성(效率性)을 높이기 위해 범민족운동(汎民族運動)의 기치(旗幟)를 내걸고 발족(發足)한 신간회(新幹會)가 2년여만에 무위(無爲)로 돌아갔다. 이즈음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중국의 동삼성(東三省)을 강점(強占)하고 소위(所謂) 만주국(滿洲國)이라는 허수아비 정부(政府)를 세우니 일본과 영미(英美)와의 밀월관계(密月關係)는 파탄(破綻)이 오고 일본은 상해사변의 정면돌파를 하려다 우리 윤봉길(尹奉吉) 의사(義士)의 작탄공격(炸彈攻擊)으로 주춤하더니 다시 본격적(本格的)인 침공(侵攻)으로 나아갔다. 이에 일본의 조선침략에 변화가 일어났다. 조선족(朝鮮族)을 만주(滿洲)로 옮기고 우리 조선을 일인(日人)이 사는 본토화(本土化)해 나가는 것이다.

1. 예속 경제의 파탄(破綻)

피식민지는 식민국가의 착취대상인 것은 일반적 현상이다. 이(利)로운 것은 식민국가의 것이고 불리한 일은 다 피식민지에 떠넘긴다. 거기에서 후발 식민국가인 일본의 방법은 미숙(未熟)하였고 지난 날의 문화 선진지였던 대조선시책(對朝鮮施策)은 야만적(野蠻的) 강권적(強權的)이었다.

소위(所謂) 토지제도(土地制度)의 근대화란 미명하(美名下)에 조선의 국부(國富)의 거의 반(半)을 빼앗았고 경제공황(經濟恐慌)의 폐(弊)를 모두 조선에 몰았고 산미증산정책(産米增産政策)의 증지로 인해 조선인의 생활은 죽음 그 자체였다. 그리하여 수백만의 동포가 만주로 유랑(流浪)하여 간도성장(間島省長)을 조선사람으로 임명하는 데까지 이른 것이니 조선땅은 조선인이 줄어들어 공동화(空洞化)하는 데까지 이른 것이다.

2. 황민화정책(皇民化政策)

넓고 황량한 만주를 손에 넣은 일제는 조선을 병점기지(兵點基地)로 삼고 만주 경영을 전개해 나갔다.

조선을 물샴큼 없는 일본의 기지로 삼으려 하였다. 조선인을 내쫓고 일인(日人)을 데려오고 조선인을 일본인화 하였다. 이것은 이른바 황국신민화시책(皇國臣民化施策)이다.

天道の教大の談

朝鮮の獨立を夢想し

不敵な呪文を作成

黃海道警察部で檢舉

さのふ一味を京城に送局

警務局長談

【京報】「四國同盟」を主張しひこかたこれを行せしめたり。
 一、特別警務隊を編成し、全野を四區に分ち、特別警務隊において各區に於て地味を定め、田來、海防、警備、其に有力なる團體を組織せしめ、ひそかに三百二十四團を編成し、内百二十四團は警務隊において、生活費に補助費したり。
 三、特別警務隊は、警察官、警備隊、偵察隊、特別警備隊と稱し、強壯で日本風の体格より、同種隊とせしめる。其の訓練を行ひたり。

【上海廿五日電】本日午前十一時五分入港の船も、最も美しい共闘船、界州路バンド角に手錠、第二船を同時に降下し、二名の怪盗あり、手錠、第三船とも、海面上に浮遊し、通行中の支那人數者、第一船に捕獲せ

(洪順義)가 체포(逮捕)되어 중앙교회의 최준모(崔俊模) 한순희(韓順會) 김재계(金在桂) 김경함(金庚咸) 홍순의(洪順義) 등이 압송(押送)되어 기소(起訴)되었고 신천군(信川郡) 김성록(金成祿) 외 24명

안악군(安岳郡) 박승도(朴勝道) 외 6명 임실군(任實郡) 최종기(崔宗箕) 외 2인
은율군(殷栗郡) 홍성인(洪性仁) 외 20명 남원군(南原郡) 류태홍(柳泰洪) 외 1인

송화군(松禾郡) 손덕겸(孫德謙) 외 7명 순창군(淳昌郡) 윤귀섭(尹貴燮)
장연군(長淵郡) 강응렬(姜應烈) 외 11명 논산군(論山郡) 손필규(孫弼奎)
제령군(載寧郡) 최재학(崔載學) 외 6명 서산군(瑞山郡) 박병협(朴炳協)
봉산군(鳳山郡) 이승환(李承煥) 외 3명 광천군(廣川郡) 김정은(金正恩)
해주군(海州郡) 안영석(安永錫) 외 12명 아산군(牙山郡) 이보성(李寶成)
강창주(姜昌周) 이규호(李圭鎬)

웅진군(熊津郡) 정한영(鄭漢泳) 외 7명 등에게 전해져 해하다 검거되었다.

이 사건은 중일전의 고조(高潮)한 틈이라 조선인의 항일(抗日)을 널리 알릴 사항이 못되어 천도교중앙교회(天道敎中央敎會) 대표인 이종린(李鍾麟)과 일제가 타협(妥協)하기를 최준모(崔俊模) 한순희(韓順會) 김재계(金在桂) 김경함(金庚咸) 홍순의(洪順義) 등을 교적(敎籍)어세 제명처분(除名處分)하는 선에서 종결(終結)되었다.

이 사건으로 장흥(長興) 김재계(金在桂) 논산(論山) 손필규(孫弼奎) 해남(海南) 이강우(李强雨) 신천(信川) 김승삼(金昇三)의 네 분이 타계(他界)하고 수백명이 체포되어 고문(拷問)을 받을 일대 사건으로 천도교 수난사(天道敎受難史)의 말미(末尾)를 장식한 것이다.

춘암(春菴)은 이 사건으로 취조(取調)를 받아 혼미(昏迷)하여져 1940년에 다난(多難)하였던 일생(一生)을 끝맺으니 우리 민족운동의 거장(巨匠)이었다.

30. 춘암상사주(春菴上師主)의 이모저모

筆者 李 鍾 解

春菴上師는 筆者가 여섯살 때부터 十餘年 以上을 모시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記憶되는 것을 간추려 기록하려고 한다. 먼저 上師主의 日常生活을 보면(冬節期를 基準) 새벽 五時에는 반드시 起寢하시어 곧 庭園으로 나가시어 約 한시간 程度를 거니시며 運動을 하셨다. 새벽 운동을 마치시면 洗面을 하시고 衣冠을 整齊하신 後 홀로 正坐하시고 心告와 呪文을 默誦으로 한시간 반 정도를 하셨다.

八時를 前後해서 朝飯을 드시면 九時에는 敎會로 出勤하시었다. 敎會에서는 대개 午前 中에 일을 마치시고 正午가 좀 지나서 歸宅하셨다. 晝食은 一時에 드셨는데 진지의 分量은 小飯으로 두 그릇으로 白米에 黑太 든 것을 즐겨 드셨다. 저녁 잠자리는 一定하게 十時가 되면 누우셨으며 居處하시는 房은 春夏秋冬을 莫論하고 獨房을 使用하셨다. 그 당시 上師께서 外出하실 때는 人力車로 모시던 사람의 아들을 上師께서는 親孫子처럼 안고 다니시며 귀여워 하셨는데 이 아이가 上師主의 수염을 어쩌나 잡아당기는지 수염이 몹시 아프시다고 하신 때가 한 두번이 아니었다.

上師主와 함께 살던 食口는모두 二十三名이나 되는 大食口였는데 陽歷으로 正月 초하룻 날에는 上師主의 分부로 朝飯을 二十三名 모두가 똑같은 床에 똑같은 음식을 똑같은 그릇에 똑같은 分量으로 제각기 獨床으로 먹도록 하시었다. 특히 눈에 선한 것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呪文을 읽으시며 또는 외우시는 것이다. 어느때고 敎인들의 拜謁時나 道談하실 때나 손수 무슨일을 하실때 이외에는 恒常 呪文을 口誦하시고 계셨다. 우리들이 모두 알고 있듯이 上師主께서는 還元臨終時까지 待天主, 待天主하시는 音聲이 그치지 아니하셨다.

上師主의 어린시절은 뵈지 못하여 알 수 없으나 당시 어른들의 말을 들으면 上師主의 父親이신 朴命九公의 家庭教育이 매우 嚴正하셨다고 한다.

上師主께서, 五, 六歲의 어린시절 어느 여름날 밖에서 놀다가 마침 길옆에서 개똥참외(버린 씨에서 自生한)를 발견하고 너무나 좋아서 한개를 따가지고 자랑스럽게 집으로 돌아오자 참외를 들고 오는 아들을 본 아버지께서는 묻기를 “용호야 그 참외는 어디서 가져오느냐?” 하셨다. 上師께서 來歷을 여쭙자 아버지께서는 기뻐하시지 않고 오히려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비록 길 옆에서 자란 참외라 해도 네가 심지 않고 네가 가꾸지 않은 것이면 네가 딸 수가 없느니라” 하시며 不勞而自得에 대한 說明을 하셨다. 아버지로부터 不勞自得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어린 上師께서는 곧 참외를 먹지

本信 全島各地に大徳新上里
 二〇五
 本所 京師府西町四ノ三七
 本所 京師府東町四ノ二七
金在桂 (會五一年)
 本所 京師府八軒町二五
 本所 京師府東町四ノ二七
 本所 京師府西町四ノ二七
崔俊楨 (會五四年)
 本所 京師府西町四ノ二七
韓順會 (會五四年)
 本所 京師府東町四ノ二七
金庚成 (會五三年)
 本所 京師府東町四ノ二七
洪順義 (會四九年)
 本所 京師府東町四ノ二七

【二】不禮貌文函致
 右各在野、報端、報端等には、
 本報の編輯部に於て、不禮貌文函致を
 受ける事、日本新聞の特色下
 り、不禮貌文函致をして、記者を苦
 めるの事、昭和八年九月以後は、
 本報の編輯部より、日本の新聞
 を保護し、不禮貌文函致する事、
 明文を付載せず、其旨を以て、

寧ろ憐憫の情

三橋警務局長語る

彼獨立せしむる意味の所行を行
 来りたるが、昭和十二年十二月二
 十日在野、報端、報端等には、
 昭和十三年或時、新聞記者に付、
 購するに當り、前部の體にては、
 對しては、右は、官廳を取替ふる手段
 に過ぎざるを以て、恐るに、
 其の、
天道教自體 の、
大憲を廢止 して、
鯉登部隊 日本新聞の、

その思想行動を左右したもので
 あり、
 正工作に關しても、
 本報が、
鯉登部隊 日本新聞の、
鯉登部隊 日本新聞の、
鯉登部隊 日本新聞の、
鯉登部隊 日本新聞の、

政治の内幕

政治の内幕、
 政治の内幕、
 政治の内幕、
 政治の内幕、

鯉登部隊

- 念念不忘하여 항상 한울님 생각을 게을리 하지 말라. 思不去天 天思來이니라.
- 不離二主山 的知聽啞語이니 君等은 聽啞語하라.
- 有形한 사람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無形한 한울을 섬기랴.
- 한울님은 精誠이 至極한 사람과 親하나니라.
- 萬事는 時期가 있나니 오직 한울이어야 하느니라.
- 내가 죽드래도 마음만은 변하지 않으면 한울님은 좋아 하시니라.
- 君等은 家事를 客體로 삼고 天道教를 主體로 삼으라.
- 道를 잘못 믿으면 한울님이 벌을 줄리랴.
- 오늘이라도 우리 敎人이 모두 한울이 되어 마음만 統一 된다면 무슨 일이든지 아니될 것이 없느니라.
- 밥 한 그릇 다 먹을 때까지 心告하면 잘 하는 心告이니라.
- 무슨 음식이든지 먹을 때에는 “생각하시는 모신 내 한울님이 본래 오신 한울님을 받드셔서 먹고 屈伸動靜하는 것이 곧 나인 줄을 두철히 깨달았으므로 생각하시는 모신 내 한울님이 恩德을 길이 잊지 않겠나이다”하고 食告의 理致를 알고 念念不忘하면 道通이 그 중에 있느니라.
- 천하만사는 생각과 실체가 다르다. 성패득실은 眞理에 맡겨두고 結果를 짓는데는 實行이 있어야 된다. 實行이 없는 決心은 空想이고 決心이 없는 實行은 요행이니라. 萬罪惡은 空想과 요행에서 起하는 것이니 우리의 任務는 무엇보다도 眞理 그것 때문에 一生을 失敗한다 하더라도 영원한 成功이요 眞理가 아닌 成功은 永遠한 失敗로 돌아가는 것이니 현명한 同德들을 길이길이 認識할지이다.
-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마치 손으로 物件을 쥐고 있는 것과 같으니 손에 물건을 놓으면 그 물건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한울님의 간섭과 靈氣中에서 사느니라.
- 天下없어도 제 한울은 못 속이느니라.
- 음식을 겸상해서 먹을 때 맛이 있는 음식이라고 저 혼자 다 먹어서는 아니되느니라.
- 술좌석에 청하지 않거든 가지말라.
- 앞으로 洋人을 鐘路 네거리에 三日만 거꾸로 매달아 놓으면 항복하지 않는자 없으리라.

「天道教 第四世 法宗 春菴上師遺帖(1985年 5月 7日 東道會發行) 61쪽~64쪽」

않고 제 자리에 갖다 놓았다고 한다. 이 逸話는 어려서부터 여러번 들을 얘기자만 이러한 아버지의 敎育으로 上師께서는 成長하신 後 恒常 勤勉하신 生活을 信條로 삼으시며 거짓없는 信仰生活을 하셨으리라. 上師께서는 成長하시면서 元力이 壯大하시어 씨름판에서는 相對가 없을 程度였고 걸음이 또한 빨라서 하루에 百里는 無難하였고 藥酒는 豪酒家이셨다고 한다. 그러나 入道하신 후에는 禁酒하셨으며 海月神師를 자주 찾아 뵙는 관계로 부지런히 往來하므로 忠淸道 一帶에서는 上師를 가르켜 龍虎道士라 稱하였으며 縮地法을 한다고 수근수근하였다고 한다. 契煙은 三一運動時 西大門監獄에 계실 때부터 금연을 하셨다고 한다.

日本에서 聖師主와 함께 還國하신 卽後 서울 진고개(本町)에는 日本 商人들이 集團의으로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上師께서는 어느 商店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歸家하시어 물건값을 다시 計算하여 보니 支拂된 金額이 많이 틀리므로 不足된 金額을 가지고 다시 찾아가 商店主人에게 주었다. 日本人 主人이 매우 感服하여 百拜謝禮하면서 金脂環 한 개를 줌으로 上師께서 이를 사양하였으나 主人이 거듭 간곡하게 청하므로 결국 上師께서 金脂環을 받아 師母님께 주셨는데 筆者도 그 金脂環을 본 記憶이 生生하다.

上師께서 入道하신 후 피나는 篤工修煉은 우리 後學들이 크게 본받을 遺訓으로 天道敎人이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것이기에 略하겠으며 斷片面으로 上師主의 말씀을 들은대로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 布德七十八年 三月十二日, 敎人들에게 말씀하시되 “敎人은 거짓말을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는 내가 어찌 거짓말을 하겠는가. 지금 敎勢를 보면 돈이 없이 敎會가 微弱한 것 같으니 道가 없는 줄 알고 信仰이 薄弱한 사람도 혹 있겠지만 절대로 道는 없는 것이 아니다. 道가 없게 되면 한울이 없게 될 것이나 어찌 한울이 없을 理가 있겠는가. 한울이 없으면 나도 없고 世上도 없다. 내가 아무리 용렬하지만 나는 물질에 절대로 욕심이 없다. 참으로 나는 혼자 기쁘고 좋은 생각이 그치지 않는다. 참으로 때 좋은 생각을 하면 여간 기쁘지 아니하다. 우리 敎會로 말하면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때를 맞으리니 物質과 科學과 社會에 끌리지 말고 至誠으로 修道하라” 하시다.

○ 韓信이가 大將이 되니 漢나라 사람이 大驚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 敎人도 不意에 도통하는 자 續出하리라. 사람을 속이지 말라. 거짓말 한 번 하면 十年工夫가 無效가 되며 또 十年을 工夫해야 한다. 도를 알려면 먼저 내가 나 된 이치를 알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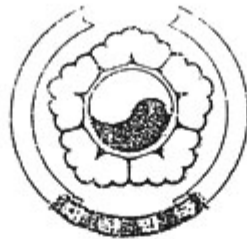
○ 물(水)은 틈이 없나니 사람의 마음도 그와같이 틈이 없나니라.

○ 제 할 일을 다 하고 제 잠을 다 자고 道는 언제 닦겠는가.

○ 너의 몸에 모신 한울님을 찾아 한울이 되어라.

○ 거짓말 하지 말라. 거짓에 죽고 참에 살리라.

제 654 호



훈장증

고 박인호

위는 우리나라 자주독립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바 크므로 대한민국헌법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훈장을 추시 함

건국훈장 독립장

1990년 8월 15일

대통령 노태우



국무총리 강영근

이증을 전국훈장부에 기입함

총무처장판 이연



춘암상사 박인호 유허비
(春菴上師 朴寅浩 遺墟碑)



박인호 유허비 (예산군 삼교읍 하포리 소재)

春菴 朴寅浩 研究

발행일 1997년 10월 3일

발행 예산문화원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433
전화 (0458) 35-2441

인쇄 충남인쇄사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604-11
전화 (0458) 33-2607

